

예술로 행복한 경기 문화, 소통으로 성장하는 문화 자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 백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예술로 행복한 경기 문화, 소통으로 성장하는 문화 자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 백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예술로 행복한 경기 문화, 소통으로 성장하는 문화 자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 백서

세
우
고





넉히고





이 어
이 어
가 는
는





경기도문화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과거와 현재 생활 문화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기존 문화콘텐츠의 재배치가 전달하는
역동적 힘과 관점 전환의 가능성을 담아내는
가치 창조의 공간입니다.

원연합회

www.kccfeg.org

역사 history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걸어온 30년,
새로운 문화의 바람이 분 30년

20 발간사

- 24 설립현황
- 25 주요연혁
- 26 조직현황
- 27 시설현황
- 28 회원현황
- 29 예산현황
- 30 연표 - 30년의 이정표
- 34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통계
- 40 주요사업

56 **celebration message 31**

30주년 축하 메시지

110 **story**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 이야기

112 **story 1**

경기도 지역문화예술의 중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20 **story 2**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변화 시도

124 **story 3**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구하는
다섯 가지 가치

사업 project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펼치는
21세기 지역문화

138 chapter 1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목한 지역문화의 두 가지 코인드
향토문화와 생활문화

- 142 향토문화
- 146 1 향토문화 연구사업
- 147 연구와 지원
- 150 향토사 콘텐츠 발굴과 제작
- 152 발간사업

- 168 2 향토문화 활용사업
- 170 축제
- 174 향토문화 콘텐츠 활용
- 185 향토문화 사업 지원

188 생활문화

- 192 1 어르신 문화사업
- 200 2 생활문화 축제와 전시
- 206 3 생활문화 지원사업

214 chapter 2

키워드로 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0개의 키워드, 10개의 문화씨앗

- 218 키우다 - 역량강화
- 220 조직혁신
- 230 인력양성
- 236 시선의 확장

- 248 펼치다 - 기획·지원
- 252 기획사업 2011년도 이전
- 258 기획사업 2011년도 이후
- 270 시·군 문화원 지원사업

- 274 기록하다 - 아카이브
- 278 경기도 문화원을 기록하다
- 284 경기도의 문화를 기록하다

- 288 엮다 - 네트워크

- 302 한눈에 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 304 사업편 구성에 대한 해설문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창립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제1조에 따라 '지역 내 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지역문화의 창달·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하여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백서 사업을 통해 '우리는 진정 잘 해왔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던지고자 합니다.

본 기획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흥적, 주관적, 취향에 따른 사업 기획을 넘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리고 맥락이 닿아있는 사업 기획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한 해가 바로 그 때였습니다. 주어진 대상 외에도 그 대상과 함께 제시된 모든 정보·지각·기억은 맥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 다시 말해 향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기획의 맥락을 잡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과 자료의 집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각 부문에 관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인 만큼, 자료 집적에 포인트를 두기 보다 30년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분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미래 전망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창고에 쌓인 30년간의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분석과 미래 전망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애초 기획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료가 충실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아,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30년을 분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서 사업의 방향을 30년간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아카이브 작업의 시작으로 설정하고 정리된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온라인문화원으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난 30년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자 한 것은 욕심이었습니다만, 적어도 지난 30년의 역사를 통해 향후 30년의 맥락을 잡아갈 수 있는 단초는 마련하지 않았는가하는 평가를 해 봅니다.

미래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현재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개념인 만큼,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미래가 지난 30년 역사의 연속선상에 위치 가능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안도감과 미래에 대한 가슴 벅찬 기대감이 공존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백서가 단순히 서재에 꽂혀 있는 책으로 남지 않고, 계속해서 활용되는 분석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0년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의 협력과 격려, 그리고 긴밀한 네트워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지방문화원이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역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먼지 쌓인 자료를 헤치고 다니며 내 일처럼 분석하고 정리해주신 집필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31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History.

역사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걸어온 30년, 새로운 문화의 바람이 분 30년

설립현황
주요연혁
조직현황
시설현황
회원현황
예산현황
연표 - 30년의 이정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통계
주요사업

celebration message 31

30주년 축하 메시지

story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 이야기

story 1

경기도 지역문화예술의 중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story 2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변화 시도

story 3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구하는

다섯 가지 가치

설립일

1985. 01. 01.



주소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홈페이지

www.kccfgg.org

주요목적사업

- 경기도 내 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 경기도 내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 경기도 내 문화원 종사자의 업무향상을 위한 연수
-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 경기도 내 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기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발전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연합회가 위임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부설기관

경기향토문화연구소





1985. 01. 01.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창립
제1대~3대 송승영 지부장 취임

1995. 04. 06.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기관 명칭 변경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3.

제4대
김종기 지회장 취임

1991. 07. 10.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설립 승인

2001. 07. 21.

경기도지회 사무처 이전
(경기도문화의전당 지층 → 경기문화재단 6층)

2006.

제5대
남선우 지회장 취임



2007. 12. 21.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개칭

2009.

제6대
오용원 지회장 취임



2012.

제7대
정상종 지회장 취임



2013. 02. 26.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개칭

2013.

제8대
염상덕 회장 취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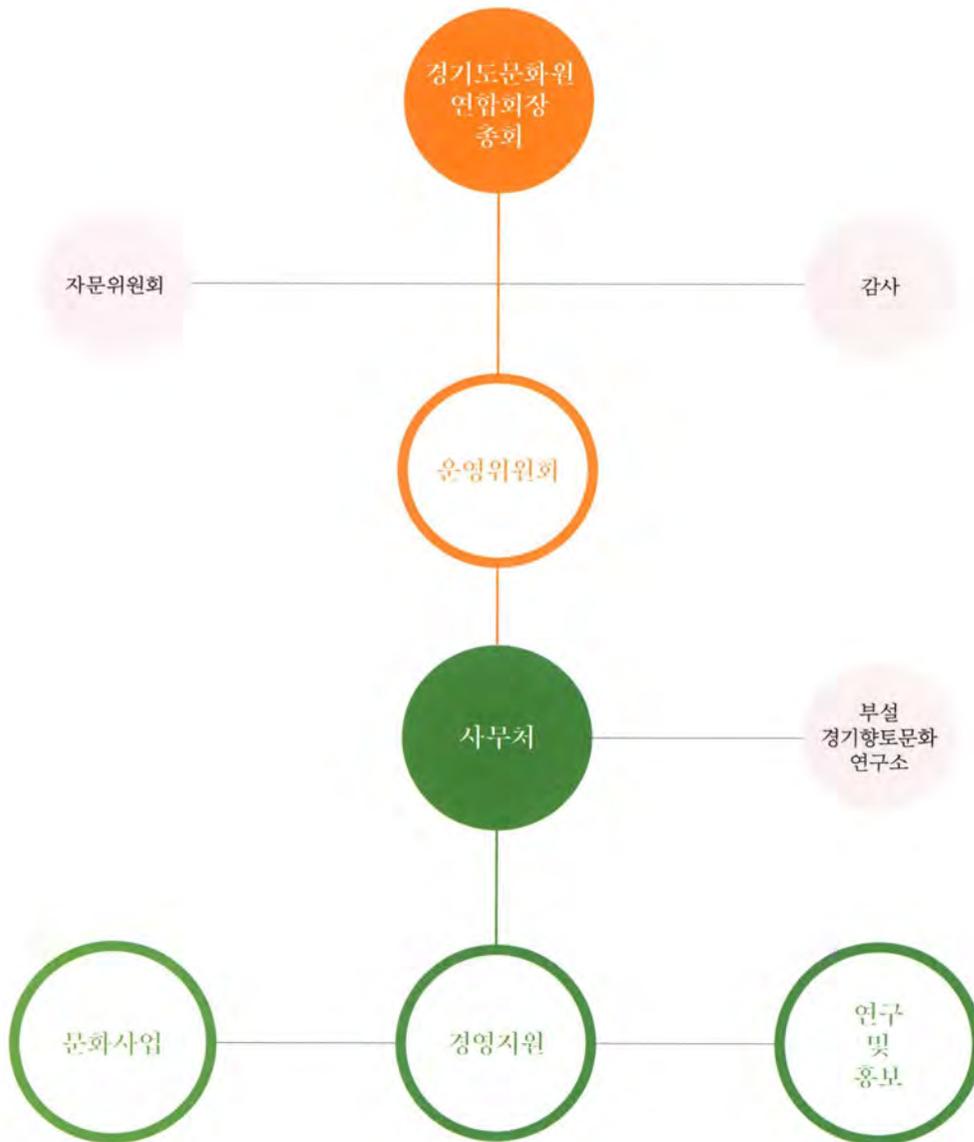
현9대
염상덕 회장 취임

2016. 12. 16.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직현황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연구·홍보팀과 경기향토문화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31개의 지방문화원과 함께
경기도 문화의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155.20m²

문화예술기관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전통과 현재의 아름다운 문화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31개 지방문화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문화콘텐츠의 재배치가 전달하는 역동적 힘과 관점 전환의 가능성을 담아내는
가치 창조의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1
회장

엄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
부회장

박형재
부천문화원

조수기
의정부문화원

김봉식
안산문화원

2
감사

정원철
시흥문화원

김대진
성남문화원

9
운영위원

장재찬
양평문화원

이경순
연천문화원

김문영
여주문화원

방규동
고양문화원

양장평
안성문화원

김은호
평택문화원

이하준
김포문화원

박계일
군포문화원

조명호
이천문화원

16
회원

김만중
가평문화원

이용석
과천문화원

안성근
광명문화원

박기준
광주문화원

김문경
구리문화원

이보금
남양주문화원

정경철
동두천문화원

신기선
인양문화원

홍성준
양주문화원

공창배
오산문화원

조길생
용인문화원

한봉우
의왕문화원

이용근
파주문화원

양윤택
포천문화원

유병기
하남문화원

고정석
화성문화원

1994

총 예산



정상운영비



사업비

지자체보조금	공모사업비	후원금/기타
0	0	64,700

합계
64,700

2016

총 예산



정상운영비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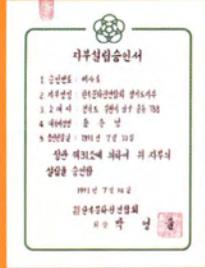
지자체보조금	공모사업비	후원금/기타
790,000	0	208,700

합계
998,700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의 이정표

연표

1990



7. 10.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설립 승인

2. 21.
운영위원회 조직 및
설치

1985



1. 1.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창립
제1대~3대 경기도지부장
송승영 취임

1991

1992



7. 10.
제1차 정기총회 개최

1994

1995

4. 6.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개칭



- 2. 17.
시·도지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제5대 경기도지회장
남선우 취임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설립

- 7. 21.
경기도지회 사무처 이전
(경기도문화의전당 지층 →
경기문화재단 6층)

2000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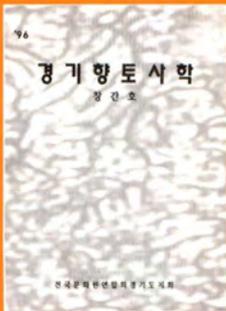
1998

2001

2003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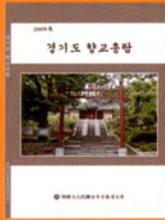
- 12. 20.
《경기향토사학》
창간호 발간



제4대 경기도지회장
김중기 취임

연표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발간



『경기도향교총람』 발간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 발간



제6대 경기도지회장 오용원 취임



제7대 경기도지회장 정상중 취임

경기도문화원 향토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정책 및 사업화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다산이 그리워 한 마을 마재마을』 발간

경기도문화원형 사업 결과 보고서 발간

2000

2010

2007

2009

2011

2012

12. 21.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개칭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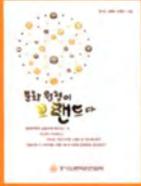
《경기문화저널》 통권 제1호 발간



경기도지방문화원 요구 및 수요조사 보고서 발간

9. 16.
경기도민속예술제
운영규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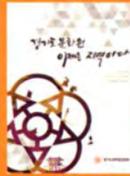
- 경기도문화원
증장기 발전 방향 수립
3차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 발간



- 『문화원형이 브랜드다』
발간

- 『옛길을 품은 마을, 오리골』
발간

- 『경기도문화원 이제는 지역이다』
발간



- 제9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임상덕 취임

2013

2014

2015

2016

- 2.26.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개칭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2.28.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법인화 추진
운영규정 개정



- 제8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임상덕 취임

- 11.21.
경기도민속예술제 관련
운영규정 개정

- 11.22.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운영규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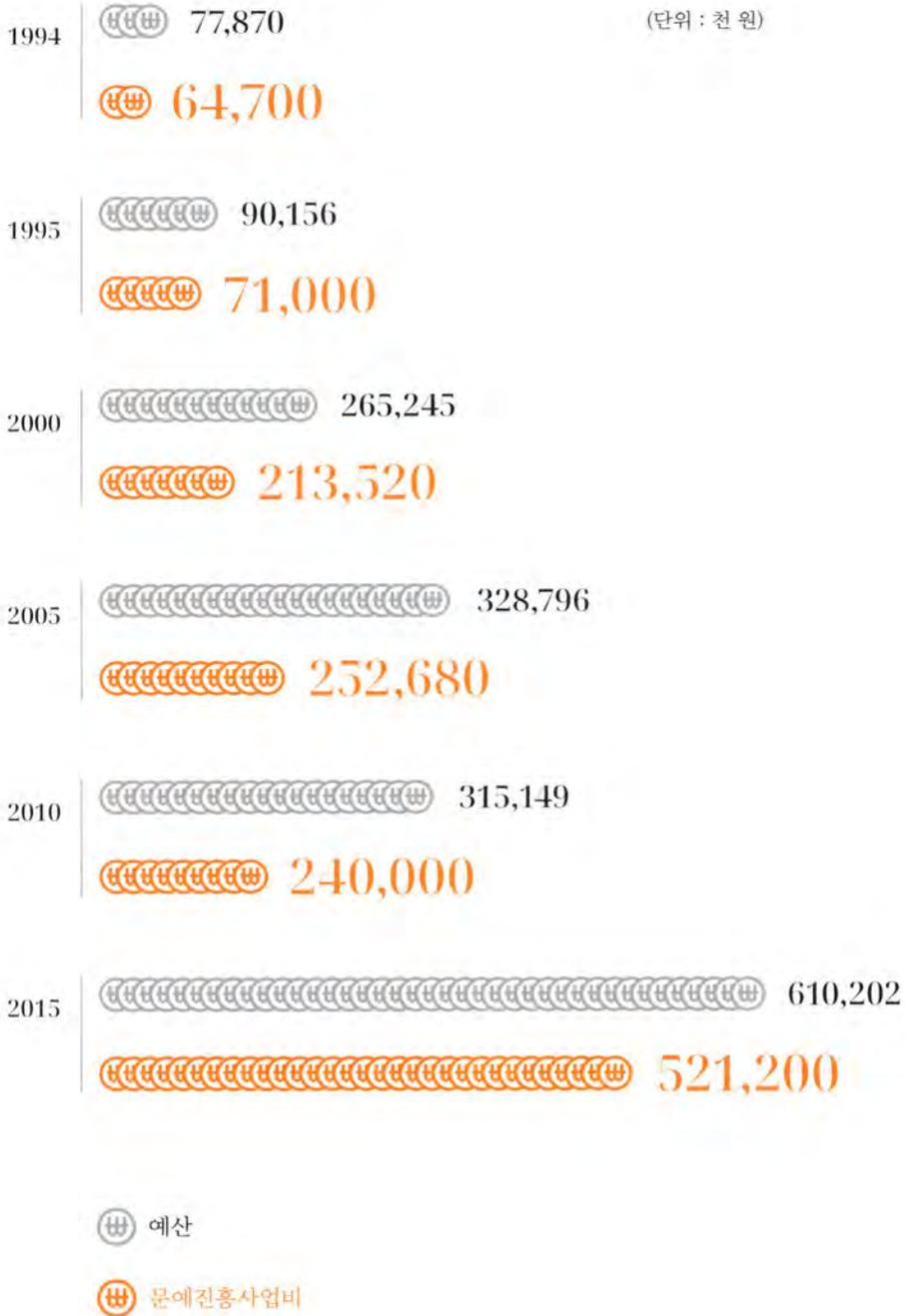


- 『사람의 삶이 역사다』
발간

- 5.26.
경기향토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 12.16.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

자료집

- 경기도지방문화원육구, 수요조사보고서
- 경기도문화원 중, 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 집적 및 활동 보고서
- 경기도문화원 향토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정책 및 사업화방안연구
- 경기도문화원중장기발전방향수립3차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 경기도문화원형사업 결과보고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애뉴얼리포트
-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결과보고서
-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 결과보고서
- 어르신기획자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문화자원봉사 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 생활문화동아리<심포지움> 자료집
- 경기도지속가능발전 정책사업 결과보고서
-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구축사업 결과보고서
- 페스티벌31 결과보고서
- ⋮

24

단행본

- 경기문화저널
- 경기향토사학
- 경기음악 I, II
- 이규보 평전
- 경기도문화원에서 노을자
- 이제는 지역이다
- 다산이 그리워 한 마을<마재마을>
- 옛길을 품은 마을<오리골>
- 경기도지방문화원총람
- 생활문화 다시보기
- ⋮

3

DVD

- 문화원형이 브랜드다
- 사람의 삶이 역사다
- 성년의레

2

CD

- 경기도속소리
- 경기도 모심는 소리의 양상과 민요권

2

도록

- 미래유물전
- 국토종단 스케치 여행

	문화원	총 예산	(단위 : 천 원)
1	가평문화원	481,050	
2	고양문화원	887,666	
3	과천문화원	650,039	
4	광명문화원	881,818	
5	광주문화원	486,830	
6	구리문화원	360,691	
7	군포문화원	56,000	
8	김포문화원	744,700	
9	남양주문화원	243,000	
10	동두천문화원	287,156	
11	부천문화원	630,377	
12	성남문화원	768,728	
13	수원문화원	2,091,485	
14	시흥문화원	368,166	
15	안산문화원	1,004,253	
16	안성문화원	307,702	
17	안양문화원	418,408	
18	양주문화원	220,906	
19	양평문화원	718,051	
20	여주문화원	457,266	
21	연천문화원	179,000	
22	오산문화원	402,410	
23	용인문화원	666,345	
24	의왕문화원	261,873	
25	의정부문화원	668,314	
26	이천문화원	495,939	
27	파주문화원	586,798	
28	평택문화원	789,900	
29	포천문화원	515,779	
30	하남문화원	330,882	
31	화성문화원	592,359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610,156	

- 2015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총합 기준

경기도 지방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변화



사업분야	운영기관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8개 사업 중 3개) 37.5%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제12회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 경기도 문화원 소식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경기문화재단	제 11회 해외문화체험 및 유적지 탐방
문화 예술 진흥 (8개 사업 중 2개) 25%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제8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악 프로젝트 (짱! 짱이예요 국악소리)
지역 문화 자원 연구 (8개 사업 중 3개) 37.5%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향토사학 제15집 발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형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 미등록 무형 문화유산 발굴, 전승, 복원 지원



제11회 해외문화체험 및 유적지 탐방



제12회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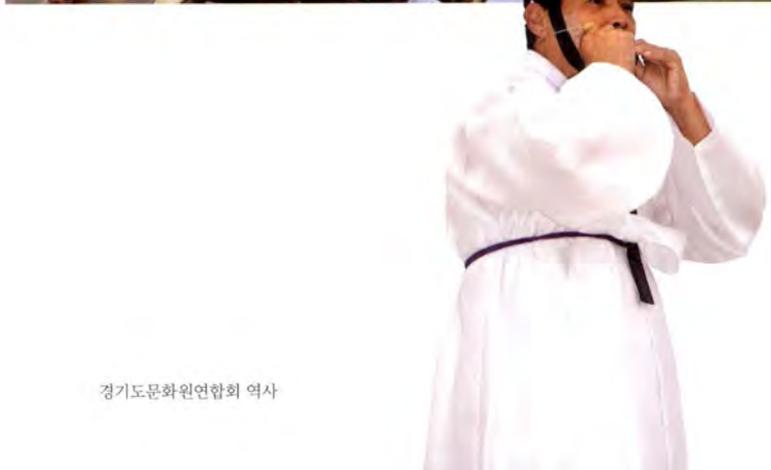
2016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콘텐츠

사업분야	운영기관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17개 사업 중 6개) 35.3%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역량 강화 사업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합동연수, 지 속가능발전위원회) - 웹진)경기문화저널 발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기획자 교류 지원사업 - 권역별 어르신 성과 관리사업 -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시도지원 본부 운영사업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경기문화재단	해외연수: 선진지역국제교류네트워크사업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경기문화재단	제3회 경기도문화원 한마당 - 제1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 제6회 경기도시낭송의밤
문화 예술 진흥 (17개 사업 중 6개) 35.3%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기획사업 - 문화바우처기획사업
지역 문화 자원 연구 (17개 사업 중 5개) 29.4%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 경기향토사학 제21집 발간 -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 경기도문화원 지원사업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기획사업

축제

경기도민속예술제

1982년 제1회 경기도민속예술제가 개최된 이래
 1996년 제1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를 시점으로 일반부와 청소년부가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매년 지역을 선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역문화원이 공동주관하며,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한국민속예술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페스티벌31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의 축제를 의미하는 <페스티벌31>은 전문기획자, 큐레이터,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지방문화원이 중심이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제1회 수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을 선정,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 말 지역대표공연예술축제로 지정되어 전국규모의 문화원 축제로 거듭나고자 한다. 주요프로그램인 ‘내가있는날31’, ‘나이없는날31’, ‘생각하는손31’, ‘문화원이야기31’의 기획공연과 기획전시로 엮어진 장르융합콜라보레이션 축제로 추진되고 있다.



축제



미래유물전

지역의 향토, 역사, 전통으로 대변되는 지방문화원이 곧 과거가 되는 현재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미래유물전>은 2015년 '이천이 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천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집중, 그들이 만드는 관계 그리고 문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아카이브형 기획전시이다. 매년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문화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가예찬(詩歌禮讚)

2011년 경기도시낭송의밤으로 출발, 장기적으로 인문학축제로 지향을 넓혀 브랜드화 시켜 내고자 <산성시가山城詩歌>를 거쳐 <시가예찬詩歌禮讚>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부터 “이제는 지역문화원이 인문학적 가치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슬로건으로 지역문화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교육연수 세미나

주요사업 경기도지방문화원역량강화사업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지방문화원 직원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2011년 지방문화원 욕구, 수요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 행정, 조직커뮤니케이션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교육마스터플랜에 따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1998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 임직원, 회원들의 친목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방문화원 발전방향 토론회와 문화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 강연, 원장, 국장, 직원, 회원들의 색션워크숍을 통한 아젠다 채택, 지방문화원어워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2

교육연수 세미나

주요사업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구축사업

1997년 해외문화유적답사라는 사업명으로 중국고구려문화권 답사를 시작하여 매년 원장단을 중심으로 해외문화유적학술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구축사업>으로 변경, 문화원장단뿐 아니라 국장과 직원이 격년제로 국제문화네트워크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향토문화대학

지역의 향토, 전통, 지역문화, 역사를 발굴, 조사, 보급, 활성화라는 지방 문화원 본연의 목적에 맞는 체계적 활동을 해 왔는가에 대한 자기비판과 함께, 이미 지방문화원에 조직되어 있는 지역향토문화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사학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설된 과정으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와 기획,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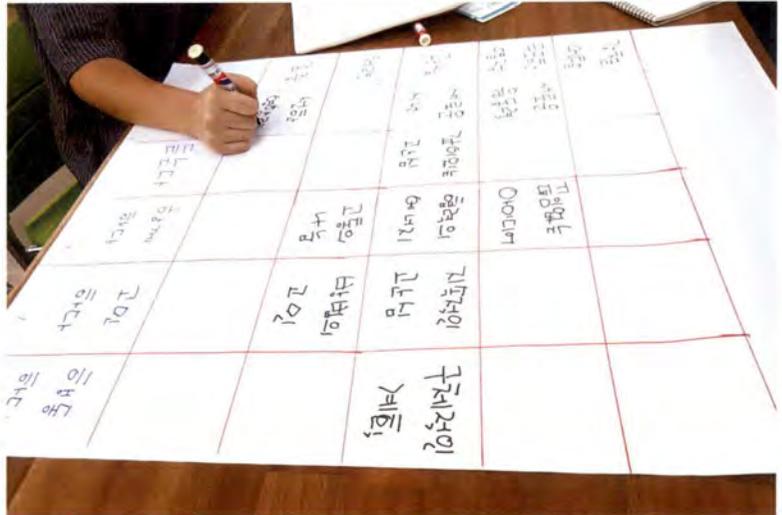
2

교육연수 세미나

주요사업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키움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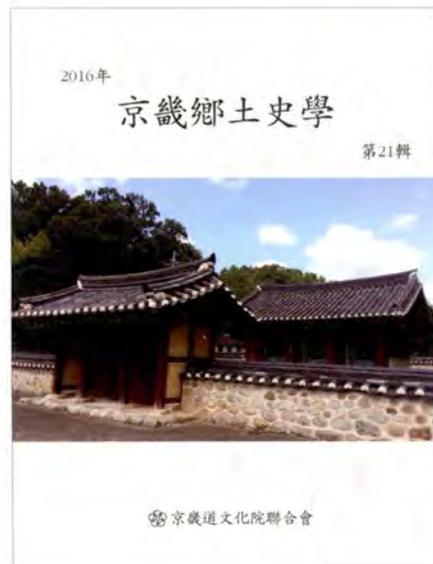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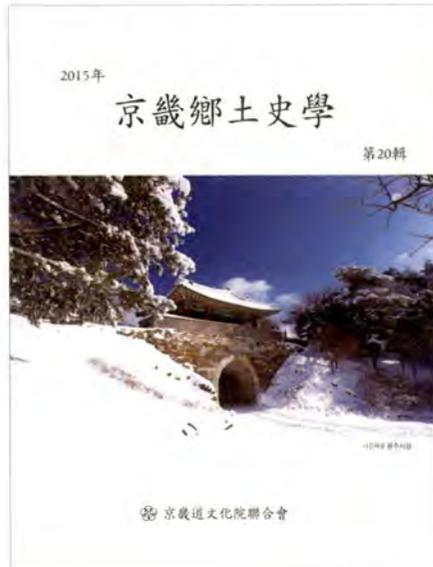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자기 위상 확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지방문화원 직원과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지역문화활동가를 대상으로 문화정책 및 기획강의를 통해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량강화 프로젝트이다.



주요사업

《경기향토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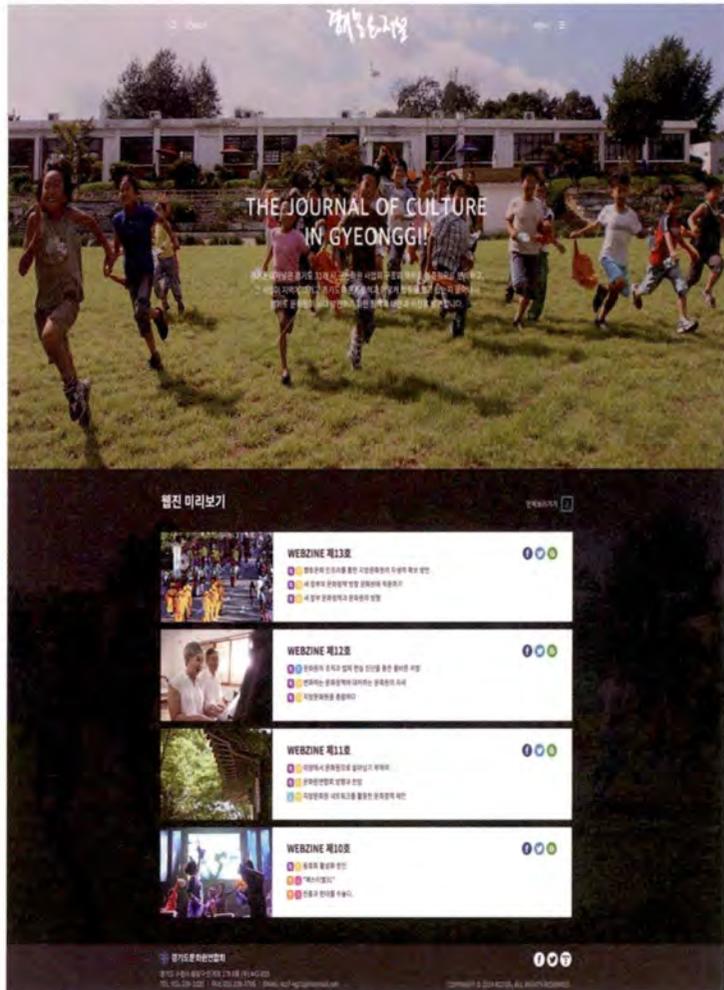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기관인 '경기향토문화연구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6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1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다. 지방문화원이 추천하는 각 지역 향토연구위원으로 구성된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위원들이 지역의 역사, 문화자료를 조사 및 연구하여 모은 논문집이다.



주요사업

《웹진 경기문화저널》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사업구조와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 《경기문화즐거찾기》를 시작으로 지방문화원 및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소식지 성격을 넘어 지방문화원이 당면한 과제의 체계적, 시의적절한 담론생산구조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경기문화저널》을 발간하였다. 2015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웹진 경기문화저널》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라 무심코 지나쳤던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 내가 사는 마을에서부터 지역문화를 발견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사소하고 익숙했던 일상, 사람, 관계들을 낯설게 보고, 새롭게 배치하여 지역문화를 재발견하고자 주민 마을큐레이터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4 문화원 지원

주요사업 시민문화활동가양성사업

품앗이안 프로젝트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체육자원봉사매칭시스템사업>을 한 단계 진화시켜 지방문화원의 사업운영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자발적, 창의적 시민문화활동가양성으로 자원봉사의 개념을 '자원활동'으로 확장,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가능한문화원만들기 액션플랜의 제1플랜으로, 액션플랜 구상의 원점이기도 하다.



주요사업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전통 민속 보존을 위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민속보존단체 중 1982년 제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팀의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대상,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단체를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로 지정하여 2014년까지 64개 단체를 지원했다. 2015년부터는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입상한 상위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전통 민속 보존에 힘쓰고 있다.





보통지
보통지
보통지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CELEBRATION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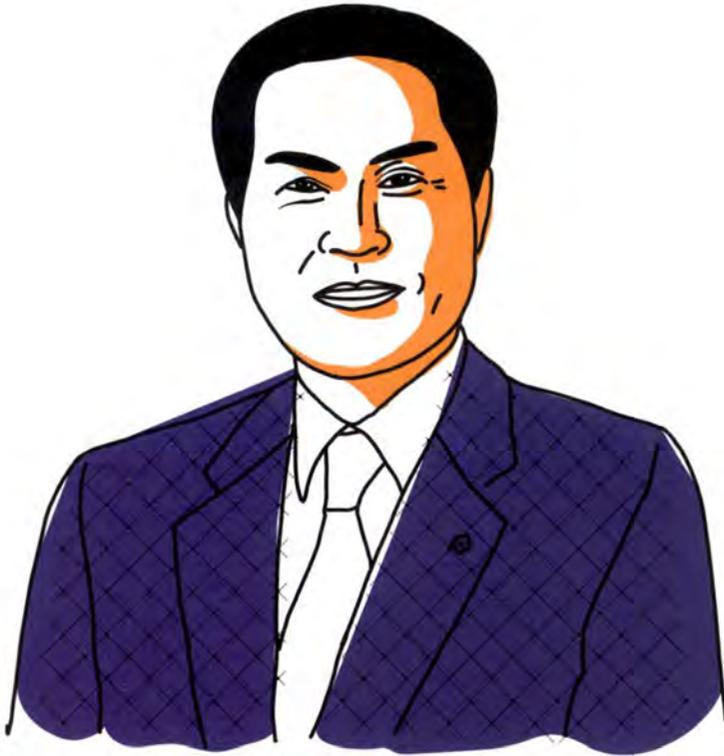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주년
축하 메시지

31



이경동

한국문화원연합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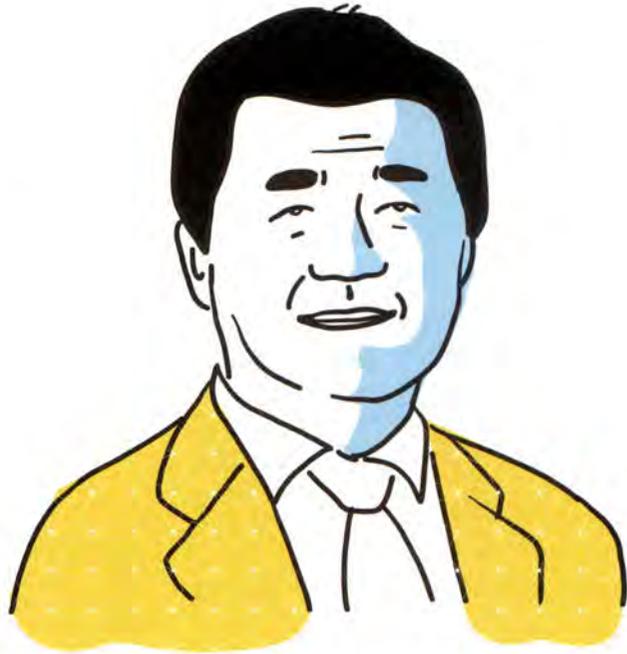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주년 기념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상 백서는 조직의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정리하여 대외에 알리는 책자이나, 이번 백서는 경기도 내 31개 문화원의 현황을 기본으로 하여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지난 30년간 광역권 문화의 거점으로서 활약한 문화 활동의 기록을 정리하고, 향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 책자를 통하여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기대해보며, 백서 발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
형
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회장
부천문화원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면서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예술의 전통과 소중함을 잊는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문화원과 이를 서포트해주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30주년의 역사는 그래서 더욱 가치 있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한 다양한 문화 사업들은 각 지방문화원들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연합과 교류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사무국 직원들과 문화가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모두가 각자 서로 다른 자리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진력해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아 축하하고 기념의 시간을 갖지만,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제 나아갈 50주년, 100주년을 위해 한걸음 도약하고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전국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30주년을 맞아 염상덕 회장님과 그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신 역대 연합회회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임원 및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수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회장
의정부문화원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주년 기념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역대 회장 및 임원의 헌신적 노력과 31개 시·군문화원이 긴밀한 협조와 성원으로 성년 연합회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가 숨 쉬면서도 산소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문화를 생활도구처럼 접하고 문화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부족하여 시·도 연합회 운영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도 산하의 31개 시·군문화원은 각자 형편이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 역할을 하는 도연합회가 살아나야 지역문화원도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각자 자기 살을 베는 아픔을 참으며 회비를 기부함으로써 도연합회가 출판 사업, 향토연구 사업, 전통문화 계승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연합회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국비사업을 시·도문화원연합회로 전도해주고 예산지원도 확대해줌으로써 시·도연합회가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12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함으로써 도연합회 운영비(경상적 경비)를 지원받게 해주어 도연합회 운영이 안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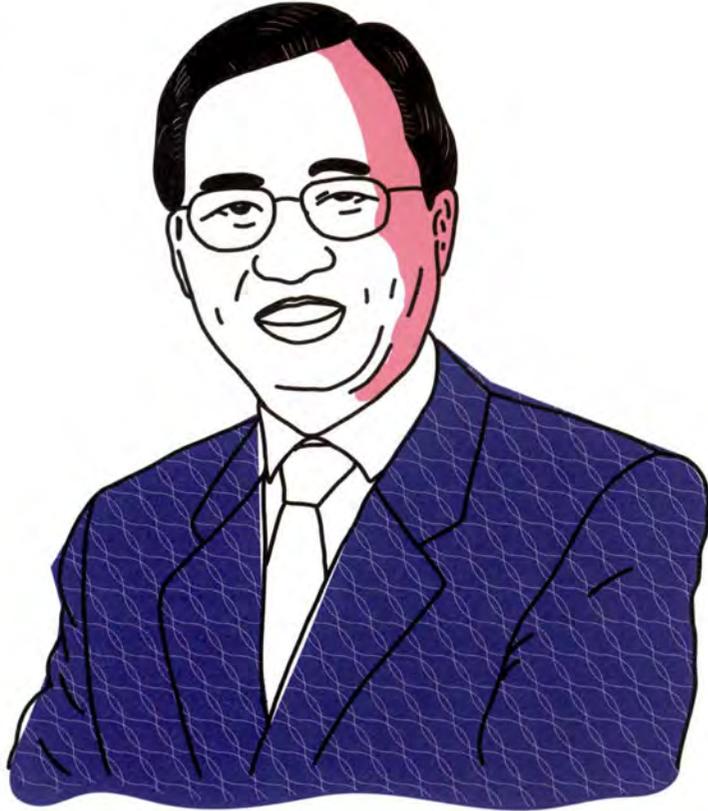
따라서 도연합회가 진행하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경기도민속예술제, 문화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권역별 어르신성과 사업,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과 경기도 역사문화 발굴 연구 및 편찬 사업 분야는 전국 시·도연합회 사업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30세의 성년이 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이제 ‘21세기 정보문화시대’를 맞아 전통문화와 생활문화를 접목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메카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김봉식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회장
안산문화원장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주년 기념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발간을 위하여 애써주신 엄상덕 회장님을 비롯하여 연합회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년간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경기도 지방문화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 내 문화원 간의 상호 협조를 돕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역의 문화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국가의 문화 발전에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그 기반의 중추 역할을 각 문화원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문화원의 발전을 뒷받침해주어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주년 기념 백서 발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합회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를 토대로 문화원 발전을 위한 계획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고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30주년 기념 백서가 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다시 한 번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진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직원 연수
품앗이안 프로젝트 워크숍 강의



2014년 9월 18일,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경기도 시낭송의 밤. 남한산성 시가예찬 출연을 위해 이천문화원정대팀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유서 깊은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지역의 문화를 시로 표현해보는 시간. 여러 번의 리허설과 설렘으로 만반의 준비를 한 뒤, 멋진 무대조명을 받으며 등장하는 출연진을 보며 환호하고 열광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5년 10월 10일, 파주 자운서원을 배경으로 열린 시간예찬은 저녁 6시가 다가오자 금방 어두워지고 기온이 뚝 떨어져 오들오들 떨며 감상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시가예찬의 표어가 따뜻하고 몽글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스스로 처음이 되는 힘'. 경기도 문화원은 31개 지역에서 스스로 처음이 되는 힘을 키워나가면서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그동안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만 활동해온 문화원으로서, 인접해있는 지역이나 비슷한 지역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과의 교류를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지역 간 교류와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경기 정명 천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경기도에 속한 31개 지방문화원이 향후 천년 지역문화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지, 각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기초단위의 지방문화원의 연결과 교류, 통합과 연대에 관한 일체의 구상과 그로부터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청사진을 공감하게 하여 끌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에 기대기보다, 광역시도연합회의 역할이 이려해야 한다는 것을 중앙에 보여줄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기본적으로 기초단위의 지방문화원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타 시도연합회를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사업구상이 끝까지 지방문화원의 욕구와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인적 자원이 보다 전문화되고 두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 인력의 양성, 이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영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경기도문화원 사무국장협의회 회장



2009년 7월, 경기도 문화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낯선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고민을 같이 해오며 어언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무 첫 해인 2009년 9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개최된 제17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을 받았던 기쁨과 영광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경기도 국장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해외 선진문화지역을 답사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곳곳하게 경기도 지역문화를 일구고 견인해 온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창립 30주년을 경기도 문화 가족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합니다. 지역에서 가장 오래,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문화시책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내 31개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이 처한 여러 대내외적인 여건들로 인해 지방문화원의 역량은 문화원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31개 지방문화원의 컨트롤타워격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지방문화원 간 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시책들을 발굴·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와, 노력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개선·정착되는 데 그 역할을 다해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도내 31개 지방문화원의 구심점이 되어, 시대의 흐름에 맞춘 다양한 문화시책으로 지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 경

이천문화원 과장

경기도문화원직원협의회 회장



경기문화의 중심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31개 문화원의 문화 욕구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흩어진 그간의 활동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노력으로 모으고 꿰어, 경기도 문화원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1개 문화원마다 특징을 살려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경기도문화원직원협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니 연합회에 감사한 일이 또 있네요.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매년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 직원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사진과의 만남은 실무자로서 문화사업 마인드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수 준비만도 힘드실 텐데, 매년 문화원 직원들을 위한 진심어린 정성이 느껴져서 감동한 적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제4차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 직원연수에서 제공해주신 빨간 노트입니다. 그 투박하고 소박한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매년 빨간 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 빨간 노트를 문화원 직원연수에서 받은 교육과 그 외 다양한 활동을 정리하는 노트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원 직원들 책상에 근무연수만큼 교육 내용이 잘 정리된 빨간 노트가 꽂혀 있는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말하자면 연차별 교육 아카이브 노트인 거죠.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도 문화원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문화원에 몸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31개 문화원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를 위한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에 많은 애를 써주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원만큼 지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갖고 지역만의 문화를 찾아내어 보존하고 성과를 낸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원의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세대를 아우르고 더불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역문화로 발돋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통하여 경기도 31개 문화원의 변화를 위한 문화교류와 교육, 소통이 더욱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명수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



인간은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게 되었고, 문화를 가짐으로써 인간다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감성과 정서의 산물이며 가치관의 표현인 문화인 것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산실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뜻깊은 30주년을 맞이하여 문화 사업에 애써주신 염상덕 회장님과 최영주 처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 제1집부터 2017년 제22집까지 경기향토사학 발간에 매진해올 수 있었던 것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관심과 예산 등의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개 시·군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은 내 고장에서 묻히고 잊힌 역사를 발굴하여 세상에 알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가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때로는 삭풍의 계절을 견디어내고 껍질을 찢고 새순을 불러내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숙절없이 흘러간 먼 옛날 속에 묻힌 유적지를 찾아 산속을 헤매다 날이 저문 일, 예고도 없이 폭설 속에 길을 잃고 헤매던 일, 물 한 그릇 얻어먹으려다 개한테 물린 일……. 이렇듯 연구위원들이 일선에서 발로 뛰는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깊이를 모를 정도로 높아지고 멀어져 있는 하늘만큼이나 역사의 흔적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곳은 내가 태어나고 먹여준 곳,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계신 곳입니다. 정겨운 초가집 뒤뜰, 장독대 앞뜰 마당엔 거뒀들인 곡식이 쌓여있고 하늘에는 바람 따라 구름이 일고 밤이면 은하수 무대 아래 눈썹달의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 들어온 희미한 달빛의 할머니 옛이야기는 사랑방에 머물러 있는 곳, 그리고 고요한 정막을 깨우는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기억의 언덕입니다.

언젠가 읽었던 매월당 김시습의 글귀가 생각납니다.

‘네 덕에 힘쓰고 네 힘으로 부지런히 하여 저녁으로 새벽을 잇고 새벽으로 저녁을 이어야 할 것이다. 옛것을 학습함에 있어서는 널리 배우고 일에 임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부귀에 급급하게 하지 말고 빈천에 슬퍼하지 말라. 이윤의 평천하의 뜻에 뜻을 두고 안연(顔淵)의 극기(克己) 공부를 배워서,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조정(朝廷)에서의 우국(憂國)을 느슨하지 않고 하찮은 지위일지라도 임금에게 간언(諫言)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곤궁함과 영달함, 현달함과 드러나지 않음은 비록 하늘에 달린 것이지만 충신과 덕의는 실로 사람 노력에 달린 것이니 스스로 자만하거나 위선에 빠지지 않고 내 몸을 자주 살피면서 거만하거나 음란함에 나아감이 없다면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글을 보기 위해 남쪽 벽에 붙이노라.’

김시습은 5세때 이미 중용 대학에 통하여 신동이라고 불렸고, 집현전 학사 최치운이 그의 재주를 보고 경탄하여 이름을 시습(時習)이라 지어 주었으며, 1455년 21세 때 수양대군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3일이나 통곡하였으며 세상을 비판하여 책을 불사르고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은 후대에 이르러 선조가 이율곡을 시켜 시습의 전기를 쓰게 하였습니다. 세조 때의 왕조실록을 편찬한 사육신의 성삼문은 조정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올곧은 직필로 사실 그대로 써 내렸기에 조선왕조실록의 근본 사료 연구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선비들이 삼순구식(三旬九食)의 가난 속에서 오로지 공맹(孔孟)의 도를 찾고자 노력했던 사례는 아직도 학인(學人)의 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학문적 업적은 가난과 고뇌 역경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화는 인간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지적 활동의 소산인 것입니다.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듯이,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문화원의 할 일이라 봅니다.

문화라는 단어는 농업, 자연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점 역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물을 잘 심어 가꾸고 그것이 성숙해서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것이 곧 문화라고 한다면 문화는 향기를 품어내는 작물을 가꾸는 일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향방이라는 주제를 제대로 다루자면 무엇보다도 미래사회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객관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넓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학술세미나도 연례행사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향토문화연구위원의 활동 지원과 국내외 문화유적 답사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지난날 걸어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사 백서를 발간하기까지 귀중한 사료 편집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 흔적은 기록으로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지훈

경기학연구센터장



경기지역 문화 창달의 산실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기도는 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도를 품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문화가 교차·융합되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대에 이르러 중앙집권이 강화되었고, 해방 이후 산업화와 함께 한층 강력해진 서울의 구심력으로 말미암아 경기도는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기능과 편의에 따른 수도권 주변부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1980년대가 되어 전국적으로 지역문화원이 늘어나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경기도 지역도 문화원의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그 위상과 역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아래 각 지방 문화원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기도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창립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즈음, 경기문화재단에 경기학연구실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지역 연구, 특히 지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경기지역에 대한 연구·고찰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열망은 시·군 지역 문화의 총화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었고, 이는 문화적 관점에서 경기도와 시·군의 변증법적인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2014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학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한 경기도 지역학연구협의회의 결성은 이러한 목표의 산물이었습니다. 협의체는 시·군의 문화적 특성과 다양한 이견들을 끄집어내 이해 가능한 대상으로 환원시킨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질적 변화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전제로서 반드시 필요했던 목표의식의 공유와 소통이 부족했고, 각 지역의 수준과 편차를 감안하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쉽게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경기학연구센터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꾸준히,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대한 지역학적 연구와 고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문화의 질적인 전환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즉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각 지역문화원의 사업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형태와 내용을 융합하는 확고한 광역단위 문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을 축하하며, 경기문화의 발전을 위한 폭넓은 행보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장



삼십 년, 강산이 세 번 바뀐 세월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의 십 년은 다른 나라의 삼십 년에 해당되는 시간이라 합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 세 배 이상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살림을 꾸리고 공동 사업, 협력 사업을 추진하느라 애써 오신 것을 이웃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예총, 민예총 경기지회 사무실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층에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예지원팀장이었던 저는 세 문화 단체와 이웃하며 가까이 지냈습니다. 겨울 이맘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실에 들르면 집에서 담근 생강차를 뜨겁게 내어주셨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생강차를 권하는 사무처장님이 더 없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왕왕 들렀지요.

문화원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모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그분의 따스한 마음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덕분에 문화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문화원의 공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원이 21세기형으로 진화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천 남구학산문화원과 연이 닿아 삼 년 동안 생활예술(마당예술)동아리 작품 발표마당을 꾸준히 지켜보게 되었는데, 문화원의 변화가 괄목할 만하였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소속 문화원들도 학산남구학산문화원 같이 생활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소극장도 갖추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인재들이 문화원으로 모여들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꾸리는 생활예술 동아리·인문학 공부모임이 문화원을 플랫폼으로 하여 지역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의 문화원이 21세기 그린(Green) 르네상스의 모태가 되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이를 받치는 곳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내딛는 한발 한발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상기하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의 대장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손영학

대구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30년이 되었다니, 축하드립니다. 30년이라는 긴 역사에 깜짝 놀라면서도 미덥습니다. 앞으로 잎과 가지가 무성한,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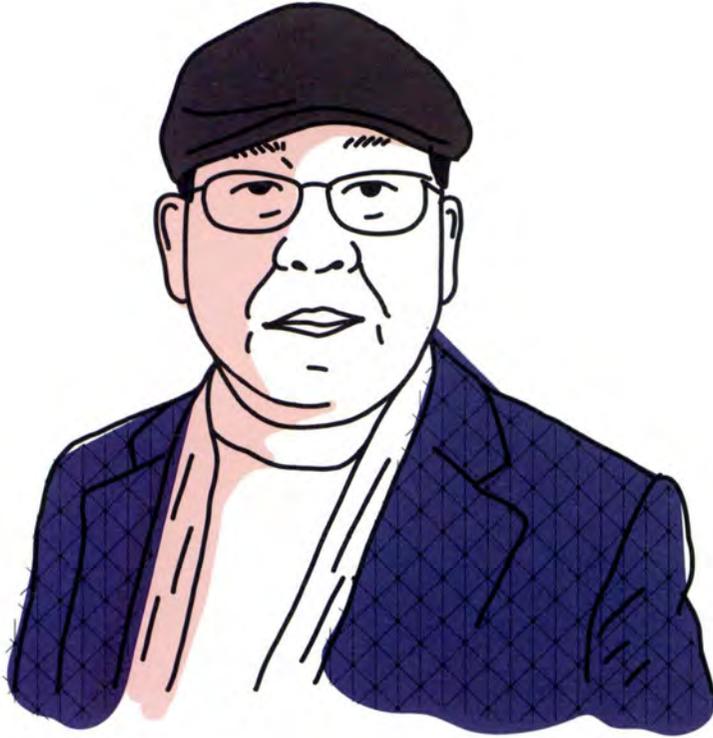
먼저 경기도문화원연합회하면 그동안 펴낸 다양한 리포트(혹은 보고서, 책자 등)가 인상 깊습니다. 그 리포트들은 지리멸렬하게 '자기복제'를 하거나 대면대면한 리포트가 아닌, 매우 촘촘하게 '객관'이란 프리즘을 통해 투영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난 뒤, 일회성에 그치는 보고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보고서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들춰내고 반추하며,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열린 시각을 지향하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아젠다와 담론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것도요. 또한 경기도 문화원들이 처한 현실(처우, 이미지 개선, 당면 과제 등)을 날것으로 보여주며 전국의 모든 문화원들이 함께 '변화'와 '발전'이라는 바퀴를 달고 굴러가도록 복돋아주고 있었습니다. 감히 모든 문화원들이 정독해야 한다고 강하게 설파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은 31개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곳이지만, 시 문화원과 군 문화원이 공존하고 있어 전국 문화원이 가진 요소들을 집약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창(窓)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만의 특성을 잘 살린 사업으로 성숙하게 융합시키고 발효시켜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해 10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지속발전가능한 문화원 만들기 액션플랜'을 접했을 때, 지고함을 담아 뿌리는 씨앗이 언젠가는 크게 개화하고 문화원의 토양을 비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굳게 다가왔습니다. 팽팽한 의욕과 충만한 열정이 동력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언제 어디서든 응원합니다.

임상철

前 안성문화원 사무국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창립 30주년, 우리 모두의 생일을 맞이한 것처럼 마음이 뿌듯합니다. 창립 30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랑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어느덧 입지(立志)의 나이인 서른 살! 독립하기 딱 좋은 나이가 됐네요. 20대의 열정은 세상을 너무 모르고, 40대의 노련함은 세상을 너무 알아버리고, 서른이라는 지금의 연합회는 적당히 세상도 알고 열정도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제2의 도약과 함께 경기도 31개 지방문화원의 중심축이 되어 현재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10년 후 우리 지방문화원 모두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2017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새로운 향토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세계 깊은 인상을 남겨준 사업이었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액션플랜’의 4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경기향토문화대학에 직접 참여한 세계도 뜻깊은 일이었지만, 함께 참여한 분들의 반응은 더욱더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소통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지방문화원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에서 지방문화원과 연관된 문구를 찾아보면 어르신문화, 실버문화, 옛 정취의 문화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문화원 발전에 테두리를 짓고 가두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문화원만이 가지고 있으며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17 페스티벌31을 통해 추진한 아젠다31 목적과 같이, bottom-up method(상승방식)을 도입하여 향토사 전달 방식이나 각종 문화사업도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고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 활동이 잘되는 지역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뜨거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님과 처장님 이하 뜨거운 직원 분들을 만나보시면 문화원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 보일 겁니다. 그 뜨거운 열정에 문화 가족 모두 함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현재 위기의 지방문화원도 많습니다. 각 문화원마다 사정이 있으니 연합회는 이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좋은 말만 들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10년 후 멋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리고 31개 지방문화원의 화려한 변신도 기대하면서 창립 30주년 축하와 함께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고영직

문학평론가

어르신기획자교류지원사업 자문 및

워크숍 강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주요 문화기반시설로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은 자율·분권·협치를 강조하고, '사람이 있는 문화'를 추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율·분권·협치는 저절로 형성되고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에서 각 지방문화원이 수평적인 협력의 경험들을 쌓아가며 저마다의 '사례'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과 함께 손을 잡고 사회적 정착제로서의 제 기능을 십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상투성에 '저항'하며 언제나 항상 상상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콘셉터(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2016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중 기획자교류지원사업 워크숍에 2년간 특강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십 수 년 동안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현장에서 진행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여전히 상투성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문제'로 보려는 관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오롯한 '존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첫해 워크숍에는 그런 관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프로그램 구성을 바꾸어야 할까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북한산 자락에서 진행된 2016년 기획자교류지원사업 워크숍에서 노인 관련 스무 편의 시(詩)를 같이 읽고 서로 대화하며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하며 작은 변화의 징후들을 포착하려는 모습이 꼭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방문화원 직원은 연습실 열쇠를 관리하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십 수 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저절로 세상이 변하지 않듯이, 지방문화원의 변화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같은 레퍼토리로 동어반복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그런 자기부정의 정신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지방문화원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항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이 먼저 지역 사회 주민들을 비롯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들에게 협력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력은 '평균 3.0명'이고, 한 해 동안 1개 지방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숫자는 '평균 38.9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문화원이 추진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이슈들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 및 문화예술인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마을큐레이터 사업을 비롯해 생활문화 이어보기 프로젝트 같은 사업들의 안정적인 정착률이 필요합니다. '행동 먼저, 생각 나중'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상 진

퓨전재즈밴드 루나힐 베이시스트
페스티벌31 음악감독



페스티벌31의 음악감독으로 경기도 여러 지역의 생활예술 동아리와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회원들은 아마추어이기에 진행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과정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뛰어넘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내년이 또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각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문화원을 통해 다양한 취미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원들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주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지나온 시간이 30년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노력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감사드리며,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예술감독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사무국장 및
직원 연수 강의



2년 전, 원주에서 있었던 워크숍의 진지함이 생각납니다. 지역문화의 단순한 파수꾼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정책과 비전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습에서 감명을 받았는데, 그 토론이 술자리까지 이어지며 각종 현안과 대안을 공유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연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도 지역문화의 원형질을 끝까지 발굴하고 전승하려 노력하며 고도화된 문화원을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30주년을 축하드리고 더욱 발전하는 연합회를 기원합니다.

문화의 흐름이 너무나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유행을 타고 또 새로운 유행이 태어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법고창신의 중심으로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가 우뚝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화원의 세대 간 간극을 없애야 합니다. 젊은이와 어린이들이 마음껏 지나들며, 오래된 미래를 열어가는 문화의 공간으로서 문화원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존재했으면 합니다.

박정애

시흥문화원 '잉벌로밴드' 총무
나이없는날31 참여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아주 잘해주고 계셔서 경기도민으로서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연합회 회장님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초대해주셔서 잉벌로밴드 회원들과 함께 강원도로 견학을 갔습니다. 그때도 너무 잘해주시고 많은 경험도 쌓게 해주셨어요. 함께 간 회원들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밴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비도 지원해주시는 등 여러 가지 신경써주셔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즐거운 추억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는 봄, 가을마다 함께 어울리면서 회원들에게 질문도 받고 의견을 구하는 등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곳곳에 숨은 인재들이 많으니까요.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좋은 인재를 발굴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밴드의 총무로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공연 기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세
현

사진가

페스티벌31 사진 촬영



저는 3년 정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페스티벌31을 촬영해 온 사진가입니다. 페스티벌31은 여느 행사들과는 다르게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만나 수준 있는 공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서로 맞추어지지 않던 음이 시간이 지나며 완벽한 음악이 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매해 잘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모든 동아리 무대의 반주와 사운드를 꼼꼼히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뮤지션 분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하는 무대였습니다. 매해 진행되는 수많은 공연들을 구경하듯 촬영하는 동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보지 못했던 경기도의 31개 지역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게 감동을 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30주년이 되었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경기도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진행해주신 많은 연구와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있었기에 많은 도민이 더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 시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되어주세요! 축하합니다!

장세영

문화기획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前 직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벌써 서른 살이 됐군요. 축하합니다. 저는 4년을 직원으로, 3년을 외부 기획자로 함께해서인지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를 포함하여 직원들, 외부 전문가들, 무엇보다 경기도 지방문화원 임직원들이 함께 했기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서른 살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존 사업은 더 탄탄하게 다져가고, 새로운 콘텐츠 기획에 도전하며, 경기도 문화원의 중심이 되길 응원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려보자니, 참 많은 일이 생각나서 딱 하나만 꼽을 수가 없을 정도네요. 지방 문화원 행사장에 업무 차 갔을 때, 경기도문화원 행사에서 저를 봤다고 아는 척 하시며 주말에도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주시던 회원들, 시낭송 공연 때 출연 바로 전에 사라져서 스텝을 울기 직전까지 만든 모 회원님, 노래 동아리에 두 곡이 배정되었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두 곡을 하든, 세 곡을 하든 내 맘이야!” 라고 하시며 무려 네 곡을 부르신 보컬 어르신(여전히 정정하세요), 민속예술제 때 한 어르신이 본부석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려 하셔서 편한 의자가 있는 내빈석을 안내해드렸더니 본부석에 왜 못 앉게 하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치시던 어르신(과연 누구셨을지...), 민속예술제 때 영상 촬영이 필요하여 드론을 날렸더니 누가 남의 행사장에서 장난감 날린다고 알려주시던 회원님, 자기가 기다리던 인물 관련 책이 발간되었다며 스테디를 하겠다고 여러 권 받아가도 되냐고 하시던 회원님들, 나이없는날31 공연 이벤트에서 홍주를 상품으로 받았다고 아이처럼 신나하시던 어르신, 페스티벌31 북트리에 원하는 책이 꽂혀있다고 북트리를 해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져가신 회원님들, 축제 때 발간물 배포하는 코너에서 전에 가져간 책과 아닌 책을 기억하시며 발간물을 챙겨 가시는 회원님들…….

매년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어주는 회원님들 덕에 재미있기도, 가끔은 황당하기도,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에피소드가 생길까 기대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니 동시에 미래도 생각하게 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몇 년 전부터 문화원형 발굴 사업보다 지방문화원에서 발굴한 문화원형 및 다양한 인적 문화자원, 또는 제작한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기획·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원 임직원, 기획자(강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다양한 플랫폼 형태로 기획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축제의 형태로 페스티벌31을, 전시의 형태로 미래유물전을,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온라인 문화원 만들기를, 미디어 플랫폼으로는 원천 콘텐츠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큐레이션의 가치와 사업의 의미를 주로 지방문화원을 통해 알리는데, 직원이나 회원들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새로운 큐레이션과 플랫폼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를 임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임재춘

생활적정랩 빼꼼 공동대표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직원 연수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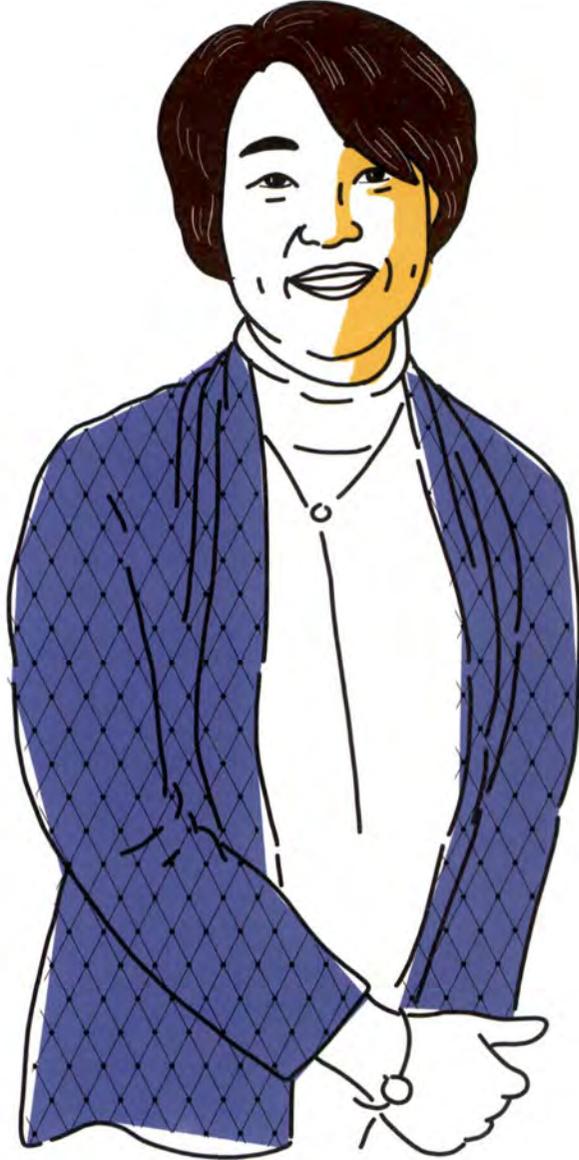
대한민국 지역문화의 역사에서 문화원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지요. 지리적으로도 넓고 도시와 대지와 바다, 산의 다양한 지리적 지형에 따라 삶의 형태도 다른 경기도의 크고 작은 지역의 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큰 화두이고 과제인데, 지역의 문화원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늘 경기도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만큼 애쓴 분들과, 그분들이 시대마다 했던 많은 노력과 노고를 생각하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5~6년 사이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이전의 시기와 비교하여 새로운 도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가치의 변화와 문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갈망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원이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하는 것이 좋은지 진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가장 크게 꼽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저는 2017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의왕문화원이 함께 준비한 마을 큐레이터 양성과정의 일부를 맡아 주민들과 지역을 읽는 문화적인 시선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주민들을 이 과정을 통해 만날 수 있었고, 문화원에 대해 바라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이전에 문화원에서 접하지 못했던 태도라는 점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시도들이 당장 눈에 띄는 변화들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문화의 현실이지만, 삶의 가치를 다시 해석하고 문화적 실천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소 지치더라도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경기도는 지역마다 문화적 환경이나 조건의 편차가 매우 큼니다. 그래도 어느 지역이나 있는 것이 문화원이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지역에서 문화원의 역할이나 의미, 가능성을 가장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이들 중 하나입니다. 구시대의 모습을 관성처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 등 문화원을 향한 불편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이미 해오고 있지만 동시대의 삶, 동시대의 예술이나 문화가 투영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더 다각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기존의 이해관계나 입장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기회를 마련한다거나 다소 낯선 일들에의 도전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 대표

지혜로운봄 대표
마을큐레이터 컨설턴트
미래유물전 기획자



방금, 마을큐레이터 되기 사업 평가를 마쳤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짧은 기간 급하다 싶을 만큼 달린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어야겠다는 상(象) 없이 가보자 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맘속에는 ‘적어도…….’ 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욕심내지 말기를 거듭 상기하고, 강사 선생님들과 완급을 조절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평가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회의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까지도 마을큐레이터 되기 사업에 동참해주신 의왕과 하남 지역주민들의 강한 열의는 무엇 때문일까? 의 물음에 딱 부러진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문화원의 역할에 새로운 전환기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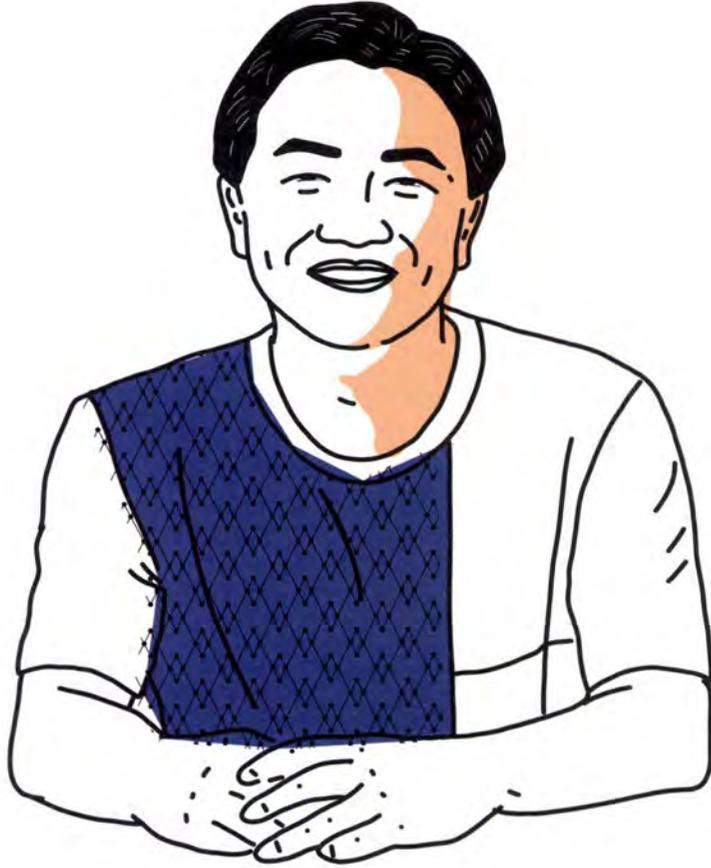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30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30년 정도 되는 기간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인 셈입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책임 있는 긴 안목으로 무엇인가 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시기일 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도 함께 손발을 맞춰보는 시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첫 발은 지나온 일에 대한 성찰과,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한 숙고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있기까지의 힘을 주민에게서 얻은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힘도 새롭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면서 그림자 넉넉히 드리우는 마을 어귀 정자나무처럼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富田 祐介
유스케 도미타

시마토웍스 대표
해외연수 일본 기획자



京畿道文化院連合会様

この度は、創立30周年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大きな節目をむかえたみなさまの功績を思い、これまでの素晴らしい取り組みに改めて感服いたします。空に向かって高く真っすぐに伸びる竹は、節があるからこそ風が吹いても折れることもなく、しなやかで美しい姿に成長するそうです。30周年という大切な節目をこえて、これからさらなるご発展をお祈りするとともに、淡路島よりお祝いの言葉をお贈りできることを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

みなさまはこの2年にわたり、何度も淡路島にお越し下さり、また私たちもみなさまのところへ行かせて頂きました。その中で互いに実施している多くの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伝えあい、その今と未来について心から語りあいました。そこには国は違っても多くの共通の課題があり、その課題に誠実に創造性をもって向き合う素晴らしい人々がたくさんいることを知りました。それは新しい場所で新しい仲間と出会えたような、そんな喜びに満ちた時間でした。国、地域、組織を超えて、人としてたくさんの交流をさせて頂いたように感じています。

私たちはことあるごとに、みなさまと過ごした時のことを話します。日本の中の小さな島である淡路島と、大きな海を越えてみなさまとつながれていることは、私たちの視野を広げ、多くの学びとともに、よりいっそう大きな未来をみ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出会いがすべてです。この出会いの積み重ねを互いに続け、次は仲間として一緒に大きな未来の絵を描いていけることを心から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

ハタラボ島協同組合 富田祐介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지금까지의 훌륭한 활동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 나가는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유연하고 아름답게 성장해갑니다. 30주년이라는 소중한 매듭을 넘어 앞으로의 발전을 지원함과 함께, 아와지시마로부터 축하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여러분과 함께 약 2년에 걸쳐 몇 번이고 교류를 쌓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공유하였고, 현재와 미래를 구상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다르지만 공통의 과제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당면한 과제에 성실하게, 또 창조적으로 대면하는 훌륭한 분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지역·조직을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교류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도 작은 섬인 이 아와지시마와 바다를 넘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시야를 넓히고 많은 학습을 하는 동시에 한층 더 큰 미래를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남이 모든 것'입니다.

상호 간 만남을 계속 축적하여, 친구로서 함께 커다란 미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날을 마음 깊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마
구
치
구
니
코
山
田
国
子

비영리특수활동법인 아와지시마 아트센터
해외연수 일본 기획자



京畿道文化院連合会様 祝辞

京畿道文化連合会様の創立30周年を心からお祝い申し上げます。これまで、30年の長きにわたり地域に根ざした活動による、文化の浸透・発展にとりくんでこられた皆様に深く敬意を表します。

みなさまと交流をさせていただけるようになって2年、これまで淡路島に何度もお越しいただき、また、わたしたちが、京畿道を訪問させていただいた際には、活動拠点や様々なプロジェクトをご紹介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みなさまの地域に対する想いや、次世代を担う若者や子供たちに対する想い、歴史を敬う心などからの探求や挑戦は、わたしたちにとって興味深く参考にさせて頂きたい事例ばかりでした。

地域創造プロジェクトに地域の文化院リーダーが携わる文化基盤があることや、ユーモアに溢れた酒文化作法の伝承などの文化継承意識の高さに大変敬服いたしました。「本当の」豊かで幸せな生活を営むために文化を活用し切磋琢磨しておられることに共感し、学びにつけることの大切さを感じました。

日本でも近年「あるものを壊し、ないものを創る」という考え方から「あるものを活かし、ないものを創る」という生活文化度の醸成に力点が置かれてきています。日常にあるものに目を向けて、身近な価値に気付く感度を高めていくには、時には俯瞰できる環境が大切です。これからも、お互いの地域や人の特性を活かしながら、相互の視点を持って、創造性を磨き、有益のあるプログラムと一緒に創り上げていけるようにと願っております。

結びに、京畿道文化院連合会様のますますの充実・発展と皆さん方のご健勝、ご活躍を祈念いたしまして、お祝いの言葉といたします。

特定非営利活動法人淡路島アートセンター 山田国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3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해 온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교류하게 된 최근 2년 동안 몇 번이고 아와지시마에 방문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경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각 지역의 활동 거점이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지역을 연구하고 도전하는 모든 사업들이 저희에게도 대단히 흥미로웠고, 참고하고 배울 수 있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역을 창조하는 각 프로젝트에 지역문화원이라는 문화기반시설이 있다는 사실과, 위트 넘치는 술 문화 전승 프로젝트 '내 생애 첫 번째 술잔'을 보면서 수준 높은 문화전승 의식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문화를 활용하여 질차탁마하고 계신 것에 깊이 공감했고,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의 귀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있는 것을 없애고, 없는 것을 창조하다'라는 관점에서 '있는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창조하다'라는 생활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상에 관심을 두고 가까이 있는 것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때로 조감할 수 있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이나 주민의 특성을 살려나가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역량을 살리는 유익한 프로젝트를 함께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하길 바라며, 또 모든 관계자 분들의 건승과 활약을 기대하며 축하의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태현

문화기획자

나이없는날31 사회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원이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향토문화보존 사업과 문화재를 활용한 축제 기획, 어르신 예술교육 등은 정말 소중한 일들입니다. 위의 사업들이 고장이 가진 역사와 저력을 문화자원으로 만들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각 지역의 문화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좋은 기획과 정책으로 꾸준히 잘 보좌해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공간 안에서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질 높은 콘텐츠로 만나고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사업 많이 부탁드립니다.

문화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르신문화인데요, 저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젊음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젊은 것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마인드와 감각도 젊은 느낌인 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해마다 찾아가서 진행을 맡고 있는 ‘페스티벌31’만 하더라도 그냥 순서지어서 발표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해당년도에 걸맞은 테마를 선정하고 그 테마에 맞게 문화원의 어르신 예술역량들을 무척 세련되게 배치하여 진행한다는 점이 참 멋집니다. 게다가 작은 재미도 놓치지 않겠다고 움직이는 선물 이벤트까지 기획하는 모습을 보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기획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터 문화원 사업을 바라보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도 내 각 지역의 역사자원을 현대에 맞게 스토리텔링하여 대중적 공감대를 자아낼 만한 콘텐츠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은 전통문화 보존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해마다 다양한 전통양식을 재현하고 또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가 소실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고 또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자칫 해마다 똑같은 볼거리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현과 보존을 기본으로 두되, 해당 전통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야기를 입혀서 뮤지컬이나 연희극 형태로 창작하는 작업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가장 친근하고 흥미롭게 전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새로운 기획 사업으로 각 기초단체 문화원들이 대표 문화콘텐츠를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더욱 도민들 곁으로 스며들어가는 문화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김헌경

풀짚공예박물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강사
실버아트홀31 전시 참여자



저는 페스티벌31 전시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 풀짚공예를 가르쳐드리고, 어르신들의 작품 전시를 도와드렸지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찰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할아버님은 귀가 안 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몽클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품이 예쁘게 만들어지진 않더라도, 오셔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지요. 또,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커피를 대접해주신 할아버님도 계셨습니다. 그날 다함께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티타임을 보냈지요. 새끼 꼬는 작업도 좋아하시고, 작품을 만들 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풀짚공예 수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수업 시간이 짧다고 아쉬워하실 정도예요. 딸뻘인 저를 깎듯하게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저도 좋은 기억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너무 적은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작품 만드는 것을 우연히 보시고는 직접 찾아오셔서 “저도 배우면 안 돼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통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요. 배우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은 많은데, 가르치는 사람이 적다보니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풀짚공예를 배워서 많은 어르신들께 강의도 진행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진행하여 젊은 강사를 많이 육성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고,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여 몰랐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어르신문화사업 컨설턴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7년 ‘어르신문화사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 10년간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제가 컨설팅을 해주기보다 오히려 제게 공부가 된 경험이었습니다. 전국의 문화원을 만나고 많은 사무국장님과 사업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올드한 이미지였던 문화원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역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깊었으며 자부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동두천문화원, 평택문화원, 남양주문화원 등등 지방 문화원에서의 경험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의집협회, 그리고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통해 문화원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며 현재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 파트너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몇 해 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했을 때, 저를 쳐다보며 집중해주었던 문화원 식구들의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역문화의 뿌리를 튼실하게 하는 문화원. 최근의 여러 사회 현상과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만들어 한 시절 유행으로 사라져버리는 스낵컬처가 아닌, 지역민의 삶에 근거한 뿌리 깊은 문화의 향기가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문화원의 진가는 바로 지역에 근거한 뿌리 깊은 문화를 이야기하는 데서 나온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명으로 쓰고 있는 ‘바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창조를 의미합니다.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무(無)에서의 창조.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법고창신(法古創新)이 더욱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기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과 더불어 옛것의 의미를 새롭게 현대화하는 문화 창조, 그 중심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자리 매김 하시길 바랍니다. 30년간 지역의 문화와 삶의 발자취를 만들어 오신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30년 뒤에도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지역 문화의 리더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송재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팀장



약 3년 전,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경기도 메모리' 사업에 도내 문화원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처음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실 그간 문화원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지역 향토 문화를 연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강좌를 하는 곳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직원분들과 만나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이천문화원이 함께 주관한 '미래유물전'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자료를 단지 수집하고 보여주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삶 이야기를 덧붙이고 미래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고민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 전시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익숙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들 삶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였고, 지역문화원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내 문화원들이 지역 공동체 문화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제가 속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역시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은 아무리 내부의 직원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소속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군마다 각기 당면한 과제들로 바쁘겠지만,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함께한다면 결국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도 옆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기도의 고유한 지역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들이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도내 지역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50년, 100년 나날이 발전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류설아

문화활동가
애뉴얼리포트 협업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립(而立)’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립이라는 서른 살의 또 다른 명칭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현재 상황과 꼭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 지난 30년 동안 전국 각 지역 사람의 삶 속에서 함께 성장하며 위치와 역할을 다져왔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문화 시대를 맞아 능동적으로 문화원의 현재를 반성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으니 10년 후 4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이 흐려지는 일 없이 우뚝 서 있는 ‘불혹’을 기대해 합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문화원 사업 현장에서 마주한 사람들 덕입니다. 저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도 내 시·군 문화원이 진행하는 다채로운 문화정책사업과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현장을 셀 수 없이 뛰어다니며 정말 많은 문화원 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문화원 소속 임직원이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지역의 문화 발전을 토대로 한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을 대하는 그들에게서는 항상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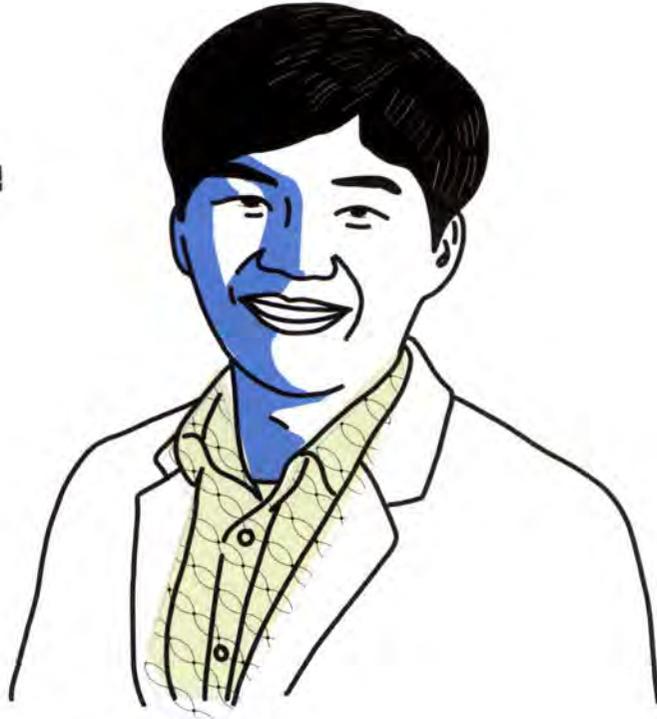
문화원에서 만난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주민입니다. 문화원에서 만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며 반짝이는 삶을 그려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서는 항상 긍정과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전통문화만을 보존한다는 기존의 문화원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것 역시 그들이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부, 2030 청년, 은퇴 후 첫발을 디딘 장년층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때로는 스스로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자처하며 문화원의 존재 가치를 각인시켰죠.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하면 항상 그만큼의 미래를 그려보게 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천차만별 기반 위에 지리적으로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시·군 문화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10년 후를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끌어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지금 그러하듯이, 10년 후에도 치열하게 고민하며 문화원의 새로운 존재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겠죠. 그 시간에 미약하나마 저도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서른 잔치를 축하합니다. 서른, 잔치는 이제 시작일 테죠!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2016미래유물전 in 평택 협력



시간이 쌓여간다는 것은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30년이라는 시간을 쌓았고 이는 경기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30년 역사를 쌓아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그 30년을 축하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저에게 다양한 자극을 줍니다.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과 제주도, 일본 등으로 떠났던 직원 해외 연수는 저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아와지섬으로 간 연수는 굉장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만난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그들의 프로젝트는 저에게 많은 영감과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그들과의 소통은 번역기를 통해서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낮과 밤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문화적 자극을 받아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잘합니다. 앞서 나갑니다. 눈에 띄고 본보기가 됩니다.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 해야 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경기 바우처사업 협업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자체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경기문화재단과의 연계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셨습니다. 다년간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문화나눔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경기도 내 문화기획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 아와지시마의 현장기획자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해주신 것입니다. 재단 관계자, 문화원 실무자,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등이 아와지시마 NPO에서 활동하는 기획자와의 만남을 통해, 문화적 시야 확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획자분들께 자극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문화원 간의 허브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문화원의 역할 확장에 일조를 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경기도의 문화 진흥 및 확산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늘 그래왔듯 경기도의 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원 및 지역 현장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는 프로젝트로 감동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파이팅!

서교송

문화기획 단비 대표
前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연합회와 함께 한 ‘페스티벌31’은 지역에서 진행해 온 문화 활동의 깊이와 한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문화원의 예산 형편은 넉넉지 못하고,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지역의 문화 중심으로서의 소명과 봉사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때문에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분명히 있고 예산의 벽이라는 현실이 분명히 있지만,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으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 연합회의 ‘페스티벌31’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새롭고 놀라운 결과물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해 보일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것 역시도 주력 사업에 대한 집중과 시민들에게 돌려줄 결과물에 대한 담보라는 면에서 전향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나름의 수형과 열매를 키우는 서른하나의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경기문화의 큰 숲을 일구는 중심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 각 지방문화원들이 빚어내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교류와 협업을 통해 경기 문화예술로 조화롭게 융합하고, 새로운 트렌드와 콘텐츠 연구 및 제안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연합회의 모습에서 지역문화의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 문화의 중심체이면서, 31개 지방문화원의 합이기도 합니다. 합치기도 어렵고 나누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31개 지방문화원들이 각각의 독특한 모습을 가지면서도, 31개 지역의 문화 중심체로서 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연합회가 꾸리는 경기문화의 모습도 보다 울창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빼어난 나무를 키우는 것도 의미 있지만, 함께 성장하는 숲을 가꾸는 것이 더 소중한다고 봅니다. 31개 지역의 문화원이 모두 경기도 지역문화의 중심으로서 인정받고, 지역문화 창달의 동등한 역할을 부여받을 때, 지역문화의 숲이 보다 견고해지고 튼실한 열매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시군별로 균등한 기본 운영비와 기본 사업(비) 지원, 공동 운영 규정 적용 등이 이뤄져야 안정적 기반 위에서 지역문화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공공의 문화 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행정과 공공예산의 지원이 당연합니다.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문화원이 지켜온 지역문화 창달의 막중한 소명을 지원하는 든든한 중심체로써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끝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 지역문화의 중심,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손영철

부천문화원 청소년 민속예술제팀

2016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부천중리풍물놀이팀입니다. 제11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영광스럽게 대상을 받고 경기도 대표로 제2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해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천에서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처음으로 출전한 매우 소중한 뜻깊었던 행사였습니다.

저희 팀이 청소년 참가팀 중 가장 어린 팀(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학생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고등학생을 경쟁 상대로 받아들이며 경연 열기 또한 대단했습니다. 경연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관심을 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좋아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청소년들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이렇듯, 각 지역의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민속예술제를 포함,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해 한결같이 애쓰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통문화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닌 조상의 열과 현재의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이 잘 되어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민속예술제를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이 아닌 시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이 스스로 알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참가자들만의 행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연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이 있어야 신명이 나고 즐겁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인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입니다. 참가팀의 퍼레이드 행진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천에는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가 한두 곳 정도로 매우 열악합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의 훌륭한 보존과 전승을 기대하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story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

이야기



경기도

지역문화예술의 중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상상력을
길러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초예술 육성과 지역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생활문화를
진흥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지방문화원과 함께
지역문화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복지 확대를 위해 1985년 설립해
2016년, 30년을 맞았다.



1018년 고려 현종 9년에 수도를 중심으로 500리 이내의 땅을 '경기(京畿)'라고 이름 붙였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하면 2018년이면 경기도가 생긴 지 1,000년이 된다. 천 년 경기는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 366건, 유·무형문화재와 기념물 등 도지정 686건 등 모두 1,05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남한산성, 조선왕릉이 있고,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DMZ 지역도 있다.

경기도는 2017년 기준 1만 172.4제곱킬로미터 면적에 28시 3군이 있고, 총 1,285만 8,161명이 살고 있다. 31개 시와 군에는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다. 개별 문화원이 각 지역의 고유한 향토문화를 발굴, 전승, 발전시킨다면, 31개 문화원을 아우르고 개별 문화원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출범했다. 천 년 경기의 문화유산과 예술을 진흥하고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85년 1월 1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전신인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가 창립되었다. 1991년 7월 10일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2013년 2월 26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30년이 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국내의 지방문화원은 1947년 인천광역시 내의 강화문화원을 필두로 1950년대에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오늘날 전국 차원의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수행하며 발전해왔다.

1960년대에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라는 과제가 중요하였다. 1970년대에는 문화예술지원, 1980년대에는 문화진흥, 1990년대에는 문화복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설정, 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절도 있었지만, 굴곡진 풍파가 오랜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를 지우지는 못했다. 전후 '잘살아보자'는 구호를 외치며 경제적인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화의 보존과 전승, 향유라는 삶의 질에 관한 화두도 놓치지 않았다. 발족 이래, 30년 동안 시대의 흐름에 맞춰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기도민의 생활문화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행보는 그만큼



85년 발족 이래, 30년 동안 시대의 흐름에 맞춰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기도민의 생활문화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명백하고 뚜렷했다.

지난 세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이룬 성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가 천 년 세월 동안 수많은 유산과 전통문화를 축적해온 보고답게, 경기도의 문화원도 전통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보존해왔다.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료는 160만 점이 넘고, 매년 출간하는 도서 자료만도 1,000권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이 가운데 경기도 지역의 문화원이 점유하는 유산의 양은 결코 적지 않으며, 전통문화를 오늘날 다양한 매체와 접목시켜 활용한 콘텐츠의 양도 단연 돋보인다.

둘째, 지역은 물론 전국을 아우르는 문화원 네트워크 구축이 탄탄하다. 전국의 229개 문화원들과 끈끈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역에 있는 31개 문화원들과도 다양한 사업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오랫동안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각자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단위 문화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서로 교환하는 등 공동 사업이나 사업 지원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셋째, 지역 내 문화원의 조직이 체계적이고 동아리, 회원 등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 개별 문화원의

운영조직은 총회, 이사회, 사무국, 운영위원회, 향토사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많은 회원과 동아리가 있다. 문화원이 부설로 운영하는 동아리는 약 600여 개에 이르며 동아리별 회원은 평균 34명으로 적지 않은 회원 수를 자랑한다. 또한, 2005년 이후 다문화사업 및 실버사업을 통해 주민 아티스트를 배출하였다. 현재 문화원이 배출한 주민 아티스트는 약 2만 5,000여 명에 이른다.

넷째, 31개 문화원과 협업 또는 경기도 차원의 사업을 기획하고 확산하는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각 문화원은 1년 365일 문화예술 교육, 축제 및 행사, 공연, 연구와 발간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중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아이들, 어르신, 주한미군, 다문화가정 등 특정 세대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또한 문화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강사 교육양성소의 역할을 맡아 주변 문화단체의 교육 지원 혹은 위탁 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2011년부터 사업의 영역을 카테고리화하여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방향을 재설정,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연합회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경기도문화원 생활문화 동아리 네트워크 축제 <페스티벌31>

대한 고민을 지방문화원 차원으로 끌어내렸다.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을 택하고 사업 구조를 혁신하였다. 각 단위사업 차원에 머물던 사업에 매트릭스 시스템을 적용, 각 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하나로 연결되고 상호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문화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31개 지방문화원과 함께 경기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 대외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까지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기쁨나기 위한 혁신의 지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비전은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사회를 삶의 에너지로 약동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되 그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유의미하도록 새로운 기획과 신선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개별 문화원 활동을 넘어 경기도라는 큰 그림에서의 활동을 고민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한
31개 시·군 문화원 원장단 회의 개최

시대로 나아가는 변곡점에 서 있다. 경기도 각 문화원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동시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경기도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된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31개 문화원은 물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중요한 화두로 여기는 것은 ① 향토 문화·역사 자원의 창달 및 계승, ② 지역 단위 문화 활동의 거점 역할, ③ 지역문화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 거점 기능, ④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⑤ 문화예술의 거점 기능이다. 2011년 경기도 전체 문화원의 실태조사가 있었다. 이때 도출된 결과는 각 문화원의 발전방향과 직결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미래 비전과도 연결되어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높았으나 지역문화 콘텐츠의 브랜드 강화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브랜드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보니 홍보 전략,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통한 홍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부족한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역문화 창조를 위해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의 적절한 역할이 대두된다. 경기 문화의 미래 비전을 현실화하려면 특히 다양한



"이제는 지역문화원이 인문학적 가치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슬로건으로 지역문화 콘텐츠의 브랜드 강화를 꾀하는 '경기도시낭송의밤 <시가예찬(詩歌禮讚)>'

세대를 위한 젊은 문화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방문화원의 관계자 대다수는 지방문화원의 핵심 역할과 기능이 '향토 문화·역사 자원의 창달과 계승'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문화원이 보다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현대사회의 흐름과 요구에 적극 부응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다양하고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실태 및 요구조사 연구를 통해 모색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진을 비롯한 임원진의 노령화를 완화하기 위해 향후 문화원 이사진의 구성원에 청년 계층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험과 연륜이 깊은 이사진과, 신선한 관점과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젊은 인력의 소통과 조화를 통해 문화원은 문화공동체를 구현하려는 본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문화원 이용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르신과 주부 계층 이외에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새로운 계층을 유인할 수 있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 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이미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훌륭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문화원들 사이에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기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세대를 유인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교류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소통의 부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문화원이 세대의 다리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자명하며 실버약단, 민담 들려주기 등 세대를 이어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통문화 콘텐츠에 현대적인 해석을 입혀 확대 재생산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전통문화의 보급과 전승 대상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전통문화 콘텐츠의 현대적인 재생산과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 작업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 지역에 잠들어 있는 풍부한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하여 다양한 대상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화원의 직원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문화기획 및 행정 전공자, 또는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들이 문화원의 새로운 인력으로 충원되어 전문성을 더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문화원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시행해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경기도문화원 직원 및 사무국장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들이 현대화된 독립원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독립원사 마련은 부족한 공간을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지방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할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의 결집된 요구와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 같은 여섯 가지의 구체적 방안을 세밀히 다듬고 현실화해 보다 젊은 문화원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원과 통합을 위한 명확한 미래 그림

31개 문화원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연구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개별 문화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 파악, 문제점 진단, 기존의 정책 보완, 새로운 정책 수립이 요구되던 2015년 『경기도문화원총람』을 발간했다. 2009년 이후 6년간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변화와 발전을 정리,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총람 발간을 기획하고 총람을 제작하는 과정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비롯한 31개 지방문화원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원직원역량강화 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었고, 문화원장 중심의 '경기도문화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중기, 장기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나아갈 길이 선명해졌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중장기 목표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연합회 차원에서 각 문화원의 자립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세계,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자생력, 자율성, 특성화가 요구된다. 문화원의 자생력 강화는 재정적인 독립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규모의 수익사업과 자체 기금확보 등이 가능하도록 연합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율성을 강화하려면 조직을 운영하는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우선이다. 연합회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장을 위해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실현가능한 대책을 도출하고 이를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수성을 확보하려면 개별 문화원만의 고유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 논의

사업, 강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연합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의 지방문화원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향토 사료, 지역문화 자료, 인적 네트워크 등 다른 유사기관보다 많은 자료, 자원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문화원을 구심점으로 각 해당 지역의 지역학을 연구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대학과 협업구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개발해야 한다.

둘째, 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많아지도록 목표를 설정한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으나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가진 특성을 살리는 방향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안으로는 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의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직원의 전문적인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합회의 안정적 재정확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네트워크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연합회는 지방문화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방문화원은 그 지역에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문화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네트워크와 소통이 있어야

다양한 문화사업과 사회교육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고 수요자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바로 정기적인 만남이다. 특히 유관기관들이 일정한 주제 하에 포럼, 세미나, 연수, 간담회 등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보, 노하우, 프로그램, 사업, 운영사례,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충분히 공유하고 중장기 계획을 도출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등 소통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또 각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향토 사료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연합회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전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사업은 많은 사업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업 요소로 볼 수 있는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네트워크 구축 및 네트워크 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31개 지방문화원을 견인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 대상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세계화의 시류에 힘입어 최근 경기도에는 많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한국 주재 외국인인 지속적으로 증가할



2010년 경기문화재단과 공동 주최한 '경기문화 상징 토론회'

것이다. 지역문화의 진수를 체험, 전수하기 위해 지방문화원은 그 역할을 재인식하고 재정립해야 한다. 연합회 차원에서 세계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힘써야 한다. 지역 고유문화 개발·보급·전승 및 선양은 연합회의 임무이다. 사업의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장하여 다문화가정과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다 잘 이해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역 거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사회교육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현재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핵심적인 활동은 '축제 및 행사'와 '문화·예술 교육' 두 축이다. 해당 활동은 주로 어린이와 어르신, 주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교육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군인, 직장인, 아버지, 학부모,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주한미군 등 교육 대상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상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새터민, 교도소 재소자, 병원 및 요양시설의 환자, 보육원과 양로원 구성원 등 교육 대상의 저변을 확대하여 많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망한 주제나 사업 아이템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다. 과거 세계적으로 동북아의 위상이 꾸준히 주목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한류의 흐름을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브랜드화가 가능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인데, 한류를 지속할 수 있는 뒷심과 저력은 바로 한국의 전통문화 콘텐츠라고 본다. 경기도에는 지역 특색에 따른 풍부한 전통문화가 잠재되어 있다. 지방문화원과 정부, 지자체, 그리고 연합회의 협력 하에 이러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국제화·세계화시켜야 한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한류의 지속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넘어 세계의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진행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변화 시도

1985년 공식적으로 출범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역문화원의 현안을
대변하게 되었고,
2016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콘텐츠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발판을
마련했다.



1985년 1월 1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1954년 4월 7일 처음으로 용인문화원이 만들어진 뒤, 꼭 31년 만의 일이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문화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 정부는 본격적으로 문화 부분의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고 1986년~1987년 2년에 걸쳐 문화지표체계연구를 진행해 문화지표를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인 및 단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990년 1월에는 최초로 문화부가 신설되어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고 지역문화 진흥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즈음부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도 31개 문화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될 때만 하더라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문화원이 있는 곳은 17곳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화원 14곳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당연히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초기 사업은 경기도 내 문화원형 아카이브 구축이나 문화자원 발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대부분 시·군에 문화원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1994년 1월 7일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된 의미는 남다르다. 독립된 문화원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한 비영리 독립법인으로서 법적 위치와 위상이 격상되었다. 즉, 특수법인으로 지방문화원을 진흥하기 위한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법적기구이다. 비영리독립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9개 행정자치단체에 하나씩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지역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게 되었고,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주목적이자 사명이 되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증가하였다. 경기도는 1996년 구리 문화원 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문화원 지원조례 제정을 시작하였다. 2016년 현재 31개 문화원 가운데 26곳이 제정되었으며 나머지 문화원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각 지역문화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이 함께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과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주요 업무가 지역문화원 지원 중심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역문화원이 가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확대에 놓였다. 하지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내부의 열악한 현실은 경기도 내 문화원이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조사사업이나 공동 의제를 발의하기



경기도 시·군문화원이 가진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

위한 연구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 12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 문화원 자료 제공, 네트워크 사업,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포괄적인 사업 실행은 물론 경기문화 브랜드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원 설립일과 조례제정일 비교

설립연월일	문화원	조례제정
1954. 04. 07.	용인문화원	
1957. 10. 28.	수원문화원	2009. 04. 09.
1961. 03. 05	동두천문화원	2008. 12. 03.
1963. 05. 10.	이천문화원	
1964. 10. 13.	김포문화원	2016. 03. 09.
1964. 12. 09.	하남문화원	2014. 09. 04.
1964. 12. 09.	화성문화원	2001. 03. 21.
1965. 05. 10.	안산문화원	2015. 02. 17.
1966. 03. 14.	부천문화원	
1967. 12. 19.	파주문화원	2008. 05. 30.
1970. 01. 10.	안양문화원	2009. 10. 07.
1970. 02. 25.	여주문화원	2013. 09. 23.
1971. 02. 20.	평택문화원	2016. 12. 19.
1978. 07. 05.	성남문화원	2016. 12. 21.
1981. 05. 25.	남양주문화원	2009. 06. 11.
1982. 08. 01.	고양문화원	2013. 01. 18.
1983. 05. 30.	양평문화원	2010. 04. 02.
1985. 01. 01.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6. 12. 16.
1986. 09. 30.	포천문화원	2009. 12. 30.
1986. 12. 22.	가평문화원	2010. 02. 12.
1987. 01. 16.	광주문화원	2011. 12. 30.
1987. 08. 27.	연천문화원	
1988. 02. 03.	안성문화원	
1988. 02. 17.	양주문화원	2010. 05. 10.
1989. 12. 23.	의정부문화원	2013. 02. 13.
1991. 03. 28.	과천문화원	2011. 07. 12.
1991. 10. 04.	구리문화원	1996. 07. 18.
1992. 04. 10.	광명문화원	2005. 06. 04.
1994. 04. 21.	군포문화원	2011. 01. 13.
1994. 06. 16.	오산문화원	2008. 04. 11.
1997. 09. 12.	시흥문화원	2012. 02. 07.
1999. 09. 29.	의왕문화원	2013. 11. 18.

공란은 조례 미제정 문화원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다섯 가지 가치

추구하는



1

1985년 ~ 1990년

문화 발견에서 문화 가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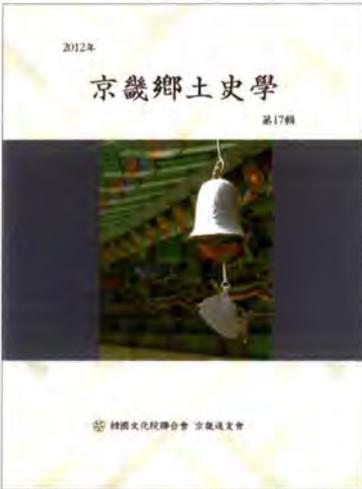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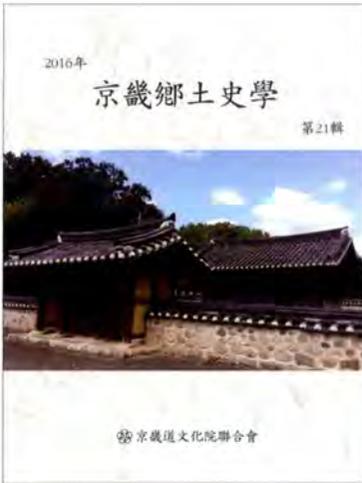
대표 관현즈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1980년대 산업화에 매진한 결과,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부정적인 현상도 동시에 나타났다. 생활 방식이 획일화되고, 생활 여건 또한 동질화됨으로써 행복에 대한 이상은 작아지고 삶의 창조력도 줄어들었다. 경기도는 인구 1,100만이 넘는 전국 제1의 도시 규모를 가졌을 뿐 아니라 1,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문화 보존과 생활문화 증진에 있어 각 시와 군 단위별 정책 집행과 사업 운영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출범한 배경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가 가진 문화자원을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 고유의 문화원형을 조사, 발굴, 전파에 힘을 쏟고 있다. 첫 시도는 1996년에 제1집을 발간한 《경기향토사학》이다. 31개 시·군의 연구위원들이 1년간 경기도 지역의 문화자산에 대해 발굴·조사 후 연구한 결과물을 모은 논문집이다. 집필진은 각 시·군의 추천으로 위촉된 연구위원으로, 지역의 문화원형과 향토사를 조사 및 발굴하여 역사적 사실을 논문의 형태로 서술한다. 문화예술, 정치, 인물, 유적지 등 경기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원형을 세세하게 기록 및 분석한 것으로, 역사적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향토사의 저변 확대를 이끌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시·군 단위로 진행되어 온 문화원형 발굴과 연구 작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폭넓게 진행하기 위하여 2006년 ‘경기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는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방 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 대표로 구성된 도 단위의 향토사학연구기관이다. 2006년 이전의 《경기향토사학》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각 지역에서 제출한 원고를 취합하고 편집하였으나,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설립 이후에는 연합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위원들이 그에

관한 경기도 내의 각종 역사 사료를 조사·연구해 출간하고 있다. 그 결과 278매의 원고로 시작했던 《경기향토사학》은 현재 450매에 달하는 분량으로, 참여율과 원고 편수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2016년 12월 12일, 《경기향토사학》 제21집을 발간했다.



<표> 「경기향토사학」 발간 리스트

연도	회차	사업명	부수
1996	창간호 발간	경기향토사학	1,500부
1997	제2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1,600부
1998	제3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1,600부
1999	제4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500부
2000	제5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1,000부
2001	제6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1,000부
2002	제7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1,000부
2003	제8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1,000부
2004	제9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1,000부
2005	제10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1,000부
2006	제11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1,500부
2007	제12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1,500부
2008	제13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1,300부
2009	제14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600부
2010	제15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600부
2011	제16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500부
2012	제17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500부
2013	제18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500부
2014	제19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500부
2015	제20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500부
2016	제21집 발간	경기향토사학	500부



2

1991년 ~ 2010년

문화 가치에서 문화 진흥으로

대표 콘텐츠 | 경기도민속예술제



오랫동안 축적된 경기도 문화는 경기도의 손으로 발굴·보존·축적·전승해야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 한다. 첫째, 문화는 주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발전은 그 자체로 인간성을 회복해내는 힘이 있다. 경기도민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경기도만의 주체성을 확립, 경기도 전체의 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안으로는 경기 문화를 진흥하고 밖으로는 국가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활동이 1993년부터 진행해온 <경기도민속예술제>다. (당시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경기도민속예술제>는 천만 경기도민의 문화 원형인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축제의 장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도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민속예술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세대, 인종 간의 벽을 허물고 다문화가정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화합하는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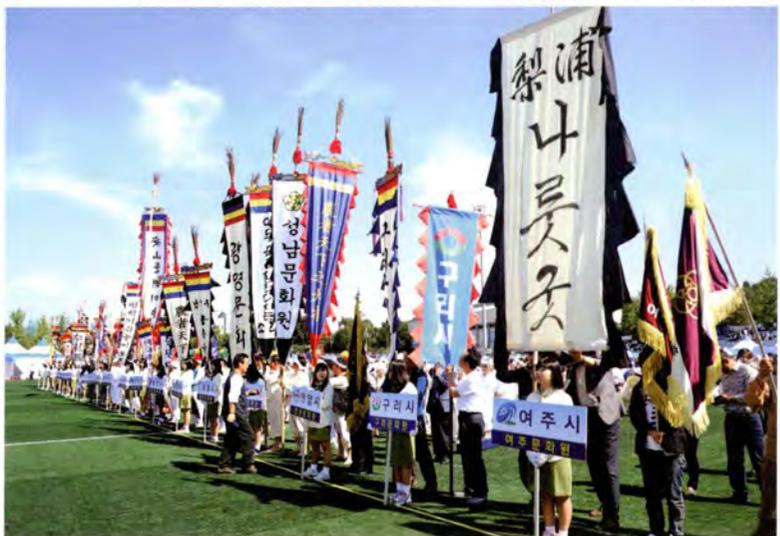
<경기도민속예술제>는 경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연 종목은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속극, 소리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 각 문화원과 연계한 민속예술단체는 무대 위에서 서로의 기량을 뽐낸다. 경연자들은 자신의 개인기를 뽐내기보다 향토 민속예술의 원형 재현에 충실한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 애쓴다. 그들이 펼치는 역동적인 무대는 관객과 하나 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외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전시, 체험 부스 그리고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해 관객은 물론 경연 참가자들도 축제를 즐기도록 한다.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해설, 지역의 숨은 문화예술의 공연, 지역민이 평소에 갖고있는 생활예술을 나누는 무대도 함께 열려 예술제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경기도민속예술제가 홀수 년마다 열린다면 짝수
 년에는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가 열려 여러
 세대를 이어 경기 향토문화의 원형을 나누고 전승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세대에게 전통문화를 전승한다는
 측면에서 이 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경기도민속예술제

3

2011년 ~ 2014년

문화 전승에서 문화 향유로

대표 공연은 <경기도 어르신문화축제>



1997년 IMF외환위기를 지나면서 1만 3,000달러가 넘던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 1,000포인트 안팎이던 주가가 반 토막이 났고, 1달러에 900원 하던 환율도 1,500원 이상 치솟았다. 경제는 어려웠고 글로벌 문화는 비판적 수용 자세를 갖추기도 전에 우리 생활 속으로 밀려들어왔다. 다양한 노력으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했고, 다행히 2000년대가 되면서 국민소득은 다시 1만 2,000달러를 회복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문화 여건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문화전승을 위해 풀어야 할 현안은 많았지만 제자리걸음 상태였고, 시민의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지원도 미미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준비 없이 맞이한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했다.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생활환경은 개성화, 감각화 되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났고 사회는 고령화로 접어들었다. 사회적, 인구적, 문화적 변화를 감안한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모두의 고심 끝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경기도어르신문화축제>다.

2010년 당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나이없는날'을 지정하면서 전국적인 행사로 진행했는데, 경기도문화원연합회도 이에 참여했다. 전국규모의 축제는 서울에서 열렸고, 때문에 전국단위의 어르신프로그램참여자 모두가 모두 참여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2012년부터 권역별어르신 축제로 전환하여 경기도 지역의 어르신축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요즘할매 요즘할배>라는 타이틀로 진행했다. 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어르신 문화 보급을 위해 지역문화원과 연합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르신들의 삶과 문화, 여가를 공유하는 장을 축제 안에 두루 마련했다.



현재를 충실히 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취지를 살려, 나이를 잊고 제2의 인생 전성기를 사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즐기도록 준비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삶의 단면을 공연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렸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방문화원의 어르신 동아리는 전통무용, 밴드, 취타, 인형극, 민요, 사물놀이, 태권무, 동요합창, 창작무용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발표회를 가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의 내용은 풍성해졌고 어르신들의 생활문화는 질적 성장과 함께 어울림의 즐거움으로 이어졌다. 2014년 열린 두 번째 <경기도어르신문화축제>는 <페스티벌31>과 함께 진행되었다. 어르신들의 생활문화축제가 <경기도어르신문화축제>라면 전 세대에 걸쳐 확산될 수 있도록 31개 문화원 전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 <페스티벌31>이다. 이로써 모든 일상이 생활문화 축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경기도 생활문화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하고, 나아가 문화예술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 태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권역별어르신성과사업 <나이없는날31>



권역별어르신성과사업 <실버아트홀31>

4

2015년 ~ 2016년

문화 향유에서 문화 복지로

대표 콘텐츠 | 페스티벌31, 미래유물전



지방문화원 지원과 함께 대외 활동, 문화정책과 관련 법 정비에 힘을 쏟으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문화소외계층'을 챙기는 일이다. 문화만은 처음부터 소외되는 사람 없이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챙겨도 언제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은 부족했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현안은 산적했다.

2015년이 되면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문화 복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화 환경을 개선, 정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일방적으로 견인하는 게 아닌,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것, 개인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형식으로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구현되는 장이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이다.

31이란 숫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함께하는 31개 시·도 연합회를 상징한다. 31개 시·도 연합회와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페스티벌31>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판을 펴는 동시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시민과 생활문화 간 소통을 이루는 또 다른 프로그램은 <미래유물전>이다. 시민들은 전시를 통해 자신의 삶과 그 주변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는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도민의 삶을 차곡차곡 아카이빙 해 세월의 궤적을 축적해나간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진정한 문화 복지로 나아갈 수 있을 터였다.

문화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그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지역민의 삶의 무늬를 그리는 것보다 장르 중심의 문화에 더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문화는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도시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공존(共存)이 아닌 공명(共鳴)이다. 한 동네에 오래 살아도 이웃끼리 말 한 마디 나누지 않는다. 도시에든 정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 함을 매일 느낀다.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시간을 공유하고 추억을 나누는 '사람사이'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도시에든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이웃이 곁에 있다는 것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

문화의 본질에 서로를 잇는 공명이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31개 문화원이 따로 활기차게 돌아가면서도 동시에 함께 어우러지도록 공동의 문화 지혜를 모았다. 타 기관과의 연계로 생활예술의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었다. 2016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문화재단과 손잡고 '생활문화플랫폼기획사업'을 추진했다. '일상이 작품이 되고 마을이 무대가 되고 관계가 문화가 된다'는 콘셉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가진 예술가와 지역주민을 만나게 했다. 문화를 기능이 아니라 관계로 여기게 해, 생활문화로 만들어낸 것이다. 주민들이 서로의 능력과 공동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마을의 특성을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생활문화라면, 그런 시도들을 엮어내는 장소가 생활문화플랫폼이다. 문화원, 문화의집, 민간단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예술가들이 스스로 일상의 문화를 발견하고 나누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들이 지원하고 조언한다. 함께 만들어낸 프로그램의 결과는 축제의 형식으로 선보인다. 공동의 경험을 쌓고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미래유물전>

페스티벌31 <내가있는날31>



5

2017년 - 미래

문화 복지에서 문화 지혜로

대표 윤앤즈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역문화원리협의회



모든 것이 연결된 현대는 사람이든 장소든 고유한 매력이 있어야 관심을 모으고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잊지 못할 장소나 감동을 준 사람의 이야기는 SNS를 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돌아다닌다. 문화의 세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2016년 3월, 지방문화원의 당면현황을 해결을 위한 아젠다 도출과 실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 또는 중앙 조직이 아닌, 경기도 문화원 중심의 일관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다. 각 지역문화원은 물론 지역사회 문화계에서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진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향후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신생 조직임이 틀림없다. 출범과 동시에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일단 지역문화원 조직과 운영의 선진화를 목표로 '과제 해결의 과정은 어떻게 갈 것인가?'와 '단기, 중기, 장기적 과제 설정의 문제를 논의했다. 또 사업 기획 및 추진에 있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원의 현실적 위상과 한계의 점검', '자체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문화재원구조 다양화 방안 모색' 등을 이야기했다.

2017년 8월,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안건으로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안)'이 그것이다. 이 안건은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정책의 확대 추진 등 지방문화원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한 이슈였다. 그 동안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또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지방문화원의 역량강화 및 정책연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구조가 없어 지방문화원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와 협력구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5년 9월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시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추진(한문연2015-237호)」안내 공문 및 표준조례(안)을 보냈고, 2016년 2월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필요성이 제기된 실질적인 추진 조직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본격 구성,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개정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보조금의 성격을 규정,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의 정의와 용도를 명확히 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집중 논의, 의원입법의 제정 절차를 거쳐 12월 16일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정책연구 기능과 31개 시·군 지방문화원 간 상호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별

고유의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향토 자료의 체계적 관리,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케 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문화원의 든든한 입지가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를 견인해 갈 전문인력양성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은 문화원장을 포함 총 179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차별화된 지역문화를 찾아내어 마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 그것은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을 만들어 가는 '사람'을 찾고 키우는 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이다.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기획자 및 활동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시민활동가 발굴 및 양성을 통해 더 많은 지역전문인력과의 관계맺기를 하고자한다. 문화원이 문화원 내부 사람들만으로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문화원을 만들고,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함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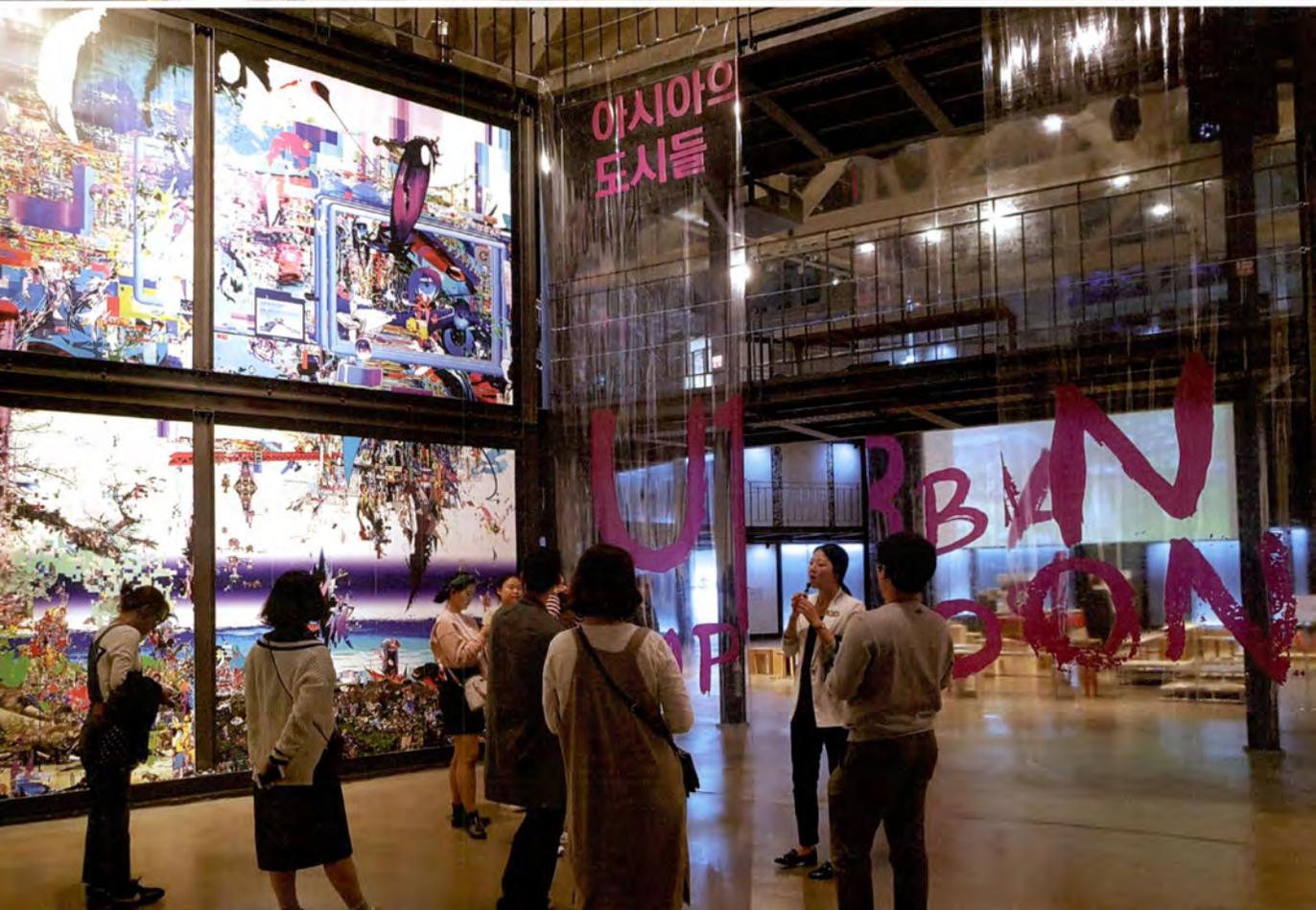
경기향토문화대학



품앗이안 프로젝트

양림동의 시간 양림동의 사람

The Life and Times of Yangnim-dong



사업

Project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펼치는 21세기 지역문화

chapter 1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목한

지역문화의 두 가지 포인트, 향토문화와 생활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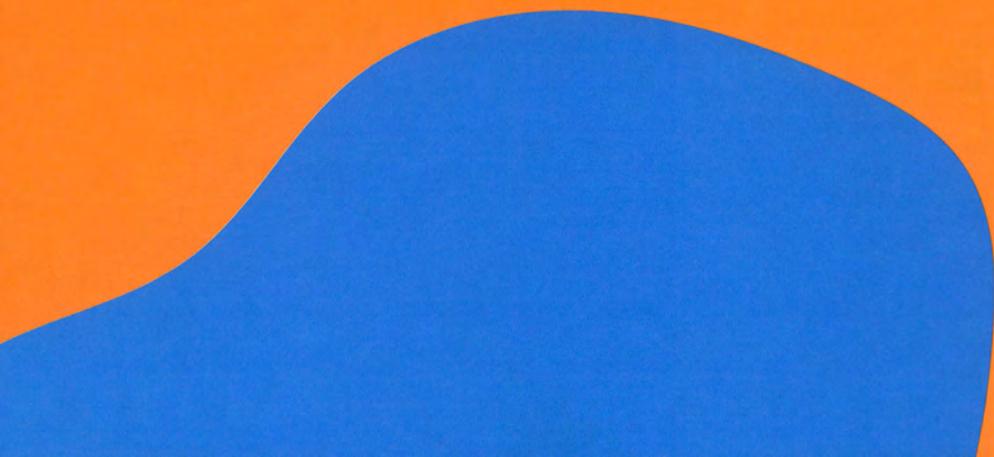
chapter 2

키워드로 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네 개의 키워드, 네 개의 문화씨앗

chapter

1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목한 지역문화의 두 가지 포인트,

향토문화와 생활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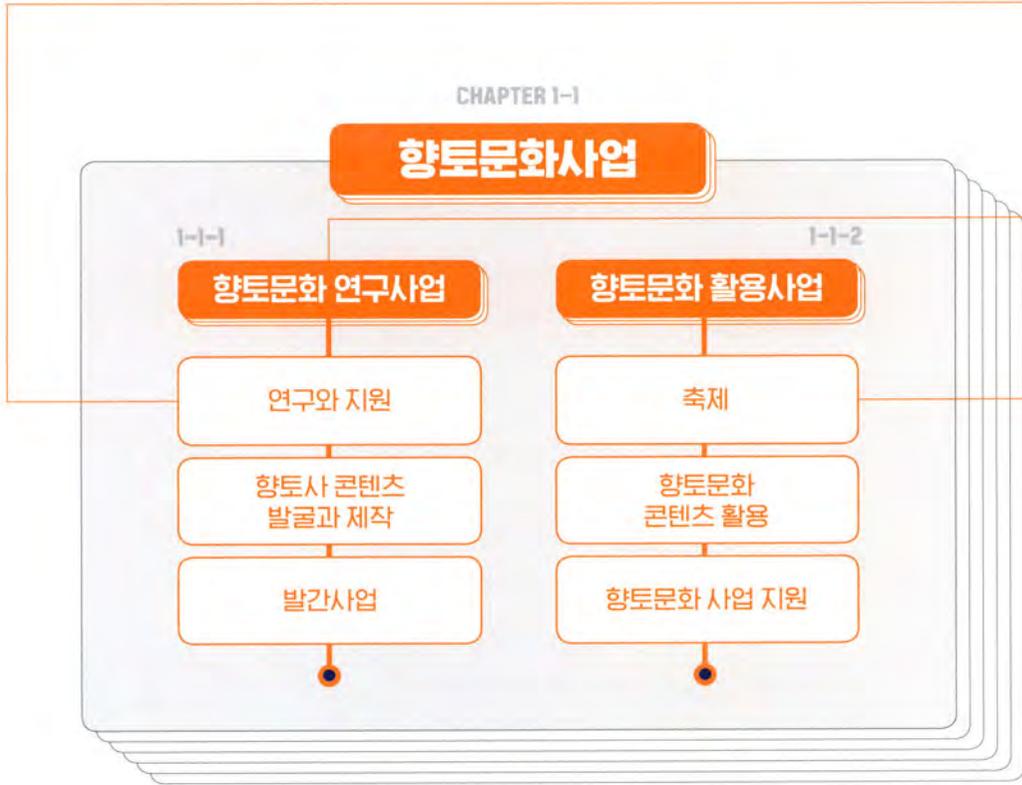
향토문화

- 1 향토문화 연구사업
연구와 지원
향토사 콘텐츠 발굴과 제작
발간사업

- 2 향토문화 활용사업
축제
향토문화 콘텐츠 활용
향토문화 사업 지원

생활문화

- 1 어르신 문화사업
- 2 생활문화 축제와 전시
- 3 생활문화 지원사업



CHAPTER 2-1

역량
강화

CHAPTER 2-2

기획·지원

CHAPTER 2-3

아카이브

CHAPTER2-4

네트워크

chapter 1

향토 문화

지역문화의 디딤돌,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펼친
30년간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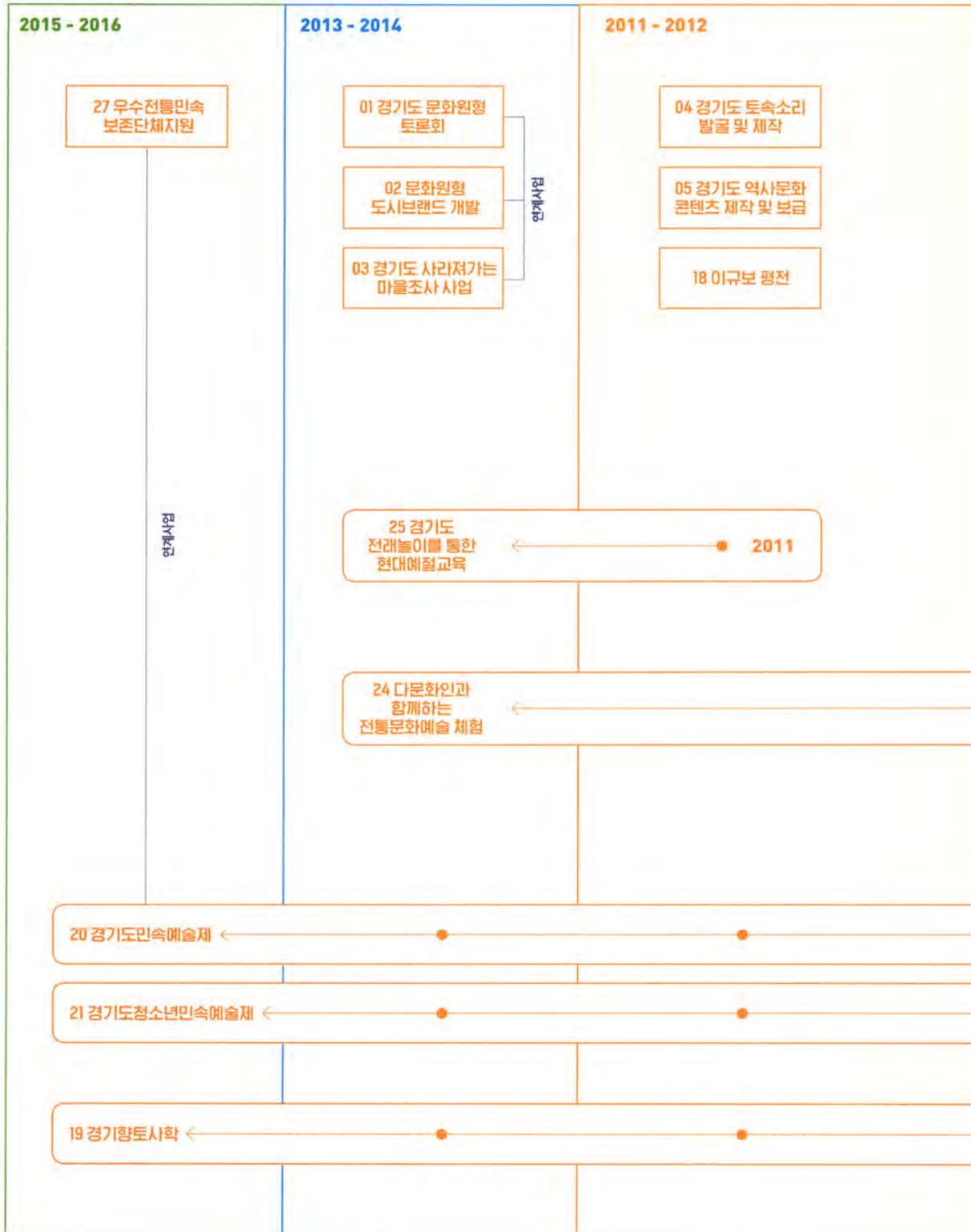


“문화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라고 질문을 던져보자. 아마도 대개의 사람들은 “향토사와 밀접한 일을 하지 않나요?”라고 답할 것이다. 문화원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더라도,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짐작은 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문화비전 선언’에서 문화원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화원은 향토문화의 보고이므로 우리는 이를 발굴·보존·육성하며 진승하는 지역문화의 수호자로서 창조와 융합의 문화 시대를 이끌어간다.” 즉, 문화원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환경,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향토 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역시 31개 시·군 문화원과 따로 또 같이 경기도의 향토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의 삶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흐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금부터는 지난 30년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수행한 다양한 향토문화 사업의 정수를 모아 소개한다.





2011 이전

28 미등록
무형문화유산 발굴,
전승, 복원 지원

06 경기도의 민속예술

07 경기도 논맹소리
자료 총서

08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22 성년의례

09 경기누정문화

10 성곽길라잡이

11 경기도의
전통사찰을 찾아서

12 경기도 서원 총람

23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체험

13 경기도 모심는소리의
양상과 민요권

14 경기도 농원 총람

● 2009

15 경기도 여성문인

● 1982

● 1996

16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 1996

26 동화로 읽는
경기도 설화(산성편)

17 경기도 향교총람

1 향토문화 연구 사업



사라져가는 경기의 옛 기억을 되짚어보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문화 유산이 있다. 한반도의 정 중앙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왕조가 경기도를 국가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라는 토양에서 꽃을 피웠던 많은 유무형의 문화 유산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따라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미명 아래 사라진 유산들의 흔적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사라져가는 경기도의 옛 기억을 되짚어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30년 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향토문화의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펼친 사업들의 모습을 살펴보자.



연구와
지원

01 경기도 문화원형 토론회(2013)

‘경기도 문화원형 토론회’는 경기도 문화원형을 활용한 향토문화사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2013년 11월 21일 경기도 시·군 문화원 임직원 및 향토연구위원을 대상으로 한 발제와, 2월 13일 시·군 문화원 사무국장들의 자유토론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조사와 ‘마을지’ 발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다. 경기도 각 지역에서는 구술과 채록을 통한 마을조사를 바탕으로, 마을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학 연구의 토대임과 동시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마을이라는 콘텐츠가 경기도의 문화원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문화원에서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마을연구와 마을조사 그리고 마을지에 대한 학제적 접근’, ‘마을조사와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지역공동체와 사진 아카이브’,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참여의 의미’라는 다섯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 문화원형 토론회’는 경기도 시·군 문화원의 향토문화사업이 사라져가는 문화원형을 보존하고 개발하여 향토문화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자리였다. 또한, 이 토론회는 향후 고품질의 향토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과 향토문화사업 협력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를 통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문화유산원형의 다양한 보존 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경기도를 대표하는 유·무형의 문화원형 상징 발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문화원형 토론회’ 사진 기획·자문회의

02 문화원형도시브랜드 개발(2013~2014)



‘문화원형도시브랜드 개발’ 사업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지표인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사업이다. 즉, 문화원형을 통해 드러나는 지역의 특성을 일종의 브랜드로 만들어 경기도의 문화 자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많은 지방문화원은 자신이 토대를 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문화원형을 지역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문화원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과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공시키고자 하였다.

사업 1차년도인 2013년에는 경기 지역의 토속 소리를 주목한 영상 <문화원형이 브랜드다>를 제작했다. ‘두레’, ‘품앗이’와 같이 일상적 삶에서 피어나는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오랜 전통을 갖는 삶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지역의 다양한 소리 중 ‘안산 둔배미배치기 놀이’를 중심으로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탐구했다. 즉, 도시화에 의해 많은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유의 지역성이 남아있는 ‘삶의 문화’를 살펴본 것이다.

사업 2차년도인 2014년에는 마을조사를 통해 문화원형을 발굴하는 과정은 <사람들의 삶이 역사다>라는 영상으로 제작했다. 용인문화원의 마을 조사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지’가 가지는 가치와 사업의 비전 등을 담아냈다.



2013『문화원형이 곧 브랜드다』영상 중 안산 둔배미 배치기 예능 보유자 인터뷰



2014『사람들의 삶이 역사다』영상 중 마재마을 주민 인터뷰

03 경기도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사업(2013~2014)



‘경기도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사업’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의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마을 중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될 마을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마을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의 결과물은 경기도 마을 주민의 삶이 어떻게 현재의 경기도를 만들어 왔는가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조사 사업을 통해 2013년에는 남양주 능내 마재마을을 조사하여 『다산이 그리워한 마을, 마재』를 발간했다. 마재마을은 다산 정약용의 고향으로, 마을 기록은 한강의 변화에 따른 마을 주민의 생업 환경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4년 발간된 마을지, 『옛길을 품은 마을 오리골』에서는 ‘용인 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포함된 오리골 마을(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오리골 마을은 일제강점기 때는 수여선이 통과하는 수탈의 공간이었고, 한국 전쟁 당시 김량장 전투가 벌어진 전투의 공간이었다. 마을지에는 도시화로 인하여 끝내 자취를 감춰야 하는 오리골 마을에 대한 지리적·역사적 배경부터 의식주, 세시풍속과 놀이, 신앙 및 민간의료 등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었다.



2014년에 진행된 오리골 마을 1차 현장조사 및 용인 지역간담회

향토사
콘텐츠 발굴과
제작



04 경기도 토속소리 발굴 및 제작(2011)

‘경기도 토속소리 발굴 및 제작’은 사라져가는 경기도의 토속소리를 발굴하고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통해 경기도 문화정체성을 확보하고자 기획되었다. 즉, 경기도 토속소리를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제작·보급하여 토속소리의 지속적인 보존과 계승을 꾀했다.

토속소리의 수집은 녹취와 인터뷰를 통해 소리의 원형을 발굴하였고, 이를 채보·정리하여 지리적·문화적·음악적·문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기존 토속소리 연구는 가사의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 서적발간물인데 비해, ‘소리’의 특성 상 정확한 보존과 교육을 위해서는 음성 파일을 그대로 담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CD 제작이 이뤄졌다.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향유자의 고령화로 인해 경기도 토속소리는 소멸의 위기에 있다. ‘경기도 토속소리 발굴 및 제작’ 사업은 위기에 놓인 경기도 토속소리를 복원·발굴하여 발생 배경에 대한 문화철학적 담론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 경기도 무형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흥지역 토속소리 조사

05 경기도 역사문화콘텐츠 제작 및 보급 『경기음악』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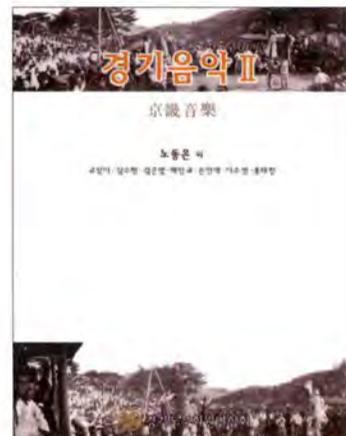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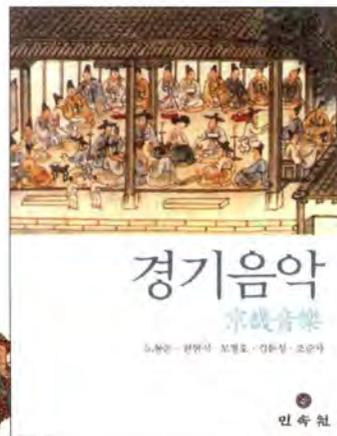
‘경기도 역사문화콘텐츠 제작 및 보급’ 사업은 경기도의 설화와 민담을 이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고 보급하여 경기도의 향토사 및 역사 유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단행본인 『경기음악』 1권과 2권을 발간했다. 경기음악은 왕도음악과 한양음악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군영의 세악수와 최고수의 음악 뿐 아니라, 산대음악, 연희음악 등 타 지역과 다른 특수한 음악으로 가득하다.

『경기음악』 1권에서는 경기음악과 백두대간, 경기음악의 개관, 경기음악의 갈래 등 경기음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발굴하여 경기 음악을 소개하였다. 『경기음악』 2권에서는 경기농악, 경기민요, 경기좌창과 경기입창, 경기굿음악, 경기시나위, 경기관소리, 경기산조, 경기예인집단, 경기관아음악과 군영음악, 경기실악, 경기양악, 경기신민요 등 본격적으로 경기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 역사문화콘텐츠 제작 및 보급’은 경기도의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지역문화사 연구의 보고라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간사업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발간한 서적의 4가지 분류

경기도 건축문화연구

경기도 문화인물연구

경기도 무형문화유산연구

경기도 향토문화 연구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난 30년간 경기도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향토 문화 유산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담은 서적을 발간하며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향토사 연구 사업을 통해 발간한 서적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먼저, 특정 건축물을 연구한 서적들이 있다. 건축물의 기초적인 정보부터 시작해 이 건축물이 축조될 당시의 시대상과 건축물과 시대의 관계를 조망한 연구를 진행했다. 『경기누정문화』, 『경기도 서원 총람』, 『경기도의 전통 사찰을 찾아서』(1·2권), 『성곽 길라잡이』(1·2권), 『경기도 능원 총람』(상·하권) 등의 서적이 이에 해당한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 그 자체나 조경으로만 볼 수 없다. 하나의 건축물이 축조될 때 사람들은 건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대와 호흡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고민의 흔적들을 후세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그 정신이 계승되도록 하는 것은 향토사 연구 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 곳곳에 있는 다양한 전통 건축의 현장을 탐방하며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건축물을 현 시점의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했다.

『경기도 여성문인』(상·하권), 『이규보 평전』과 같이 인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서적물로 출간하기도 했다. 인물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해당 인물에 대한 흠어져 있는 자료를 한 권의 총서로 엮어, 추후 해당 인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소재로 한 사업 진행에도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가 배출한 역사적 인물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던 인물들의 삶과 그가 남긴 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인물 연구 서적 발간 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한 서적물 간행도 이어졌다.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 『경기도 모심는소리의 양상과 민요』(1·2권),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 『경기도의 민속예술』이 바로 그것이다. 유형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과 전승 과정이 확실한 유형문화유산과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전수자 혹은 단체의 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전수자가 없을 때는 해당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은 훨씬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유형문화유산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며, 문화재 당국의 관리도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 제고 및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전승, 보존을 위해 해당 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서적 발간에 힘을 쏟았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의 부설연구기관의 대표가 모인 경기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는 해마다 경기도 전 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바로 《경기향토사학》이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20권에 걸쳐 발간되고 있는 《경기향토사학》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기관 경기향토문화연구소가 발행하는 대표적인 연구 서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향토문화연구 사업 중 서적 발간이 가지는 의미는, 먼저 현대로 들어오면서 사라질 위험에 놓인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사람들이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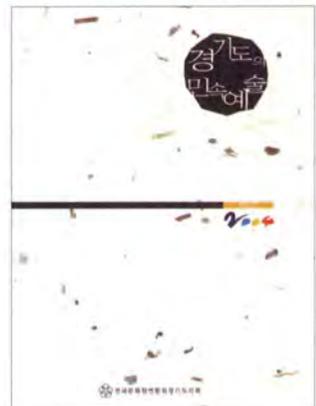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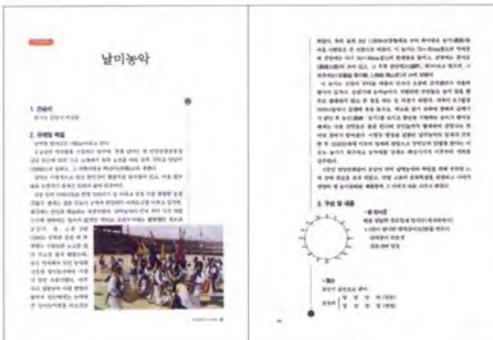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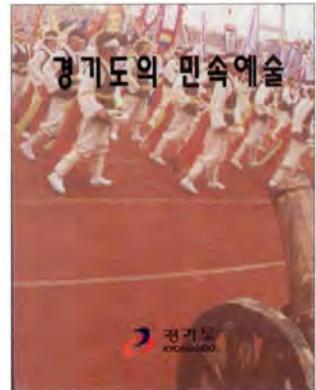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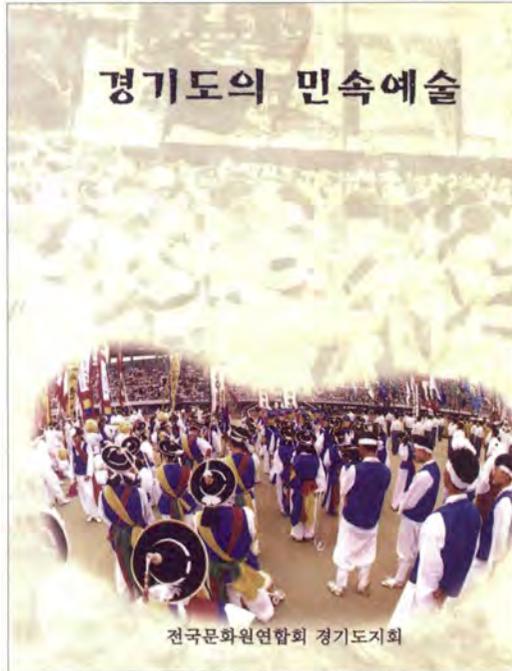


또한, 체계적인 문헌 고증과 실물 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연구자에게는 소중한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문화원 만의 색다른 향토 문화 사업을 기획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에 대한 도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도민 전체의 화합과 단결 및 도정 목표의 기여라는 의미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발간한 서적 가운데 향토문화연구 사업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을 살펴보도록 하자.

06 『경기도의 민속예술』(1996, 1997,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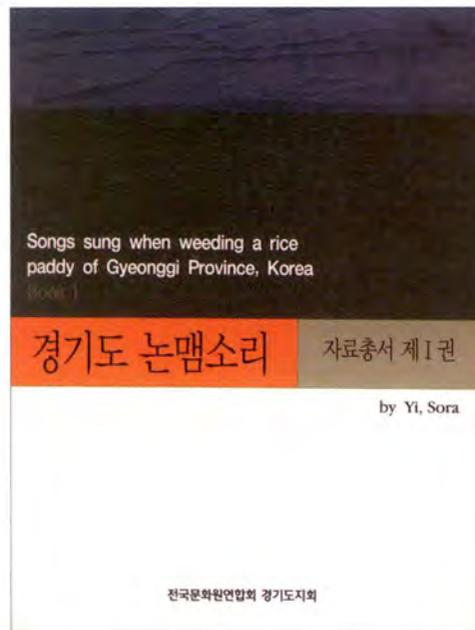
『경기도의 민속예술』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당시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경기도 개최를 기념하여, 경기도에서 발굴 및 보존되어 온 민속 예술을 정리하여 1996년 발간한 책이다. 이후 1997년과 2004년에 각각 제2권과 제3권을 발간하였다. 경기도 각 시·군 민속예술의 전승지, 유래와 해설, 구성과 내용, 특징 등을 철저한 고증을 거쳐 담아냈다.



07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2002~2005)

두레와 품앗이 같이 농업 사회의 공동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동의 '소리'이다. 고된 농사일을 한 곡조의 소리로 씻어내며 서로를 응원하던 논맴소리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 전역의 논맴소리를 담아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를 펴냈다.

이 책에는 각 시·군 별 논맴소리의 현황과 배경, 종류, 성격, 악보 및 해석이 담겨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 발간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개발, 전래민요 보유자의 고령화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놓인 경기도 지역의 개성 있는 소중한 무형 유산인 논맴소리를 후대에 전승할 발판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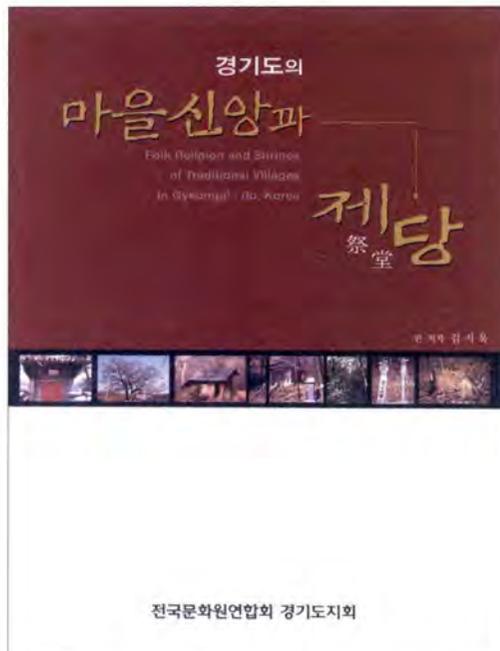


08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2002)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당』은 민속 문화로서의 마을신앙을 바로 알고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도내 각 시·군에 산재한 마을 제당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한 결과물이다.

마을신앙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복적 성격의 신앙과 달리, 자연 공동체인 마을 단위로 형성되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구성원의 결속을 유도하는 공동체 신앙이다. 대개 마을의 중심 혹은 풍수 상 길지(吉地)인 곳에 세워지는 제당은 인간과 신이 만나는 곳이면서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이러한 마을 제당의 형태, 위치, 규모, 유래에 관한 것과 마을 신앙의 제의 절차, 제물 차림, 운영 방식 등 관련 의례를 조사하였다. 또,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전승 현황표와 더불어 마을 당주 및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마을신앙과 제당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냈다.



09 『경기누정문화』(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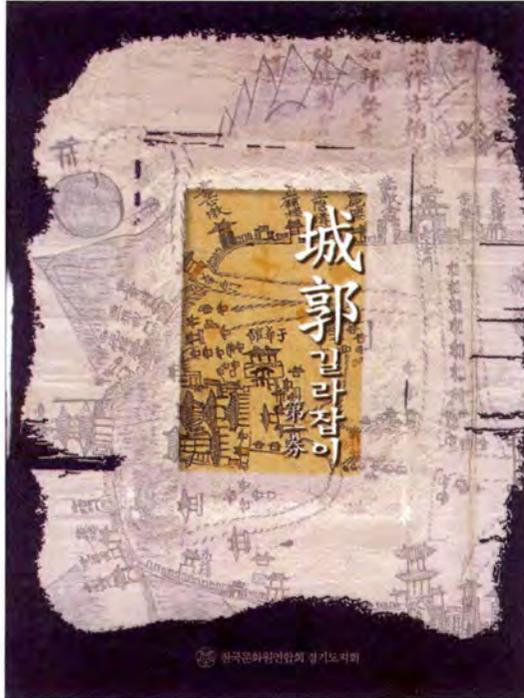
누정은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일컬어 부르는 용어다. 옛 조상들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마다 누정을 지어 백성의 안위와 임금을 향한 충절 등을 사색하기도 했고, 때로는 마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정은 최근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 개발로 인해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온전하게 보존된 곳이 드물다. 심지어 누정 터의 확인이 어려운 곳조차 존재한다.

『경기누정문화』는 2003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발간한 자료집으로 경기도 전체 시·군 별 누정의 소재지, 건축 시기와 역사, 소유자, 건물 규모 및 구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라져가는 누정의 역사를 돌아보고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이 책의 의의가 있다.



10 『성곽길라잡이』(2004~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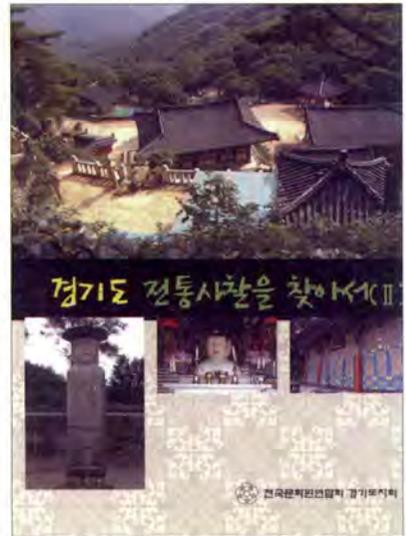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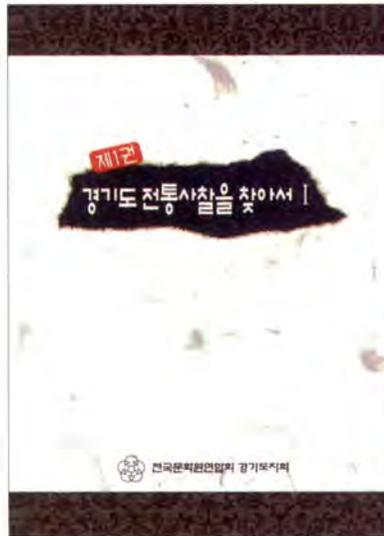
『성곽길라잡이』는 경기도 전역의 성곽(토성, 산성, 평토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집으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권(한강 이남)과 2권(한강 이북)을 발간하였다. 성곽과 성곽 터, 출토 유물 등을 찍은 사진과 함께 경기도 성곽의 시대, 위치, 규모, 역사 및 현황에 대한 소개를 수록했다.



II 『경기도 전통사찰을 찾아서』(2005~2006)

『경기도 전통사찰을 찾아서』는 1910년 이전에 창건된 사찰을 중심으로 옛 문헌 속 사찰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합하여 만든 전통 사찰에 관한 자료집이다.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권과 2권을 발간하였다. 전통 사찰을 담은 상세한 사진(사찰의 외형, 법당 내부, 탕화)과 함께 소재지, 찾아가는 길, 연혁 및 역사, 사찰의 공간, 인물 등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전통 사찰은 백성의 애환을 달래주는 곳이자,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던 공간이었다. 전란의 시기에는 국운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비록 유교 국가인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을 내세웠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있는 신앙은 어찌하지 못했다. 그렇게 전통 사찰은 역사와 함께, 백성과 함께 지속되었으나 최근 들어 산업화와 도시 개발 등으로 점차 소멸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의 전통 사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전통사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찰이 가진 의미를 전승하기 위해 『경기도 전통사찰을 찾아서』를 발간했다.



12 『경기도 서원 총람』(2006-2007)

『경기도 서원 총람』은 조선시대 사림으로 불린 유교 지식인들에 의해 세워져 유교 발전에 공헌한 선현을 받들고, 유교 경전에 대한 강학을 통해 수신과 치국의 도리를 배우는 사림 학교인 서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책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각각 상권과 하권을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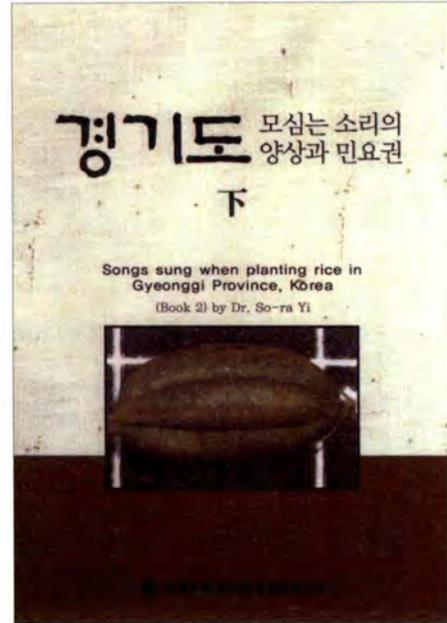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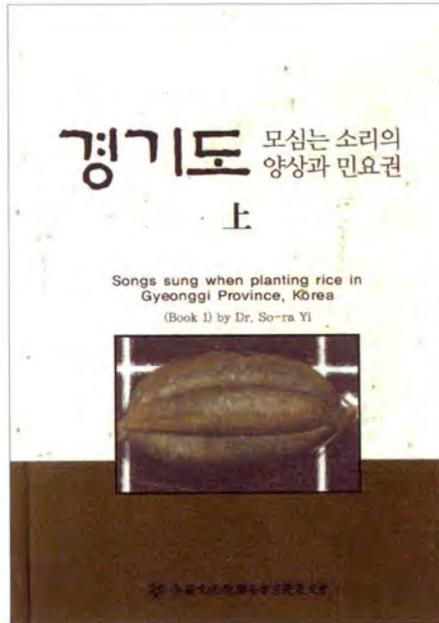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먼저 서원의 역사와 현황, 의례와 제향, 복식의 구성과 의미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각 지역에 존재하였던 서원을 조사·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원의 강학을 위한 원규 및 강규, 각종 의례와 제도를 갖추는데 보탬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13 『경기도 모심는소리의 양상과 민요권』(2006,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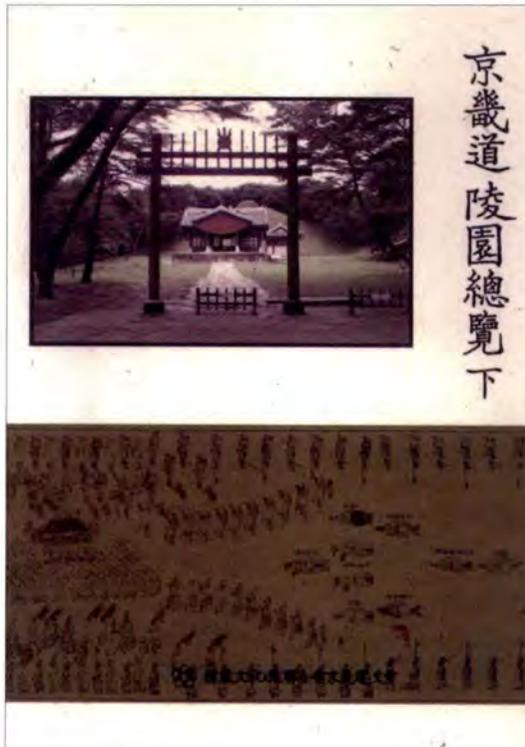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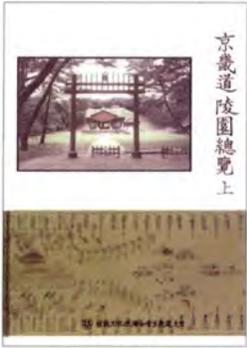
『경기도 모심는소리의 양상과 민요권』은 사라져가는 향토 민요 중 모심는소리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집이다.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상권과 하권이 발간되었다. 경기도 모심는소리의 배경, 가창자, 종류와 양상, 모심는소리의 악보와 해석 등을 수록하였다.



14 『경기도 능원 총람』(2007~2008)

국왕과 왕실의 묘를 일컫는 능원은 해당 국가의 역사를 조명하는 여러 문화유산 중 가장 화려한 유산으로 꼽힌다. 특히, 조선의 능원은 조성 과정과 정비 및 보존 과정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관리를 받아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에 위치한 능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07년과 2008년에 『경기도 능원 총람』 상·하권 출간했다. 상권에는 조선 왕실의 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산릉의 구성과 풍수, 제례 의식에 대한 내용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각 시·군 별 능원의 정보가 있다. 하권에서는 상권에 수록하지 못했던 경기도 내 능원과 함께, 경기도 이외 지역의 능원을 추가로 다루었다.



15 『경기도 여성문인』(2007-2008)



『경기도 여성문인』은 경기도를 바탕으로 나고 자란 여성 문인의 삶과 문학을 전반적으로 조명한 책으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상권과 하권이 발간되었다. 상권은 허난설헌, 강정일당, 황진이, 혜경궁 홍씨, 홍랑의 이야기등 고전 여성문인을 대상으로 서술이 이뤄졌다. 하권은 현대 여성문인 나혜석, 최정희, 김오남, 박완서, 김지원, 김재원의 삶을 다뤘다.

경기도는 예로부터 걸출한 문화 인물을 배출하였지만, 그에 비해 여성 문인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여성 문인들은 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따라서 여성문학사에서 경기도는 중요한 지역이다.

『경기도 여성문인』을 들여다보면 여성 문인들의 출생과 성장 배경 등 생애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경기도와 어떤 문학적 관련성이 있는지, 작품세계의 특징과 그것의 문학적 위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작가의 인적 교류와 계보, 작품 목록, 관련 문헌, 현대에 들어와 문학적으로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도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 속에서 잊혀진 여성 문인들의 삶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그들의 문학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6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2009)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당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가 2009년에 발간한 책으로 역사적으로 생활의 터전이었던 한강, 그 중에서도 경기도 지역에 속하는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예로부터 한강은 한민족의 젖줄이자 대동맥의 역할을 해왔다. 삼국시대부터 한강과 삼각산을 차지하기 위한 패권쟁탈전을 벌였으며, 이후의 왕조도 한강을 중심으로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현재에도 한강은 중요한 생활 터전이며 젖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있어 중요한 한강유역의 민속문화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의 발간을 통해 남한강은 북한강 유역과는 달리 평야지대가 많아 풍농, 풍어,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과 놀이가 발달하였음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남한강 설화, 민요, 무가 및 고전시가, 한시 등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신장시키고, 지역 문화와 세계 문화가 나란히 공존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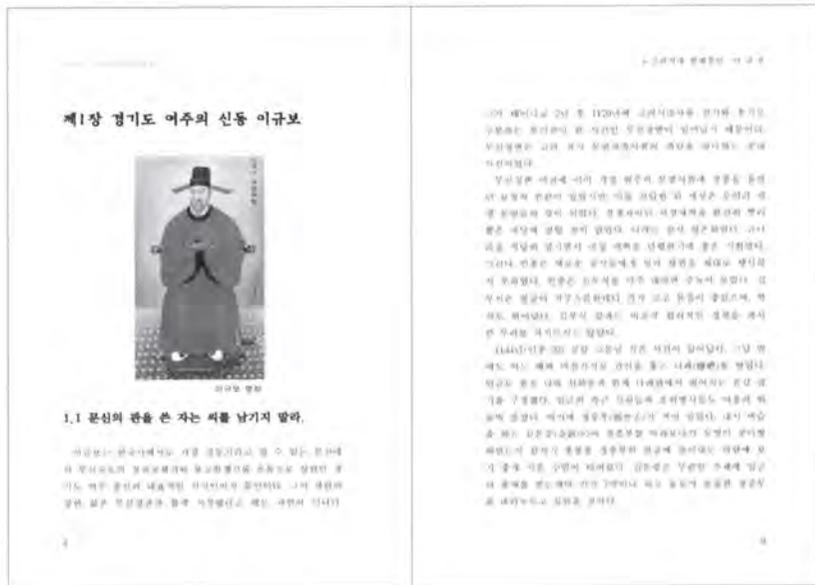


18 『이규보 평전』(2011)



2011년 발간된 『이규보 평전』은 그동안 연구 대상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조선 시대 이전의 경기도 문화 인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규보는 한국사의 가장 격동기라 할 수 있는 무신정권기와 몽고항쟁의 시기를 살았던 경기도 여주 출신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문인이다. 그는 무신정권 당시 많은 문인들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인물이었다. 『이규보 평전』은 민족 대서사시인 ‘동명왕편’에 나타난 이규보의 역사인식, 지방관으로 있는 동안의 체험담인 ‘남행월일기’, 50대 이후에 쓴 일기, 이규보의 사망 이후 편집되어 출간된 ‘동국이상국집’ 등 시대와 호흡하는 이규보의 문학적 발자취를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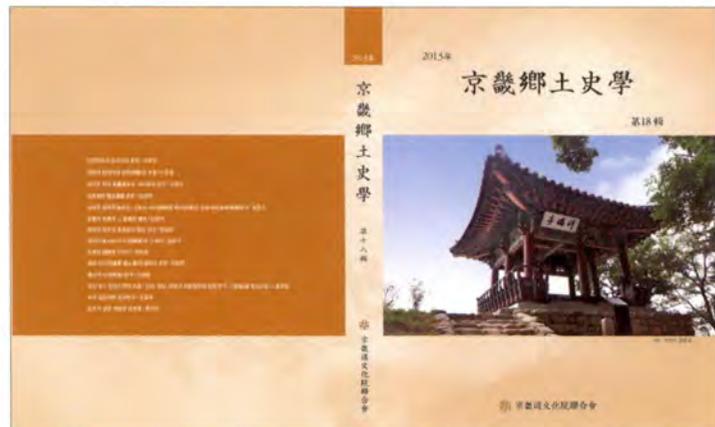
19 《경기향토사학》(1996~)



《경기향토사학》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이 1년간 경기도 각 지역에 대해 조사, 발굴,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논문집이다. 1996년부터 발간을 시작한 《경기향토사학》은 2016년 제21집을 발간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공존하고, 주변국들의 문화가 유입되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화로 인해 선조들의 생활상, 역사 등이 기록도 없이 소멸되고 있어 세심한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향토사학》은 경기도 전 지역의 세세한 역사적 기초자료이자 고대에서 근세까지의 경기도 향토사에 대한 총체적 연구서이다. 또한 경기도 향토사의 저변 확대를 이끌고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도민의 애향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2 향토문화 활용 사업



경기의 문화를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난 30년 동안 경기도라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맥을 꿰뚫는 조사와 연구 사업을 수행해왔다.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경기도의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향토문화의 맥을 잇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민속예술제와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는 경기도의 문화적 자산을 신명나는 몸짓으로 보여주며 모두가 하나 되는 장을 만들었다. 또한,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향토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다양한 향토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탐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해 참여자 개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 깊은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국가나 시·도 단위의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은 유산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재로 미지정된 유산을 찾아 육성하고 있다. 또, 각종 대회를 통해 기량을 뽐낸 문화예술단체들이 더욱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라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발굴과 연구 사업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 문화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것은 문화원이 연구만 하고 그 결과물을 '그들만의 리그'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공유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 및 문화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어떤 방식으로 향토문화를 활용한 사업을 전개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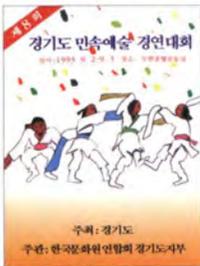
20 경기도민속예술제(1993~)

<경기도민속예술제>는 천만 경기도민의 문화적 원형인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축제의 장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로 인해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도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관객들에게 보다 더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민속예술제>는 '경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문화원과 연계한 민속예술단체는 보다 나은 기량을 뽐내기 위해 무대에서 열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펼쳐지는 역동적인 무대는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체험부스와 부대행사도 마련하여 관객 뿐 아니라 경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홍보전략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도	회차	사업명	일시 장소	경영상
1993	8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수원종합운동장(9/2)	32개 작품
1994	9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안양종합운동장(9/8-9/9)	33개 작품
1995	10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성남종합운동장(9/14-9/16)	28개 작품
1997	11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여주공설운동장(9/25-9/26)	23개 작품
1999	12	경기도민속예술축제	동두천시종합운동장(9/1-9/2)	23개작품
2001	13	경기도민속예술축제	광명종합운동장(9/22-9/23)	26개작품
2003	14	경기도민속예술축제	고양시중산공원(9/19-9/20)	30개작품
2005	15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안성시종합 운동장내실내정구장(9/1-9/2)	27개작품
2007	16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안산시호수공원내중앙광장(9/1-9/2)	28개 작품
2009	17	경기도민속예술제	용인시종합운동장(9/4-9/5)	30개작품
2011	18	경기도민속예술제	양주시별산대놀이마당(9/30-10/1)	29개 작품
2013	19	경기도민속예술제	포천시종합운동장(9/27-9/28)	29개 작품
2015	20	경기도민속예술제	오산시종합운동장(9/18-9/19)	30개 작품

21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1996~)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는 홀수년마다 열리는 <경기도민속예술제>와 더불어 짝수년에 열리는 경기도 전통문화 발굴과 축제의 장이다.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는 경기도의 문화적 유산을 청소년의 몸짓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향토문화의 원형과 그 전승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해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 세대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주목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 대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한국의 민속예술과 다른 나라의 민속예술 간 교류를 증진시켜 세대와 인종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리며 화합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도	회차	사업명	일시 장소	경영작
1996	1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수원실내체육관(9/17-9/18)	26개 작품
1998	2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수원체육관(9/22-9/23)	25개 작품
2000	3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부천시장잔디광장(9/23-9/24)	29개작품
2002	4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시흥시정왕동옥구공원내운동장(9/28-9/29)	26개작품
2004	5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용인시실내체육관(9/16-9/17)	26개작품
2006	6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의정부시실내체육관(9/7-9/8)	31개작품
2008	7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성남종합운동장(9/5-9/6)	31개작품
2010	8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시흥시체육관(9/9-9/10)	30개작품
2012	9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화성종합경기타운실내체육관(9/21-9/22)	28개작품
2014	10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의정부실내체육관일대(10/16-10/17)	25개작품
2016	11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부천시부천체육관일대(9/23-9/24)	28개작품



2016년 제11회 경기도청소년문화예술제 광명문화원 '철산리두레농악'



22 성년의례(2008)

성년례는 가정에서만 머물던 아이가 삶의 전환기에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의식을 의미한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한 '성년의례' 사업은 성년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청년들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다.

그동안은 일부 시·군 문화원이 지역 단위의 행사로 추진했으나, 2008년 도 단위 행사로 확대하면서 전통 성년례의 정신과 의미를 한층 고취시키려 하였다. 또한, 성년례 의식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통해 예식의 사회적 교육적인 의의를 선양함으로써 살아있는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했다.

2008년 5월 17일 수원화성행궁 내 유여택에서 진행된 '성년의례'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였으며 경기문화재단, 예문관이 후원하였다. 2008년에 성년이 된 경기도 내 대학생 남녀 20여명이 의식에 참여했으며 많은 내빈들과 방문객이 새롭게 성년이 된 청춘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빛냈다.



2008년 수원화성행궁 내 유여택에서 진행된 '성년의례'

23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체험(2008)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체험’은 경기도의 미래를 향해 함께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느끼는 문화적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창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다.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다섯 가지 감각(오감)을 테마로 사업을 진행했다. 1차 시기에는 화성홍보관과 수원 화성을 둘러보며 수원의 자랑인 화성에 대해 시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방문해 승무와 살풀이춤, 단청장, 소목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2차 시기에는 이천의 해강도자미술관을 견학했다. 이 곳에서 도자기에 대한 강좌를 듣고 직접 빚어보는 등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 시기의 주제는 미각이다. 여주의 오감도토리마을을 방문하여 직접 목을 만들어보며 목이 가지고 있는 짝짜름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즐겼다. 4차 시기에는 안성의 안성맞춤박물관을 방문했다. 이 곳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인 ‘안성맞춤’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고 유기공방을 관람했다. 마지막 5차 시기는 후각을 테마로 김포의 다도 박물관을 견학하고 다도 예절 교육을 받으며 우리 차가 가진 은은한 향취를 즐기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체험’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들 삶의 새로운 터전인 경기도에 대해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떡메치기 체험



문화유적답사

21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 체험(2009~2013)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 체험’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문화 가정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정착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 체험’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악 감상 프로그램’과 2013년 ‘전통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두 갈래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2009년~2012년 국악 감상 프로그램

<짱! 짱이예요! 국악소리>라는 테마 아래 2009년부터 4년간 실시된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 체험’은 경기도 거주 다문화 가정에게 한국의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업이다.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임과 동시에 다문화가정과 지역 사회 간 정서적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문화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매년 5곳 내외의 시·군 문화원을 방문해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었다. 낯선 한국의 전통 음악을 보다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해 익숙한 팝송과 오페라 아리아를 국악으로 편곡하였고, 우리 민요의 가락이나 전통 국악기를 소개하는 등의 해설을 곁들이며 관객 친화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각 지역에 거주하는 자국민으로 구성된 밴드와 노래 동아리들을 초대하는 무대와 베트남과 인도, 몽골 등 아시아 전통 음악 전공자들과 협연하며 다문화인들의 한국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들의 음악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성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강당에서 진행된 국악 감상프로그램



파주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2013년 전통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그동안 진행되었던 <짱! 짱이예요! 국악소리>는 다문화가정에게 특별한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일회적인 행사를 열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 점진적인 삶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한국 문화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따라서 2013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한 ‘다문화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 체험’의 사업 방향은, 수동적인 공연예술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자신의 감정을 투영해 공연을 올리는 2가지 트랙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위해 파주문화원과 공동 주관하며,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실행을 도모했다. 또한 연희단 필산대가 이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단체로 참여, 가무악(歌舞樂)의 조화를 도왔다.

교육은 7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장르의 전통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며 참여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 총 16차시에 걸친 체험형 워크숍과 공연 관람, 초청 특강, 1박 2일의 캠프를 함께 하며 동고동락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공연 콘텐츠는 10월의 <파주가족문화제>, <파주울곡문화제>에서 선보였으며, 종강 이후 ‘파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료식’ 등 3차례에 걸쳐 무대에 올릴 수 있었다.

해당 사업은 참여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새롭게 학습해야 할 언어를 보다 쉽게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전통문화예술을 매개로 개인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아냄을 통해 자기존중감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서 주변화되지 않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풍물, 민요, 무용과 같이 혼자가 아닌 여럿이 호흡을 맞출 때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장르의 교육 내용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마음을 열고 참여자 상호 간 연대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진행된 ‘다문화인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최종발표회

25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2011~2013)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생활예절을 전래놀이라는 우리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전래놀이의 형식을 차용한 교육 진행으로 학습 효과를 높힐 뿐 아니라 예절의 필요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래놀이의 공동체성에 대한 현대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예절교육의 다양한 방법론과 인식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지역문화원 및 지역별 활동가들을 양성하여 향후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2011년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프로그램은 광주문화원, 동두천문화원, 안성문화원, 안양문화원, 이천문화원이 공동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가 협력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집단 놀이의 전래 놀이를 체험함으로써 참여 학생들 간의 긍정적 경쟁을 유도했다. 또한 활동 후에도 참여자들이 가정 또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교구를 배포했다. 또한, 국악 실내악 공연 및 국악기 체험, 경기 민요 배우기, 전래놀이 체험, 애기 장승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반영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잊혀가는 지역 향토 예술의 보급에 기여했으며,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높은 호응도와 참여도를 끌어냈다.

2012년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두번째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프로그램은 이천문화원, 동두천문화원, 오산문화원, 광주문화원이 공동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가 진행을 맡았다.

교육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예절이 다르다는 점을 재미있는 놀이와 공연을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악실내악을 감상하며 올바른 공연 감상법과 공연장에서 지켜야할 에티켓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노래로 배웠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예절의 시작임을 알기 위해 자신의 꿈을 표현하는 꿈나무 장승을 만들었으며, 일상생활 속 상황에서 예절의 필요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전래놀이를 즐기며 친구들과의 예절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2012년 프로그램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수혜 기관 간의 상호 소통을 강조했다. 각 교육 종료마다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 차시 교육에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3년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세번째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에절교육' 프로그램은 이천문화원, 오산문화원이 공동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국악협회가 교육지도서 연구개발에 참여했다.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 강사 양성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각 지방문화원의 주도 하에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도연합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지원망 구축을 진행했다.

교육대상과 인원, 장소 역시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설정했다. 이천문화원과 오산문화원이 각 지역당 15명 이내의 강사를 양성하고, 초등학교 3학년생 25명 내외를 자율적으로 모집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천문화원은 대월초등학교와 사동초등학교의 각 33명, 35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오산문화원은 25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오산문화원 강당에서 2회차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상황 중심의 자기주도적 탐색활동과 소재 중심의 직접적 체험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 예절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천문화원은 '거북'의 의미와 유래, 놀이 과정을 살펴보고 '거북놀이 퍼포먼스'를 체험해 학생들이 전통 문화의 숨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덕 장승'과 '미덕 거북이', '만장' 만들기를 통해 하나의 소재에서 확장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실행을 꾀했다. 오산문화원은 '산가지 놀이', '승경도 놀이', '탈 만들기'를 통한 상황극 체험으로 예절에 관한 추상적 지식 획득이 아닌 예절의 의미와 사회적 필요성을 직접 생각할 수 있는 체험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26 『동화로 읽는 경기도 설화』 발간(2009)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口傳)되어 내려오는 지역의 이야기를 의미한다.

기록으로 내려져오는 것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야기의 특성이 그러하듯 기록된 것보다 재미는 월등하다. 설화는 그래서 지역민을 한데 엮어주는 일종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남한산성, 북한산성, 행주산성 등 다양한 산성이 있다. 짧게는 수 백년, 길게는 수 천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산성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리고 그 산성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효를 주제로 한 민담일 수도 있다. 때로는 산성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역사이면서 동시에 경기도의 문화 자산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원천 문화 콘텐츠 발굴과 활용을 목표로, 경기도 내 곳곳에 있는 '산성'에 얽힌 이야기를 동화집으로 발간했다. 『동화로 읽는 경기도 설화』는 수 천년 된 문화유산을 그저 유산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오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책이다.

책의 서두에서는 경기도 내 산성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이 있다. 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현황, 분포 등 산성이라는 역사유산을 조망할 수 있다. 뒤이어 마련되는 장에서는 각 산성에 얽힌 이야기가 동화로 쓰여졌다. 동화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만들어지는 시대에, 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엮은 이 동화집은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살아갈 지역의 유산을 알아가는 재미있고 쉬운 교과서이자 어른들에게는 추억에 잠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외국인을 위해 영문 해설도 수록하였다. 현재는 다양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과 서로 다른 문화를 두고 소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영문 해설의 수록은 외국인들에게도 경기도의 문화 유산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역사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는 많이 있다. 그런데 산성을 다룬 콘텐츠는 극히 드물 것이다. 있다고 하더라도 정사(正史)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동화로 읽는 경기도 설화』는 산성이 산 중턱 어딘가에 있는 나와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재미나게 살펴볼 수 있는 이웃임을 각인시키는 소중한 시도이다.

향토문화
사업
지원

27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2015~2016)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해 전통민속보존단체 중 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여 전통 민속예술 보존 활동에 대한 지원한 사업이다.



그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민속예술제 및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1, 2위 수상팀에 대해서 매년 보존사업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19개 시군 47개 종목을 지원, 종목당 연간 571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했다. 그러나 이 지원 프로그램은 보조금 지원단체가 매년 2개씩 증가함에 따라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고, 한번 우승하면 매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성상 민속예술제가 본래의 취지보다 과열되는 현상을 낳았다. 따라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대내외 공연 등 전승활동 의지가 있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지원하고자 했으며, 각 시·군에서는 개별적 지원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기존 사업의 개선 과제로 판단했다.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 사업은 양주, 안성, 화성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에는 용인, 파주, 부천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8천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했다. 전년도 대회 입상작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해당 지역문화원이 자율적으로 지원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복 지원이나 부적격 대상에 대한 지원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시작했다. 특히 3년 이상 지원된 사업은 물론 동일 사업 신청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평가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의 단체가 본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6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중 용인문화원 '포곡민속보존회'

28 미등록 무형문화유산 발굴, 전승, 복원 지원(2010)

‘미등록 무형문화유산 발굴, 전승, 지원’ 사업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현 경기학연구센터)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시·도 무형문화재가 아닌 경기도 내의 민속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전승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무형문화재는 전통 공연, 공예, 농경과 어로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적 생활 관습과 사회 의식, 놀이, 축제 등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無形)의 유산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전승과 보전에 대한 지원을 받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가 하면 광역자치단체(시·도)가 관리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이를 시·도지정문화재라 하며 문화재보호법 70조 1항의 내용에 따라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거나 향토문화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한다.



부천시역 '석천농기고두마리'



성남지역 '분당 오리틀 두레농악'



과천시역 '나무꾼놀이'



하지만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유형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비해 그 열과 성이 부족한 편이다. 유형문화재는 실존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이 것의 멸실을 막기 위해 1차적인 보호망 구축이 많이 이뤄져 있는 상태이지만, 무형문화재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깊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중에서 일부 비인기종목의 경우 전수 희망자가 없어 후계의 비존재로 인한 지정무형문화재 등록의 취소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시도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된 무형유산도 멸실되는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하는 민속유산의 수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 무형문화유산 발굴, 전승, 복원 지원' 사업은 제대로 된 관심과 애정 없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경기도 내의 민속유산을 새롭게 발굴하고 후대에 이를 올바르게 전승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양주의 '양주 들노래보존회', 안성의 '조선시대 지방 대장간의 전통도검(환도) 제작기술', 용인의 '백암농악보존회', 성남의 '분당 오리뜰 두레농악', 광주의 '전통전례보존회', 부천의 '석천농기고두마리', 고양의 '도깍대감 지신놀이', 과천의 '나무꾼놀이'가 역사성과 예술성, 학술성 등을 인정받아 지원 받았다.

생활 문화

새롭게 등장한
문화예술 패러다임과의
관계 맺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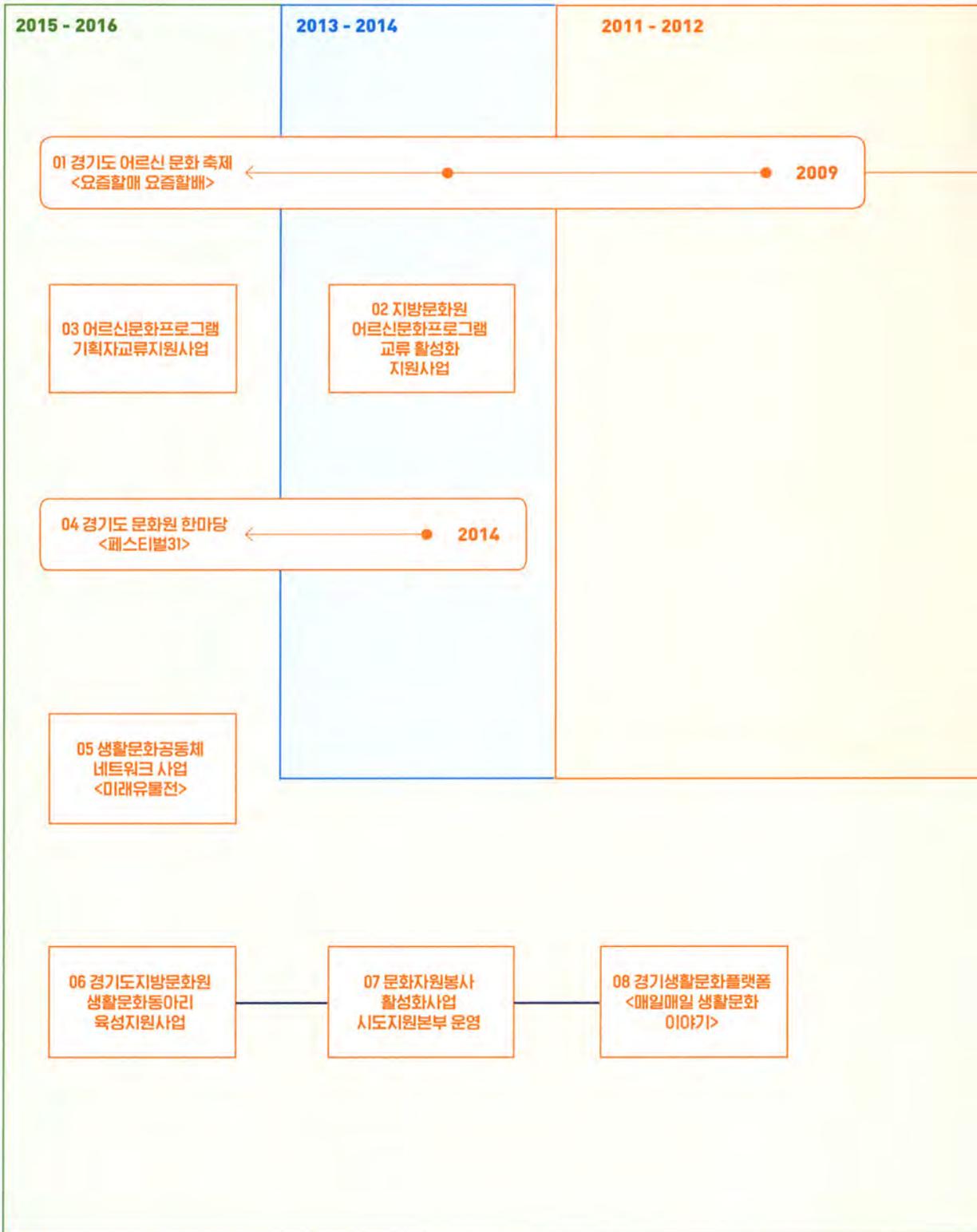
근대 국가 체계가 성립되면서 '시민'의 개념이 확대된다. 국가는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해야 했고, 그 중 하나는 시민이 얼마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노력으로 확대된다.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증가하고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도 증가한다.

그 호기심은 아마도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예술을 '보기만' 해야 하는 거지?" 제도 중심의, 엘리트 중심의 예술에서는 그저 수동적 관객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점차 '하고', '배우는'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가 직접 예술의 생산자로 첫 발자국을 딛기 시작하기에 이른다. 바야흐로 '생활예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학계에서는 '생활예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생활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역시 우리 주변의 '생활문화'를 향유하는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생활문화'의 역사가 일천하고 이를 바라보는 학계와 정책의 시선이 다른 만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마련은 아직 요원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과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어떻게 생활예술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부터 살필 내용은 그 고민의 기록들이다. 여러분들도 함께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생활문화'의 관계 맺기 과정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2011 이전

- 한국문화원연합회 '나이없는날' 사업 (2010)

1 어르신 문화 사업

어르신들의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어르신 문화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나이없는날'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르신 문화사업의 초반에는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재기(才器)를 뽐내는 장을 마련하는 것에 주목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선보이는 축제 뿐만 아니라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기획자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도 진행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어르신들의 주체가 된 문화를 응원하고, 그분들이 인생 2막을 멋지게 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하고 있다.



III 경기도 어르신 문화 축제 <요즘할매 요즘할매>(2012~)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어르신 문화 축제의 역사는 2010년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마련한 ‘나이없는날’로부터 시작된다. ‘나이없는날’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대표 축제 브랜드이다. 당시 ‘나이없는날’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실버세대의 여가 기회 및 사회참여 활동의 확대, 문화향유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진행되었기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비단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광역 단위의 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2012년 <요즘할매 요즘할매>라는 사업명을 정하고 새로운 어르신 문화 축제를 만들었다.

2012년

2012년 12월 23일 진행된 <요즘할매 요즘할매>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발생한 에피소드, 가족들의 소감 등을 영상과 함께 사연으로 소개했다는 점이다. 라디오 공개 방송의 형식을 차용한 축제 진행은 참가자와 관객 간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12개 문화원 13개 동아리가 전통 무용, 밴드, 취타, 인형극,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였다. 그리고 7개 문화원의 동아리가 노끈 공예, 도자기 공예, 매듭 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만든 작품들도 함께 전시했다.



2014년

2014년 열린 두번째 어르신 문화 축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페스티벌31>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경기도의 모든 문화원들이 한데 모여 공연, 전시, 체험 등을 펼치는 축제 속에서 어르신들 역시 당당하게 무대 위에 올랐다.

축제는 24개 지방문화원 어르신 동아리의 공연과 17개 동아리의 전시로, 29개 문화원의 60세 이상 어르신 예술가 430명의 성과를 뽐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6년

2016년 어르신 문화 축제는 권역별어르신성과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환, 16개 시도 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였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공연형 프로그램인 <나이없는날31>, 프로그램 결과물 복합 기획전시형 프로그램인 <실버아트홀31>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또한, 어르신 사업 부문별 우수사례 선정 및 도연합회 차원의 확대·재생산 모색을 고민하는 자리도 있었다.



특히 <나이없는날31>의 인기는 상당했다. 300석의 좌석이 꽉 차고, 서서 관람할 만큼 열기가 뜨거운 공연장에서 어르신 예술가들은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어르신 문화 축제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의 사회적 인지도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성과 발표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노인’이라는 세대의 도전하는 삶과,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6년 포천에서 진행한 복합기획전시형프로그램 <실버아트홀31>

02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2013)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실버 세대(은퇴계층)의 행복한 노후지향을 위한 ‘골든에이지 캠페인’을 펼쳐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나아가 지방 문화원을 노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아마추어 어르신 문화예술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기회를 갖고자 했다. 어르신프로그램 팀(동아리)의 지역적 교류를 위하여 타 지역 프로그램 팀(동아리)과 교류, 공동공연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4개 문화원이 참여했는데 오산문화원 ‘오산실버합창단’ 팀은 전주소리문화축제를 견학하고, 전주문화원 어르신프로그램 동아리와 교류를 진행했으며 포천문화원 ‘포천사랑 문화나눔봉사단’ 팀은 경북 영천문화원과, 이천문화원 ‘풀짚목공예 바람을 실어 기쁨이 일렁’ 팀은 안동문화원과 교류를 통한 공연 확대의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시흥문화원 ‘레전드 잉벌로밴드’ 팀은 강원도 정선문화원과의 교류를 진행하여 정선5일장에서 밴드 공연을 가졌다.

지역 간, 도·농 간 교류를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감소, 어르신 문화활동의 전 범위 전파 및 발전을 계획하였다. 특히 이 사업은 지방문화원이 교류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문화원을 노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



정선5일장에서 공연한 시흥문화원 ‘레전드 잉벌로밴드팀’

03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2015~2016)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은 어르신 문화 사업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 지역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이다. 2013년 진행되었던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의 확장된 형태로, 도연합회는 프로그램의 교류를 넘어 기획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어르신 프로그램 기획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사업은 자문 기구와 컨설팅,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지역 기획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지역 간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써 도연합회의 위상 정립 및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타 지역 기획자와의 교류 추진 및 소속 지역의 경기도 어르신사업 로드맵 작성을 통해 문화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기르고자 하였다.

2015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사업은 지역 문화 전문가 자문회의(7월, 8월, 9월)를 시작으로 기획자 교류 및 방향수립을 위한 콜로키움 형태의 워크숍(8월, 12월)과 사업단체간 상호 모니터링으로 진행되었다.

자문 회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이해 정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진행되는 어르신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향후 프로그램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파일럿 모니터링도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고 기획 및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



2015년 수원문화원에서 진행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1차 워크숍

8월 워크숍에서는 어르신 사업의 담론을 생산하고 정책 로드맵을 공유하여 기획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으며, 사업 내용 및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파티도 함께 열렸다. 기획자 네트워크 파티는 현장에서 어려운 점, 제안 사항 등을 취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 이에 연합회의 기획 방향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2016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6월 사업 기획 및 컨셉 도출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 문화 전문가 자문회의(7월, 9월), 동 프로그램 기획자 교류를 위한 상호 모니터링(8월), 전문가 모니터링(9월), 동 프로그램 기획자 교류 및 방향 수립을 위한 네트워크 워크숍(8월, 10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자문 회의는 단위사업별 분석과 향후 방향, 사업 방향 및 우수사례 도출, 효과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을 위해 총 3차례 개최되었다. 자문 위원은 문화기획자, 컨설턴트, 문학평론가 등 5인으로 구성되었다. 1차 자문 회의에서는 기획자의 관점이나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자교류지원사업의 주제를 선정하고 향후 사업과 모니터링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기획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속 지역의 사업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상호 배움에 대한 의미를 논의하였다. 3차 자문 회의에서는 워크숍과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상호 모니터링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34개 기관과 단체의 실무자 및 기획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1차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모니터링 지역을 조사 및 매칭하고 모니터링 일정을 결정하였다.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사업



2016년 경기문화재단 GAP에서 진행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1차워크숍



계획서를 사전에 검토 후 기획자들의 현장 방문 모니터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장 방문과 참관을 통해 기획자들의 소속 지역에 맞는 사업 구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문가 모니터링은 3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5개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총 5회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의 사업 이해도를 파악하였으며,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어르신프로그램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워크숍은 총 2회 개최되었다. 1차 워크숍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소속 지역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고, 상호모니터링 설계를 위한 특강이 진행했다. 2차 워크숍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로드맵 취합 결과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차년도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획자 간 교류를 중심으로 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6년 서울시 도봉숲속마을에서 진행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교류지원사업 2차워크숍

2 생활문화 축제와 전시



현재의 삶에 기반을 둔 문화를 펼치는 장을 형성하다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의 역사는 사실 '제도로 인정받기 위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절대적 선에 대한 모방이나 재현을 넘어 천재적 예술가의 창조적 행위라는 현대적 개념의 성립이 있기까지 많은 투쟁이 필요했다. 그렇게 수천년의 시간을 내려오며 만들어진 '예술'이라는 것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다. 따라서 '예술' 개념의 공고화 이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예술가로 인정받고,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은 천재가 만든 작품을 그저 소비하는 구조가 절대선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이에 반(反)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 '보는 소비자'에서 '직접 생산의 주체로 나서는 소비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활문화'라고 명명하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 문화의 보존과 전승, 활용을 조직 운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이다. 앞서 살펴본 '향토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 이전의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유산이라면, '생활문화'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기반을 둔 문화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31개 시·군의 문화원과 함께 생활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만드는 생활문화 축제와 전시를 통해 그 모습을 살펴보자.



04 경기도 문화원 한마당 <페스티벌31>(2014~)



행사명	행사 장소	행사일
제 1회 페스티벌31	수원 SK 아트리움	2014.10.31.
제 2회 페스티벌31	광주 남한산성 아트홀	2015.11.24.
제 3회 페스티벌31	포천 반월 아트홀	2016.07.11.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의 문화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의 구성원이 스스로의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자발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축제 브랜드를 만들었다. 바로 '경기도 문화원 한마당 <페스티벌31>'이다.



한 해 동안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무대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31개 시·군 문화원 모두의 잔치이다. 특히, 그동안 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해 활동해왔던 지방문화원들의 노고를 모두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생활문화축제 브랜드이면서 동시에 도연합회의 네트워크 사업이기도 하다.



생활문화동아리와 지방문화원의 성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구성

2014년 첫 선을 보인 <페스티벌31>은 4개 내외의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해 경기도 생활문화의 현주소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내가있는날31’, ‘생각하는손31’, ‘문화원이야기31’ 등이 있다.



‘내가있는날31’은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회원들과 전문 예술가와의 융복합 장르 콜라보레이션 공연이다. 동아리 회원들은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1년 동안 갈고 닦았던 재기를 선보이는데,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전문 예술가와의 협업을 끌어내어 생활문화동아리의 질적 성장을 도왔다.



‘생각하는손31’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완성한 시각적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이다. 지역 자원과 시민의 삶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속에서 생긴 수많은 고민과 이야기를 전시로 풀어내어 관객과 소통하였다.



‘문화원이야기31’은 지방문화원의 역사와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이다. 해당연도 <페스티벌31>을 개최하는 문화원의 역사, 활동, 서적 등을 소재로 전시한다.

위의 세 가지 프로그램 외에도 <페스티벌31>은 매년 조금씩 구성을 달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문화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어르신 문화 동아리의 공연 ‘나이없는날31’(2014-2016)과, 전시 ‘실버아트홀31’(2016)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외치는 경기도 어르신의 문화 저력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또, ‘내가있는날31’ 외에도 지방 문화원 문화예술동아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공연을 선보이는 ‘동아리쇼케이스31’(2015)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손31



문화원이야기31



내가있는날31

경기도 생활문화를 중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

2014년부터 시작된 <페스티벌31>은 매년 주목을 받으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31'이란 숫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함께 하는 31개 시·군 문화원을 상징한다. 도연합회는 이 축제를 통해 지방문화원이 한 해 동안 펼친 활동의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페스티벌31>은 경기도 생활문화에 대한 총체적 경험의 장이다. 생활문화동아리의 활동들을 각각의 공연과 전시를 통해 시민과 회원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페스티벌31> 기간 동안 함께 진행되는 '어르신 문화 축제'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을 유도하고 있다.

<페스티벌31>의 개최는 '역동적'으로 변하는 문화원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화원이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은 '과거'의 흔적만 좇았기 때문에, 고루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피어난 문화예술활동을 선보이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원이 시대와 호흡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05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미래유물전>(2015-)

일시	주제	장소
2015.10.01.-10.07.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천아트홀
2016.10.20.-10.30.	평택, 물로부터 온	평택 뚝다리문화촌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인 <미래유물전>은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자원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전시 브랜드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미래유물전> 개최를 통해 시민과 생활문화 간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전시를 통해 자신의 삶과 다르면서도 유사한 또 다른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자 했다.

또한, 도연합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아우르는 생활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미래의 공동체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에 열린 <미래유물전>의 첫 전시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천 지역에 살고있는 어르신들의 물건을 매개로 사람들의 삶을 조명했다. 어르신들의 공간을 직접 방문하며 구술·채록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사용하기 편리한 물건'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어르신들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은 전시장에 놓여, 시민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2015년 <미래유물전>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존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이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2016년에 열린 두번째 <미래유물전> ‘평택, 물로부터 온’은 남고 못쓰는 공간이라고 인식했던 장소에서 일상의 흔적을 살펴봄에 지역을 이루는 삶의 기록을 살펴보는 전시이다. 평택이라는 공통의 분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삶의 흔적은 ‘물’이라는 이미지로 귀결된다. 물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다. ‘평택, 물로부터 온’은 물과 함께 평택이라는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공동체 속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기시감과 일체감을 끌어냈다.



2016년 <미래유물전> ‘평택, 물로부터 온’

3 생활문화 지원 사업

생활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개별 문화원 차원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광역 단위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활용하여 31개 시·군 문화원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둔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2015년 도연합회가 발간한 '총람'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문화원의 동아리 수는 99개이다. 한 문화원 당 3개 정도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동아리는 도 차원의 일관된 지원이 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부터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광역 단위 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문화품앗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문화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지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본래의 문화자원봉사 취지는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생활문화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든실한 토양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이른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생활문화사업의 지원을 위해 고민하고 실행한 흔적을 살펴보자.



06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사업(2016)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사업’은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과 생활문화 지원 방식의 사업 확대 일로 상황에서 문화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획된 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원은 지역의 향토 문화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왔다. 연합회는 이러한 문화원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고, 재점검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즉, 생활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 31개 시·군 문화원의 동아리 현황과 활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생활문화라는 공통의 콘텐츠를 가지고 활동하는 지방문화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도연합회와 문화원이 함께 경기 생활문화의 미래를 고민하는 속에 정책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굳건하게 다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사업’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연합회는 이 지원 사업을 위해 31개 시·군 문화원과 함께 활동하는 생활문화동아리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지방문화원의 동아리는 문화강좌 운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지역민이 동아리를 결성한 경우도 있었다. 전수 조사 결과, 생활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의 역할은 동아리의 활동 플랫폼임과 동시에 동아리 활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2016년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 동아리 육성지원사업' 설명회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열린 4인4색 간담회(2016년 9월 5일)에서는 ‘도연합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이 실제 현장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활문화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원칙과 방향 설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간담회를 통해 통기타 네트워크, 무형문화재 보존, 전통문화 전승 등의 아이템의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문화원이 생활문화 사업을 전개할 때 특정 동아리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세어 오피스’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인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11월 수원문화원에서 열린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 심포지엄은 간담회의 내용과 그 동안의 사례 조사를 종합적으로 엮는 자리였다. ‘생활문화 활동의 지역거점으로서 문화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5개 문화원(동두천, 용인, 평택, 화성, 의정부)의 활동 사례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이 지원사업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016년 12월에 발간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 사업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문화 향유 방식은 기관 중심에서 지역민 개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미 2004년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시작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지방문화원 대다수는 아직도 시설 중심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중략) 공급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전환으로의 ‘대안 찾기’가 가능할까하는 고민의 시작이다.” 즉, 지역성, 자발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문화원이라는 토양을 바탕으로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경기도 문화원 전체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4인4색 간담회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 심포지엄

07 문화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시도지원본부 운영(2016)



2016년 시행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시도지원본부 운영’ 사업은 지역민 주도의 문화자원봉사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의 향유와 문화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역 내 문화자원봉사의 거점으로 ‘시도지원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현황에 맞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업관리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품앗이안(PUMASIAN)’이라고 명명한 경기지역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바탕에 둔 지역 커뮤니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2016년 사업의 세부적인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4월 사업 기획 단계를 거쳐 8월에는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역 내 문화자원봉사의 거점으로 시도지원본부의 역할과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지역 특유의 문화자원봉사 현황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경기도만의 ‘품앗이안’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10월부터는 시도지원본부 2명, 컨설턴트 1명, 활동처 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했다. 협의체는 본부(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품앗이안을 양성하는 센터(시흥문화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시흥문화원에서 개최된 ‘품앗이안 파일럿 워크숍’



이후 11월 15일 시흥문화원에서 개최된 파일럿 워크숍을 통해, 시흥문화원 13명, 화성문화원 5명으로 구성된 예비 품앗이안을 대상으로 적극적 의미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가로서의 육성을 통한 문화원과 시민 간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

이후 2주간 실제 지역에서 품앗이인들의 활동이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 품앗이 협의체 평가 워크숍을 12월에 진행해 다음 연도 사업 방향을 설정하며 품앗이안 제도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이러한 사업 추진은 단순히 퇴직한 중장년층의 소일거리와 일거리 창출 효과에만 그칠 수도 있었던 사업을 다시 한 번 본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봄을 통해 ‘품앗이안’을 만들고 공동체 유지 및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흥지역 품앗이안이 진행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한마당

08 경기생활문화플랫폼사업 〈매일매일 생활문화 이야기〉(2016)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생활문화플랫폼사업추진단이 주관한 2016 '경기생활문화플랫폼 <매일매일 생활문화 이야기>' 사업은 경기 지역에서 활동중인 생활문화 관련 자원을 활용해 생활문화플랫폼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생활문화플랫폼'이란 '지역의 거점을 활동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이 자리잡아가도록 지지하는 장'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경기 지역의 다양한 생활 문화 관련 단체와 기관들을 생활문화의 지역 거점으로 만들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문화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눈여겨 본 경기문화재단은 함께 사업을 모색할 파트너로 문화원을 선택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의 네트워크 조직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생활문화플랫폼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다.

2016년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져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생활문화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육성했다. 지역의 예술가나 주민들이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를 통해 2단계 사업에서는 일상 속 생활문화 콘텐츠를 이용해 주민들이 생활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이천문화원 '내 생애 첫 번째 술잔'

‘경기생활문화플랫폼 <매일매일 생활문화 이야기>’ 사업을 통해 총 16개 시·군에 생활문화플랫폼이 형성되었다. 그중 남양주(남양주문화원), 의정부(의정부문화원), 이천(이천문화원), 수원(수원문화원), 시흥(시흥문화원) 등 5개 시의 플랫폼은 각 지방문화원이 운영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남양주문화원은 ‘지구마을공작소’ 사업을 운영했다. 다문화 시대에 맞게 각 국가별 다양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둔 프로그램을 진행해, 다문화 주민들이 생활문화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속에 나눔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의정부문화원은 ‘소문나기(소소한 문화 나눔의 기쁨)’를 테마로 걸었다. 의정부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천문화원은 ‘내 생애 첫 번째 술잔’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걸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음주문화를 만들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문화원은 참여자 상호 간 관계를 중심에 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런 건 어때요?’라는 사업명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문화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시흥문화원은 ‘2016 함께하는 생활문화’라는 주제를 걸고 진행했다. 다문화 생활요리, 서각으로 문패 만들기, 우리춤 건강체조와 경교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열었다.



남양주문화원 '지구마을공작소'



시흥문화원 '2016년 함께하는 생활문화'



'경기생활문화플랫폼 <매일매일 생활문화 이야기>' 를 위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의집협회의 세 단체가 모여 상호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공동사업추진단을 결성했다. 사업추진단은 16개 지역의 플랫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했으며, 특히 4개 권역별·현장 방문형 컨설팅을 통해 각 지역의 생활문화플랫폼이 보다 내실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생활문화라는 용어가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지는 아직 오래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활문화가 도대체 무엇이나?"는 질문을 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방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낮은 문턱의' 생활문화플랫폼이 많이 형성되는 것은 생활문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 시점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기생활문화플랫폼 <매일매일 생활문화 이야기>' 는 지역을 문화적으로 읽고, 지역의 일상 공간을 문화를 생산하는 기지로 바꾸는 노력을 했다. 이를 통해 일상의 문화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문화를 통한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사업의 의미는 무엇일까? 문화원은 오랜 세월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으며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안정'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보니, 외부 사람들은 문화원의 사업을 '관행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따라서 문화원을 이용한 생활문화플랫폼을 형성하는 작업은, 마치 '문화원 2.0'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문화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각 지방문화원은 '생활문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욱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문화원 '소문나기(소소한 문화 나눔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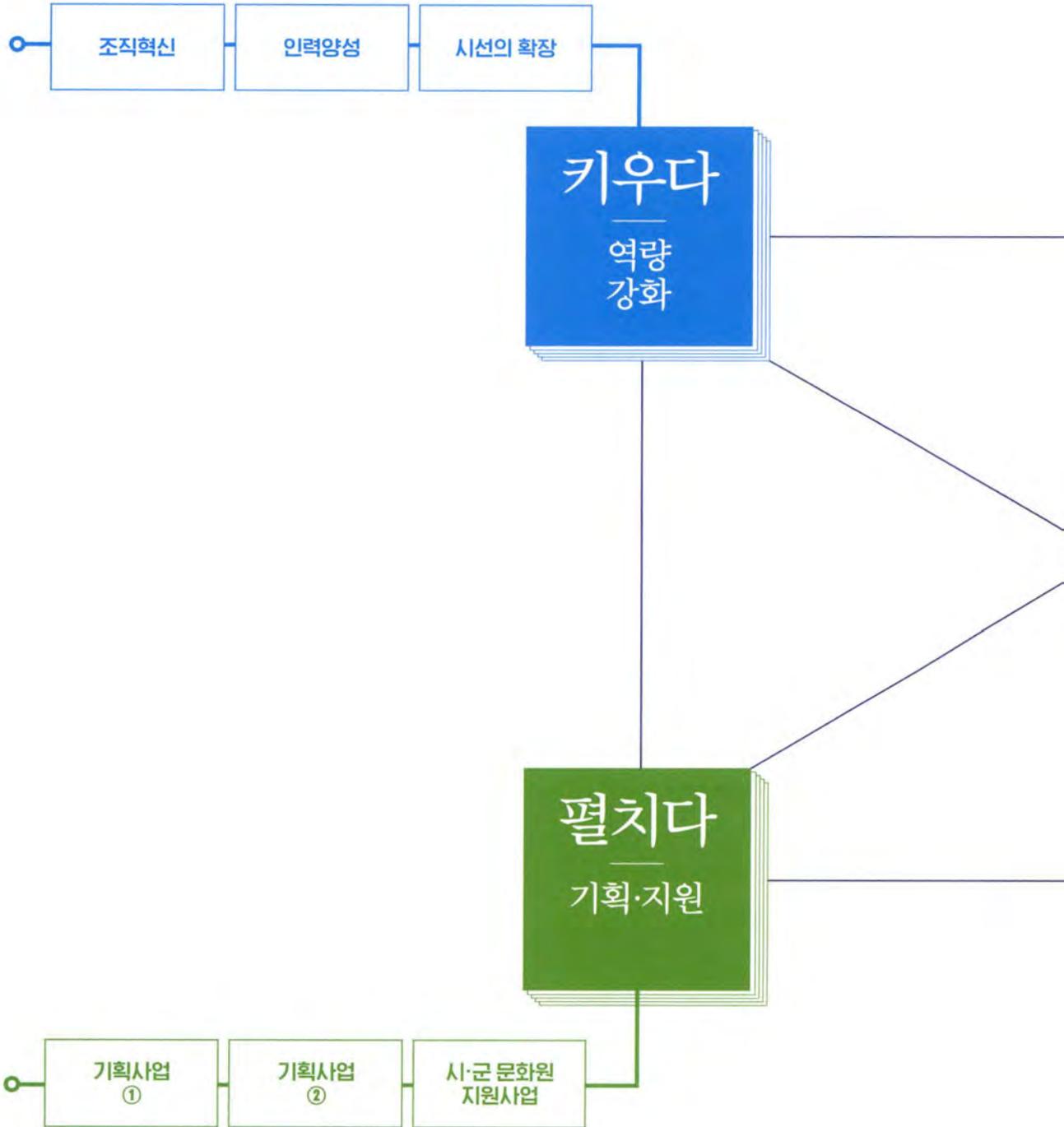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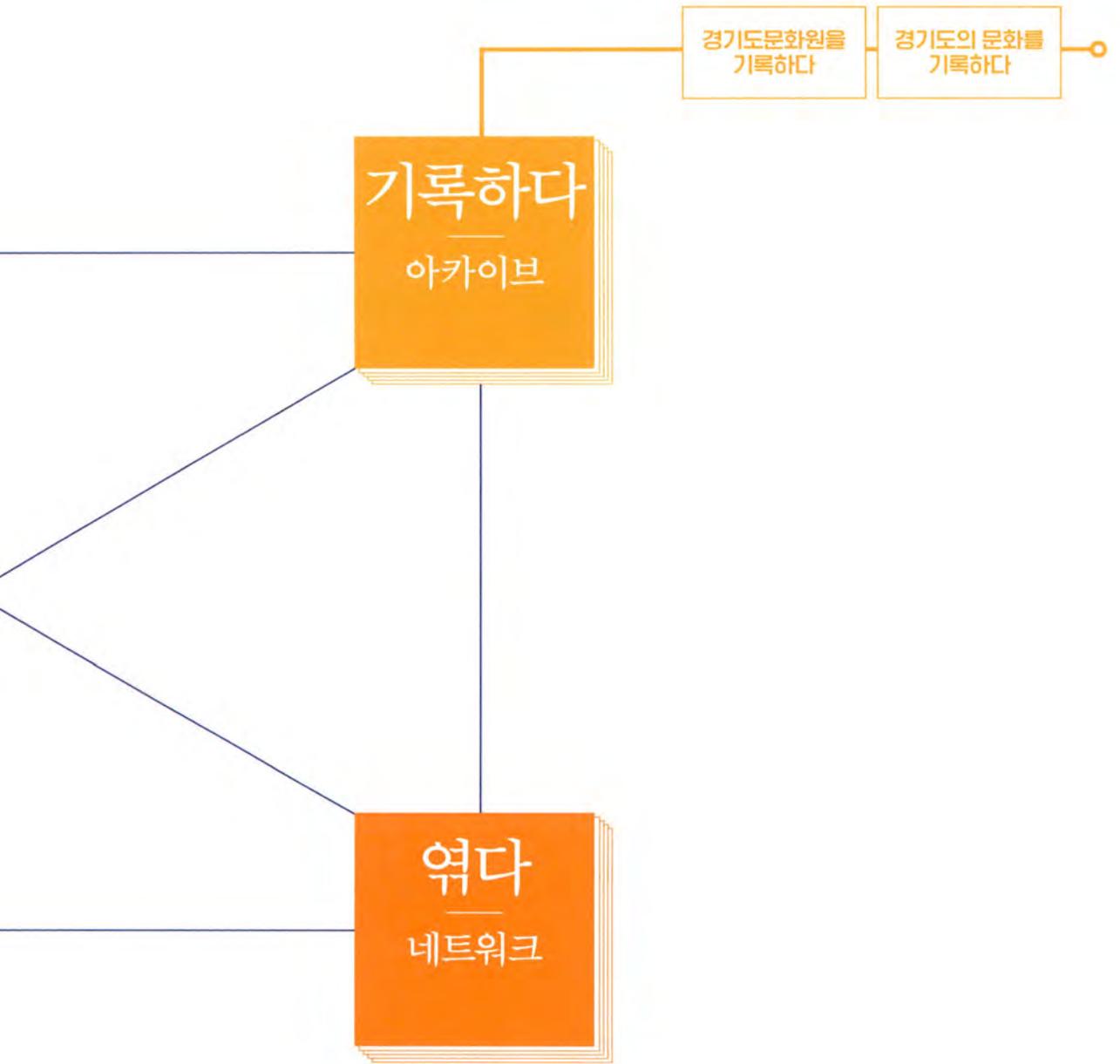
수원문화원 '이런 건 어때요'

chapter

2

키워드로 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네 개의 키워드,
네 개의 문화씨앗





키우다



우



- 조직혁신
- 인력양성
- 시선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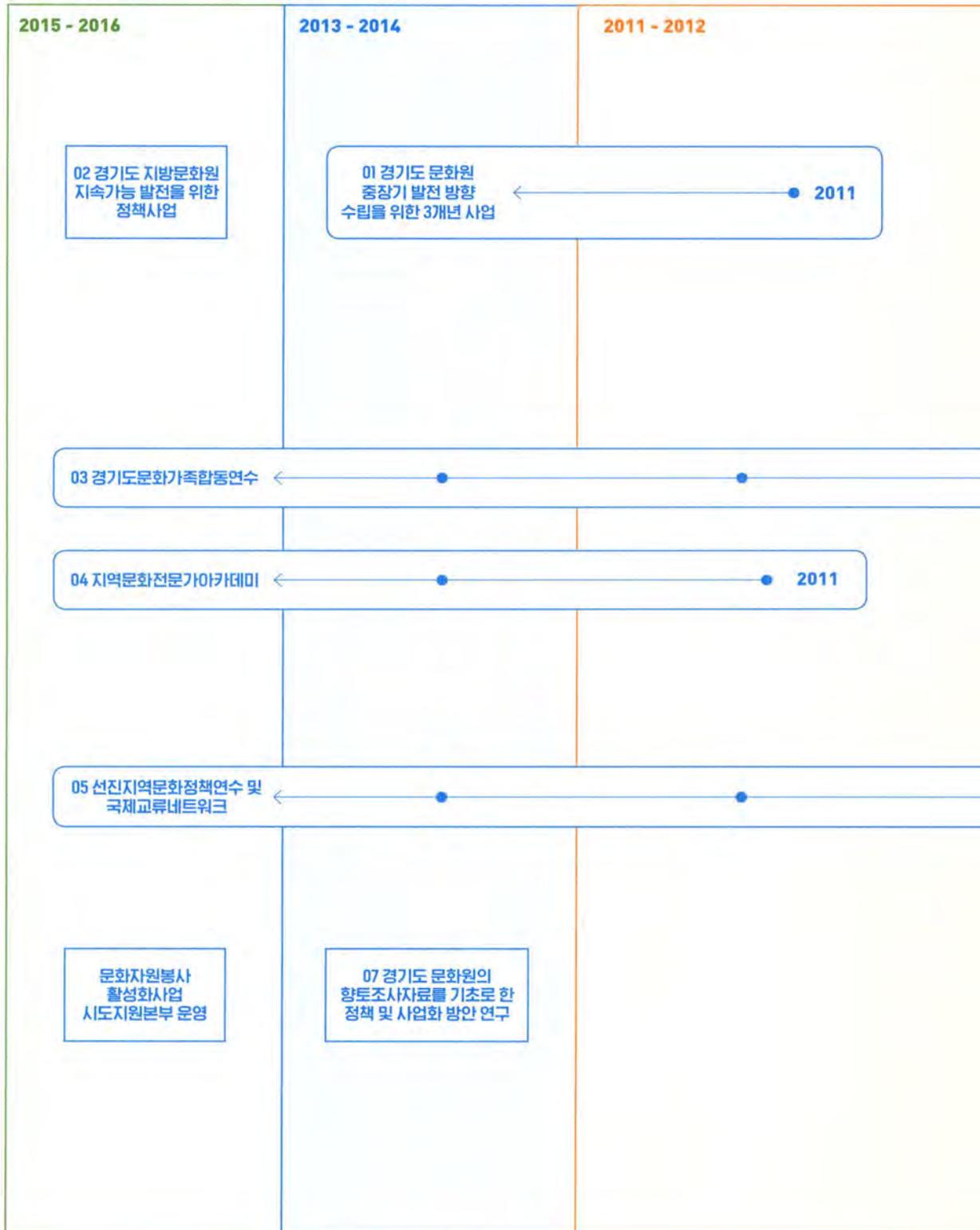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과 도연합회는 짧지 않은 역사를 거치며 많은 사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문화원 조직은 한정된 예산, 부족한 인력으로 외부 변화에 다소 둔감하고 조직 운영의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평을 들어왔다. 또한, 직원 상호 간 소통의 부족과 개인의 역량 차이 역시 문화원 조직의 한계였다. 그러나 문화원의 인력은 누구보다도 해당 지역 문화를 조사·연구·지원하는데 있어 달인이다. 이들의 역량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다면, 문화원은 예전의 고루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조직의 '내일을 그리고',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것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역량 강화'의 포인트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도연합회의 방향을 고민했다.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을 거듭했다. 도연합회를 키우는 일은 경기도의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 사업의 콘텐츠를 만드는 기본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연합회는 조직의 성장을 위해 바깥으로 눈을 돌렸다. 경기도 각각의 지역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내고, 해외의 사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도연합회의 방향성 찾기를 시도했다. 내부에만 갇혀 있으면 고인 물처럼 썩어날 수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외부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조직을 키웠다.



2011 이전

도내사무국직원
컴퓨터위탁교육

● 1998

06 경기문화발전세미나

● 1997

연계사업

05 향토문화유적답사

05 문화유적학술조사

조직 혁신

생활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조직의 목표 지점을 다시 세우고 그에 따라 도연합회의 내일을 고민하는 두 가지 혁신안을 마련하였다. 첫번째 혁신안은 2011~2013년에 진행한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3개년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역사상 최초로 지방문화원의 현실을 조사하고 각 문화원의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고민한 결과이다.

2014~2016년에는 한층 성숙한 고민을 했다. 이 시기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대외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2016년의 '경기도 문화원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은 도연합회의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던 두번째 혁신안 도출 과정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조직을 튼튼하게 만든 혁신 작업을 통해, 도연합회가 어떻게 자신들의 역량을 키웠는지 살펴보자.



01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3개년 사업 (2011~2013)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연합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다. 그 고민은 ‘근대적 문화지평을 넘어 현대적 문화지평에 발을 딛고 서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문화원의 활성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각종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화원 발전’이라는 목표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시작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3개년 사업’은 도연합회가 선두에서 서서 경기도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첫 발을 내딛는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과 과제가 우선적으로 정해졌다.

원칙

- 01 지방문화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때는 정량적 평가를 넘어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이를테면 조직과 법적, 사업의 추진 과정, 직원의 처우, 시민과의 관계 형성 등 각 지방문화원이 당면한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이를 근거로 해 발전방향을 세운다.
- 02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분석과 평가를 할 때는 해당 사업이 현재 시대적, 문화적 흐름에 있어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향 도출 시 실질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컨설팅 과정을 포함시킨다.
- 03 전문가 중심의 연구진이 아닌 지방문화원 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논의구조를 지향한다.
- 04 사업 실행의 과정은 각 지방문화원의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전개함으로써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한다.
- 05 수요와 요구를 적절하게 파악해 각 부문 별로 확실한 아젠다(Agenda)를 도출하고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단기, 중장기 발전방향을 각 문화원장들과 함께 고민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결정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한다.

과제

- 01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의 전면적 개편
 - ① 지방문화원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② 소통의 구심체
 - ③ 도 차원의 문화정책과 각 시군별 문화정책 간 접점 형성
- 02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
- 03 연합회 단독사업을 최소화하고, 도연합회와 각 시군문화원 간의 협력사업을 확대

1차 사업연도(2011)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을 생각하다

2011년 3월,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문화원 중장기 발전 방향수집을 위한 경기도 사무국장 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를 통해 도연합회가 지방문화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TF팀은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를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정량적 데이터 수집과 더불어 정성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 각 지방문화원의 실태와 공과를 영역별, 유형별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도 문화원 공동의 비전과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 조사의 핵심 내용이었다.

6개월간의 실태 및 요구조사는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고, 행정 및 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사업 개발과 운영의 현황과 정책적 고려사항,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서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연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이어가야 할 지에 대한 4개 집중 키워드와 경기도 지방문화원 주요사업의 카테고리가 도출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개 집중 Key-word

조직과 법제
문화예술교육
축제와 문화사업
향토문화연구 및 네트워크

경기도 지방문화원 주요사업의 카테고리

마을만들기 사업
문화원형 연구, 조사 사업
지역적 특수성에 근거한 지역브랜드화 사업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을조사사업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 방향 수집을 위한 TF팀 1차회의

2차 사업연도(2012)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아젠다를 만나다

2차 사업연도는 전년도 TF팀의 활동과 요구 및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4개의 키워드를 보다 구체적인 아젠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 4가지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의하며 정리되었다.



조직과 법제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을 중심으로 지방문화원의 조직 및 재정 운영 방식에 있어 도출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했다. 조직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회원 관리', '임원',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을 논의했다.

재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재정 관계 정관 규정을 살피고, 실제 사례를 탐구했다. 이를 통해 빈약한 자체 수입 재원으로 인해 지방문화원 수입의 70~90% 이상이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시군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재정(세입)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건의했다.

문화예술교육

문화원은 전통문화와 향토사라는 독점적 영역을 갖고 있지만 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은 다양성이 없고 수동적인 강좌 위주로 인해 문화 소비자의 변화,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문화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반면 문화원은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지 않음을 반성했다.

이를 통해 문화원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업 운영의 목적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문화 강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며, 과거를 반추하는 전통문화 강좌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강좌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다. 또한 1차적 기능 습득이나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이 필요함을 파악했다.

축제와 문화사업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축제와 문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목표와 컨셉을 가진 축제가 있는 반면 동시대의 문화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지루한 축제가 있다는 현실을 파악했다.

특히 문화원은 비영리 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화적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작은 규모의 지역축제나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지역민의 입소문과 공감을 얻지 못해 문화원만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적 흐름을 읽어내는 것을 기초로 지역민이 원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결국 '문화원 다운 축제와 사업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향토문화연구 및 네트워크

향토사업과 문화원은 델레아 델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각 지방문화원은 규모나 예산의 차이를 보이지만 각 문화원 사업에 있어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윤종준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은 성남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 운영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향토문화연구소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의 향토자료를 가장 잘 연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와 문화원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는 단순히 성남문화원만의 사례가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넓게는 전국의 향토문화연구소들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향토문화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3차 사업연도(2013)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다



2개 사업연도에 걸친 조사와 아젠다 수립의 과정은 마침내 3차 사업연도에 이르러 경기도문화원연합회만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2013년 12월, 『경기도지방문화원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3개년 사업 결과보고서』를 통해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실현함을 통해 경기도라는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연합회를 운영하자고 결의한다.

세계화에 따른 문화영역의 과제 변화,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 멀티미디어 2.0 시대에 발맞춘 변화,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행정 스타일 분석 등 외부적 환경을 분석함과 동시에 문화원 내부의 역량을 분석하였다. 문화원은 전통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유하는데 있어 지역문화행정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조직 네트워크를 갖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 발전계획의 부재와 불안정한 조직과 재정 운영, 지역 간 격차, 진부한 이미지 등은 문화원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원에 대한 대내외적인 분석은 “우리 사회가 성숙사회를 지향하는데 일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지역문화운동을 통하여 전체 지역 사회를 삶의 에너지로 약동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단계로 연결되었다. 이 시점에서 ‘조직 차원의 과제’와 ‘사업 내용 차원의 과제’가 만들어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 차원의 과제

- 조직안정화와 발전 촉진
- 수익성 제고와 조직능력 개발
- 직원 전문성 제고
- 중앙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 지원
- 지역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교류와 공동사업화
- 회원 대상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활용
- 유관단체와 협업 증대

사업 내용 차원의 과제

- 오래된 이미지에서 벗어난 사업 다양화
- 전통 지역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창조적 재해석
- 창의력과 공감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 약자와 문화소외층을 위한 지원
- 기업연계 지역 문화 프로젝트 시도
- 지역특성화 콘텐츠 사업
- 문화예술교육사업
- 복합형 사업

시대와 사람, 관계를 이해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중장기 발전 방향

어느 조직이든 시대가 변하면 그 변화에 발맞춘 내실 있는 혁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원 역시 각종 연구와 포럼을 통해 변화된 시대에 발맞춰 문화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난 수년간 지속해왔던 연구들이 논의만 있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는 것을 반성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3개년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키워드를 도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모색했다. 이런 고민의 결과는 해당 연구 사업 진행 이후 달라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사업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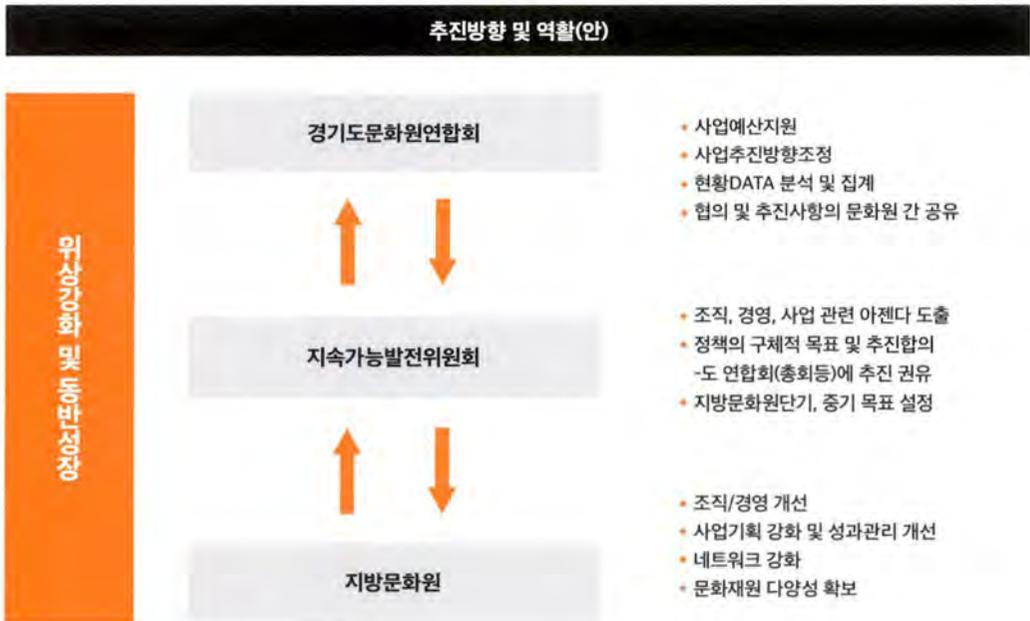
2012 '경기도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

02

경기도 지방문화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2016)

'경기도 지방문화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은 2011년부터 3개년간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통해 마련된 4개 아젠다를 중심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 지방문화원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진행한 정책사업이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닌 옆과 뒤를 돌아보고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는 작업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 정신에 맞춰 문화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 사업은 조직과 경영의 선진화, 사업추진 역량의 선진화라는 두가지 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을 통해 만들어진 4개 아젠다가 그저 '말의 상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정된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고자 했다. 또한 각 문화원의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재원구조를 다양화하고자 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방향 및 역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차 회의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정관에 의해 마련된 총회와 운영위원회처럼 연합회장과 각 시·군문화원장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 또한 문화가족합동연수와 같이 전 구성원이 더 나은 문화원을 만들기 위해 미래상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자리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만으로는 보다 담대한 목표 설정과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연합회 발전의 구체적인 목표와 각 시군문화원의 단·중기 사업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도연합회는 전체 그림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사업의 방향을 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문화원 간 공유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역할로, 시군문화원은 조직과 경영의 개선을 통해 사업 기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발전상을 제시하였다.

2016년 한 해 동안 마련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혁신을 통해 2016년 1월 열린 제18차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에서는 조직·경영 선진과 사업 추진 역량의 선진화 방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앞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각 시군문화원이 따로국밥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인력 양성

문화원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다

이제 문화원은 옛 기억이 담긴 지역의 민속유산을 보존하고 향유하는 것에만 힘을 쏟지 않는다. 옛 기억과 추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연결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막중한 일을 수행하는 문화원의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전문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도연합회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다.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과 도연합회 구성원 모두가 모인 연수를 통해 경기도 문화원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다. 또 직원을 지역문화전문가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역문화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에 힘썼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진행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이를 통해 연합회가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과 함께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03

경기도문화가속합동연수(1998~)

‘경기도문화가속합동연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문화원 임직원, 그리고 도연합회 구성원이 모두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업을 모색하는 자리다. 1998년 경기도내 지방 문화원 직원 연수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열린 합동연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회차	사업명	장소 일정
1998	제1회	경기도내 지방 문화원 직원 연수	김포군문수산산림욕장 6/26~6/27
1999	제2회	경기도내 문화원 임직원연수	포천산정호수가족호텔 6/17~6/18
2000	제3회	경기도내 문화원 임직원연수	용인양지파인리조트 4/7~4/8
2001	제4회	경기도내 문화원 임직원연수	여주남한강일성콘도 4/20~4/21
2002	제5회	경기도내 문화원 임직원연수	시흥시동서증권연수원 4/19~4/20
2003	제6회	경기도내 문화원 임직원연수	화성시라비드리조트 4/18~4/19
2004	제7회	경기도내 문화계 합동연수	라비드리조트 4/22~4/23
2005	제8회	경기도내 문화계 합동연수	수원시영통구나프리카호텔 6/2~6/3
2006	제9회	경기도내 문화계 합동연수	화성시라비드리조트 11/9~11/10
2007	제10회	경기도내 문화계 합동연수	한화리조트 11/8~11/9
2008	제11회	경기도내 문화계 합동연수	양평한화리조트 11/20~11/21
2010	제12회	경기도문화가속합동연수	용인금호인재개발원 11/4~11/5
2011	제13회	경기도문화가속합동연수	양평kobaco연수원 11/17~11/18
2012	제14회	경기도문화가속합동연수	경기도안성시너리굴 문화마을 11/7~11/8
2013	제15회	경기도문화가속합동연수	가평군좋은아침연수원 11/21~11/22
2014	제16회	경기도문화가속합동연수	안산시중소기업연수원 12/19
2015	제17회	경기도문화가속합동연수	여주시한국노총중앙교육원 12/18
2016	제18회	경기도문화가속합동연수	경기도양평문화원 12/9



제1회 '경기도 지방문화원 직원 연수'



제18회 '경기도문화가속합동연수'

도연합회부터 시·군 문화원에 이르기까지 경기도문화원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임직원과 회원들은 경기 지역문화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는 경기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합동연수가 단순한 활동보고대회에서 그치지 않도록 연수 참여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신선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질 개선에 나섰다. 2012년부터는 참여자 전체가 동일한 강의를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장 및 직원, 이사 및 회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 방식은 2014년 합동 연수부터 '4색 섹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다. 문화원장, 사무국장, 직원, 회원을 위한 맞춤형 강연과 아젠다 토론을 진행하여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에서 보다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을 숙고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제15회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中 초청강연

01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2011~)

연도	회차	장소 일정
2011	경기도지방문화원직원실무연수	충남태안풍경리조트 4/14~4/15
2012	경기도문화원직원연수	제주서귀포시 4/19~4/21
2013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경기도문화원직원, 사무국장연수)	수원화성사랑채 5/30~31 경기창작센터 9/4~9/5
2014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경기도문화원직원, 신입직원, 사무국장연수, 마스터플랜수립)	홍국생명연수원 4/10~4/11 경기문화재단강의실 4/15 홍국생명연수원 4/17~4/18
2015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경기도문화원직원, 사무국장연수)	평택한국소리터 3/30~3/31 원주오크밸리리조트 4/6~4/7 수원호스텔 12/3~12/4
2016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경기도문화원직원, 사무국장연수)	인천청소년수련관 4/7~4/8 광주아르헨펜션 6/23~6/24 용인파인타운 11/17~11/18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2011년, ‘경기도 문화원 직원 실무연수’를 개최한다. 문화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역문화 활동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가 큰 틀에서 경기도문화원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라면, 직원 실무연수는 활발한 토론을 거듭하며 각 문화원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지식 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자인 사무국장과 직원이 일상 업무의 장이 아닌 외부 환경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문화원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일을 그렸다.



2016년 인천에서 진행한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직원연수

2013년에는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직원 연수와 사무국장 연수 두가지 축으로 나눠 진행하게 된다. 직원 연수에서는 '렉처 콘서트'와 '네트워크 파티'가 열렸다. '렉처 콘서트'가 문화기획의 실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방식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이라면 '네트워크 파티'는 문화원 종사자로서 느끼는 희노애락을 모두와 공유하며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더 나은 문화원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

2014년에는 신입 직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추가로 마련되었다. 문화원이라는 조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 신입 직원들이 각 지역의 문화활동가로 활동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 개발이 이뤄진다.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탁월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직원 연수 프로그램과 사무국장 연수 프로그램으로 나눠 내실있는 진행을 꾀하고 있다. 변화하는 문화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지방문화원의 직원이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 지역문화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인 지역문화의 활동가, 매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문화아카데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역량강화 정책이다.



2014년 흥국생명연수원에서 진행한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직원연수



시선의 확장

문화원 바깥으로 눈을 돌리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을 누르고 압박하는 옥상옥 조직이 아니다. 지방문화원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수록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결국 내외부적 환경과의 끊임없는 소통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필수 사업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난 30년간 다양한 문화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며 소통과 협력을 시도했다. 각종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지역의 사례를 파악하며 이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개방적인 사고로 받아들였다. 또한, 각종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합회의 발전 방향을 고민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구하는 소통은 단순히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이렇게 시선을 확장하며 스스로의 힘을 키웠다.



05 답사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 세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했던 향토문화유적답사,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했던 문화유적학술조사, 199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교류네트워크(구 해외문화유적답사)이다.



1995년 '향토문화유적답사' 평가 간담회



1999년 남양주에서 진행한 제5회 '향토문화유적답사'

향토문화유적답사는 문화원장, 사무국장,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등 경기도 내 문화가족 20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문화유적을 탐방하여 역사와 유적 속 사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경기학 연구를 위한 아카이브를 축적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고양시(1회), 연천군(2회), 구리시(3회), 수원시(4회), 남양주시(5, 11회), 파주시(6회), 김포시(7회), 안성시(8회), 여주시(9회), 광주시(10회)를 돌며 경기 지역의 역사적 향취를 살폈다.

향토문화유적답사 (1995~2005)

연도	사업명	장소 일정
1995	제1회 향토문화유적답사	고양시 12/21
1996	제2회 향토문화유적답사	연천군 12/3
1997	제3회 향토문화유적답사	구리시 아차산 11/20
1998	제4회 향토문화유적답사	수원시 4/29
1999	제5회 향토문화유적답사	남양주 4/23
2000	제6회 향토문화유적답사	파주시 문향의 길 코스 4/21
2001	제7회 향토문화유적답사	김포시 5/11
2002	제8회 향토문화유적답사	안성시 10/11
2003	제9회 향토문화유적답사	여주시 5/16
2004	제10회 향토문화유적답사	광주시 남한산성, 천진암, 조선관요박물관 5/28
2005	제11회 향토문화유적답사	남양주향토사료관, 다산유적지, 홍유릉



문화유적학술조사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타 지역 문화유적 답사를 통해 연구위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향토문화 연구위원이 경기도 지역에 한정된 연구가 아닌 문화권 단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안목을 넓혔다. ‘문화유적학술조사’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회부터 3회 답사까지는 ‘국내문화유적답사(백제문화권)’라는 이름 아래 백제문화권을 살폈다. 충북 단양(1회), 충남 예산과 서산(2회), 충남 공주와 부여(3회)를 방문했다. 4회부터는 ‘실학 유적 학술조사’로 이름을 바꾸고 ‘애민’과 ‘실용’으로 대표되는 실학 정신의 흔적을 살폈다. 이후 전남 남원과 고창(6회), 경북 경주(7회), 전남 강진과 해남(8회), 강원 강릉과 동해·정선(9회) 등을 방문했다.

문화유적학술조사 (1997~2005)

연도	사업명	장소 일정
1997	제1회 국내문화유적답사(백제문화권)	충북 단양 5/21
1998	제2회 국내문화유적답사(백제문화권 학술조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서산시 5/26
1999	제3회 학술조사(경기향토문화연구소, 백제문화권학술조사)	충남공주, 부여 5/20-5/21
2000	제4회 학술조사(제4회 실학유적 학술조사)	경기, 충남, 대전지역 6/8-6/9
2001	제5회 실학유적 학술조사	경상북도 안동, 영주, 예천, 봉화 6/8-6/9
2002	제6회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라남도 남원, 고창 6/7-6/8
2003	제7회 문화유적 학술조사	경상북도 경주 5/29-5/30
2004	제8회 문화유적 학술조사	강진, 해남 4/29-4/30
2005	제9회 문화유적답사 및 학술조사	강릉, 동해, 정선 10/11-10/12



2005년 강원도 일대에서 진행된 '제9회 문화유적학술조사'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교류네트워크는 1997년 고구려 문화권 탐방을 위해 중국 지역을 방문한 '해외문화유적답사'를 시작으로 매해 꾸준히 개최되었다. 앞의 두 답사 프로그램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국내 문화유산을 돌아보고 도연합회 부설 연구소 및 각 문화원 향토문화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진행된 답사라고 할 수 있다.



제10회, 11회 '해외문화탐방 및 유적지 탐방'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교류네트워크 (구 해외문화유적답사)

연도	회차	사업명	장소 일정
1997	1	해외문화유적답사	중국 심양, 통화, 집안, 장백산, 길림, 장춘 8/5~8/12
2000	2	해외문화유적학술조사	일본 대마도 8/1~8/3
2001	3	해외문화유적학술조사	중국 8/1~8/3
2002	4	해외문화유적학술조사	일본 오사카, 나라, 교토, 히라카타시 9/6~9/9
2003	5	해외문화유적학술조사	몽골 지역 7/24~7/28
2004	6	해외문화유적학술조사	중국 산둥 지역 8/19~8/23
2005	7	해외문화유적답사 및 학술조사	중국 고구려 유적 8/17~8/21
2007	8	해외문화체험 및 유적지탐방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7/2~7/8
2008	9	해외문화체험 및 유적지탐방	터키 7/14~7/23
2009	10	해외문화체험 및 유적지탐방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7/6~7/14
2010	11	해외문화체험 및 유적지탐방	이집트, 두바이 5/10~5/19
2011	12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교류네트워크 (해외문화유적지탐방)	프랑스 아비뇽 7/6~7/14
2012	13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교류네트워크 (해외문화유적지탐방)	일본 홋카이도 일대 6/12~6/16 일본 나오시마섬 및 교토 일대 6/26~6/30
2013	14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교류네트워크 (해외문화유적지탐방)	중국 북경 일대 7/3~7/6 중국 서안 일대 10/30~11/3
2014	15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교류네트워크 (해외문화유적지탐방)	일본 북해도 6/17~6/20 싱가포르 7/17~7/21
2015	16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교류네트워크 (해외문화유적지탐방)	대만 일대 6/23~6/26 상해/항주 일대 11/10~11/13
2016	17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교류네트워크 (해외문화유적지탐방)	일본 9/28~10/1, 동유럽 11/1~11/9 대만 일대 11/22~11/25

이 경향은 2005년 ‘향토문화유적답사’와 ‘문화유적학술조사’가 폐지되고 해외답사가 도연합회가 운영하는 답사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면서 강화된다. 눈에 띄는 것은 2009년 개최된 제10회 답사 ‘해외문화체험 및 유적지 탐방’에서 <경기도 문화원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점이다. 당시 답사를 통해 북유럽 4개 국가(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하던 중 개최된 토론회는 문화원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자생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답사 프로그램 및 도연합회의 사업이 과연 도연합회의 정책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반성 어린 회고도 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지역의 ‘도시재생’ 사례와 ‘마을만들기’ 사례를 주목하고 일본 지역의 기획자들과 네트워크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제15회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교류네트워크' 사무국장 연수 중 비에이마을 관계자 간담회

해외답사 프로그램은 2011년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교류네트워크'로 개칭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먼저 답사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을 '타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와 문화원 정책 들여다보기'로 분명하게 선언했다.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 역시 단순히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관광, 전람회 답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답사 성격에 맞게 참여 인원을 구분해 답사에 참여하는 인원들 간의 내실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도왔다.



지금까지 돌아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일차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문화원을 둘러싼 지역적 환경과 문화유산을 돌아보고 '향토문화의 보고'라는 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도연합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다 실용적인 진행을 위해 과감히 답사 프로그램의 수를 통폐합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문화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결국 이러한 답사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도연합회는 문화원 바깥으로의 시선 확장을 통해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2016년 일본 아와지시마 기획단연수

06

경기문화발전세미나

연도	회차	사업명	장소 일정
1996	1	경기문화발전세미나	경기도문예회관 국제회의장 10/8
1997	2	경기문화발전세미나	경기도문예회관 국제회의장 6/27
1998	3	경기문화발전세미나	성남시 한국가스공사 국제회의장 6/9
1999	4	경기문화발전세미나	김포시 여성회관 대강당 11/10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 4회 개최된 ‘경기문화발전세미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더 나은 지역문화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고 도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자리이다.

1996년 열린 첫번째 경기문화발전세미나는 ‘바람직한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차원의 관광상품화 방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기업의 참여’라는 세 가지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그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축적한 경기 향토 문화 아카이브 및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용적 분석과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첫 회 세미나 뿐만 아니라 경기문화발전세미나 진행과정인 4년 전체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경기문화발전세미나는 ‘경기도 문화정책의 반성과 발전 방향’,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수도권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열렸다. 19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 2년을 돌아보며, 중앙집권 체제 아래에서 제대로 독창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경기문화’라는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6년 제1회
'경기문화발전세미나'



1997년 제2회
'경기문화발전세미나'

1998년 '경기문화발전세미나'의 발제는 문화원에 포커스를 맞췄다. '지역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 정책 방향', '지역문화원과 문화의 집 운영의 연계방안', '지역전통문화 보존육성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이라는 발제를 통해 문화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문화원이 어떻게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이 이어졌다.

마지막 세미나는 김포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전통문화를 어떻게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 할 것인가를 두고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 민속예술 축제의 발전방향', '경기도의 민속 예술과 관광사업의 연계', '전통문화의 현대적 수용과 한계'와 같은 발제 주제가 이를 말한다. 특히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민속예술제'가 어떻게 하면 도민의 사랑을 받는 열린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라는 이름에는 천년의 역사가 있다. 그 역사 속에서 생겨난 많은 인물, 민속, 유적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명맥을 이어오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다. 콘텐츠는 차고 넘친다. 문제는 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제대로 사용한다면 많은 사랑을 받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외면 받을 것이다. 천년의 경기 문화를 가꾸고 활용하며 도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한 경기문화발전세미나는 이름 그대로 경기도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 소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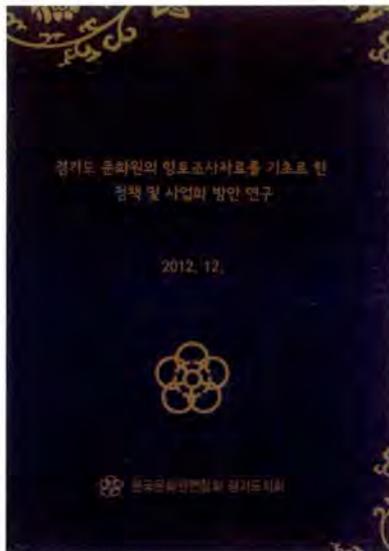
07

경기도 문화원의 향토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정책 및
사업화 방안 연구(2012)

중앙 중심의 천편일률적 정책은 지역 상황에 적용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이제는 지역으로 눈을 돌려 그 지역에 꼭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이런 시대 변화를 바탕으로 두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바로 지역의 고유문화자원과 지역 사람들의 생활문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산을 활용해 지역문화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생활 속의 예술을 확대하는 것이다.

문화원은 이러한 사회·정책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생활문화와 향토문화의 발전 방향을 고르게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지역문화의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문화원의 향토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정책 및 사업화 방안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원이 향토자료를 보존·전송하는 것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경기 지역의 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고, 사업화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된 연구 사업이다.





경기도문화원의 향토 사업 현황

이 연구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에 발간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이용하여 경기도 문화원의 기본 운영현황과 회원, 이용자, 인력, 사업의 현황 등을 분석해보았다. 문화원을 이용하는 주 계층은 고학력 은퇴자(전체 이용자의 60%)이며,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을 위해 주부들도 상당수(전체 이용자의 30%)라는 점을 살필 수 있었다.

경기도 문화원이 2012년 한 해 동안 운영한 사업은 994개이며, 이 중 문화강좌(문화학교)가 449개(전체 사업의 45.2%)로 가장 많았다. 서예(미술), 경기민요(음악), 풍수와 지역사(인문학) 등의 내용을 가진 강좌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즉 문화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일종의 문화예술 교육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화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역문화 및 역사유산 기반의 향토사 자료를 축적한 노력이 있다. 그러나, 문화원의 현재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연구의 내용이다.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이용자, 발간 사업에 치중한 향토 사업의 모습은 ‘젊은 문화원’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가왔음을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향토문화자료 활용 방안 및 정책사업
연계직접 모색

그렇다면 문화원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할까? 연구는 지역의 자기 정체성 확보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원이 추진한 향토문화 사업은 지역의 역사를 축적한 소중한 노력이지만, 문화원은 조사와 발굴 단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는 향토문화자료를 지역 브랜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는 문화원이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공간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얼굴을 맞대는 문화 전문 인력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문화 전문 인력이 지역의 향토문화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 이 길이 바로 앞으로의 문화원이 향토문화사업에서 추진해야 할 포인트라고 연구는 말하고 있다.



향토문화자료 활용 사업의 전략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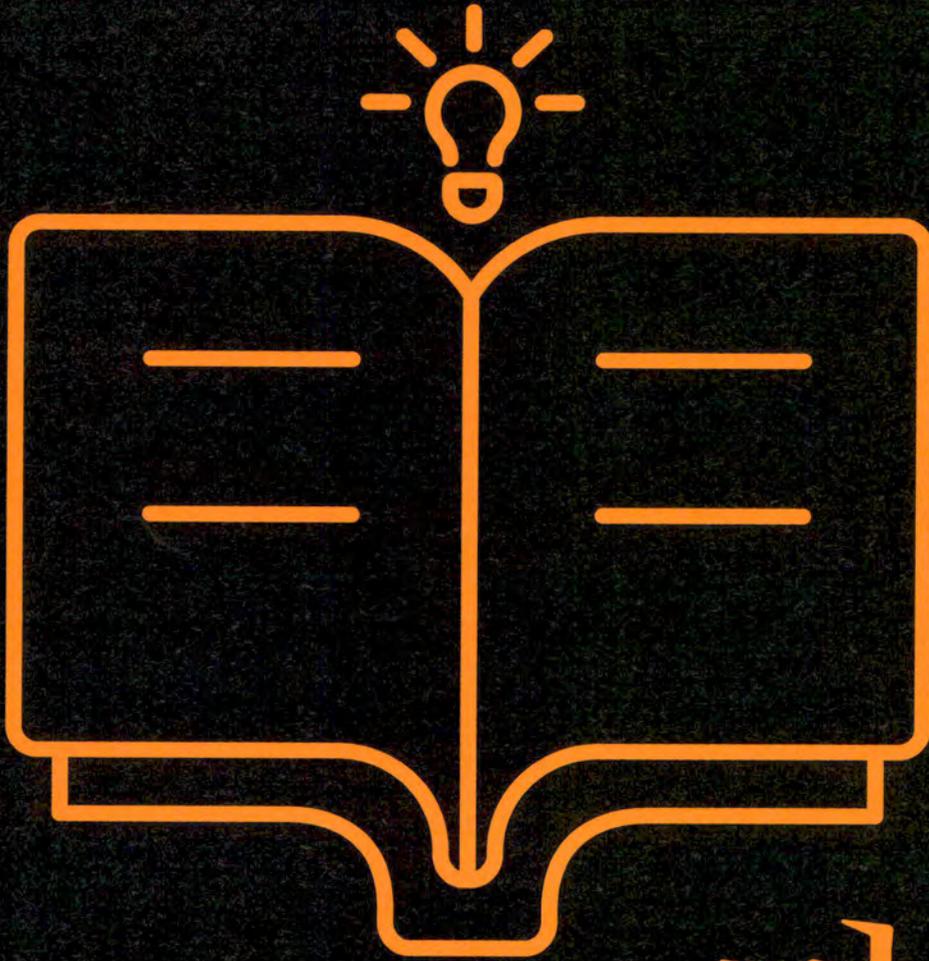
실제 제안

연구는 지역문화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문화자원의 활용을 이용한 향토문화사업의 새 방향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제시한다. ‘지속적인 지역의 향토문화자료 발굴 및 축적’, ‘향토문화를 통한 지역의 장소성 획득’, ‘향토문화자료의 융합적 활용’, ‘향토문화 관련 지역전문가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각각의 키워드를 활용해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고 끊임없이 환류하며 중요한 전략 지점들을 생성하되, 지역문화원의 여건에 맞게 사업 진척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향토문화자료를 활용한 사업의 전략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이뤄졌다. 축제 사업에 대한 제안을 먼저 살펴보자면, 경기도의 각 문화원은 연중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5회에 이르는 축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이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요원하다. 문화원의 축제는 제례 및 전통행사 등의 식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일반 방문객의 참여가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운영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활동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불가능하다. 또, 내부지향적 프로세스로 인해 참여자 자기만족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축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의 기획·운영 구조, 프로그램, 인력 등 전 분야에 걸친 개선을 통해 축제의 의미를 전승함과 동시에 현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는 밝히고 있다.

연구는 향토자료의 활용 및 대중화를 위한 또 다른 사업 방안으로 라키비움 운영을 제안한다. 라이브러리(Library), 아카이브(Archives), 뮤지엄(Museum)의 기능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인 라키비움의 활용은 경기도 문화원의 향토문화 정책에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 영화 콘텐츠의 역사와 오늘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국영상자료원, 영국의 커뮤니티 도서관 ‘아이디어 스토어’ 등의 예시를 들며 배움의 장소 이상의 역할을 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을 주문한다.

이외에도 역사문화도시 재생 관련 사업과의 연계 협력, 문화원이 사람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방안, 복합형 사업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 문화원이 향토문화 사업에 접근할 때 일차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편 다 치

- 기획사업 : 2011년 이전
- 기획사업 : 2011년 이후
- 시·군 문화원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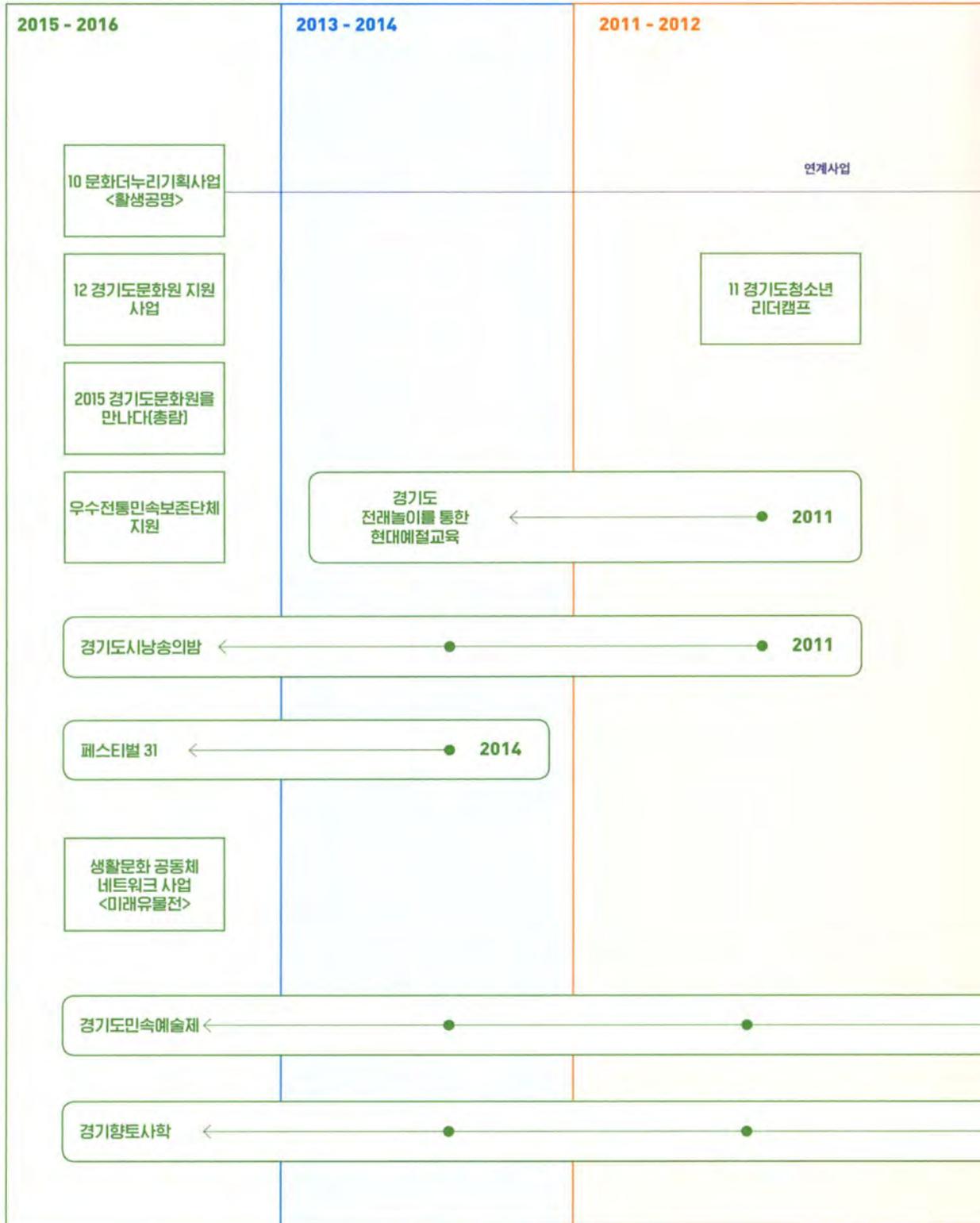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하다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각각의 문화원은 여건에 따라 실천 방식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문화원은 고루한 이미지로 남아있다. 때로는 문화원이 특정한 분야의 사업만 지원하거나, 지역 문화 중에서도 향토사에 치중한 사업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연합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다. 개별 문화원 차원에서는 실행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고민의 역사는 그렇게 깊지 않다.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의 연합체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역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집행해야 하니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진행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2011년부터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연합회여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합회여야 가능한 프로그램, 문화원이 진정한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 문화원의 현실적인 상황,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원의 발전 방향, 연합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중장기적 사업 방향 설정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진전됐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어떻게 사업을 기획하고 '펼쳤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자. 이 장을 통해 여러분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흐름이 정교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11 이전

08 문화체험
프로그램

09 청소년역사·문화
대장정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1986

● 1996

기획 사업

2011년 이전

중앙정부 기금을 바탕으로 둔 탐방형 프로그램

먼저 2011년 이전 도연합회가 기획한 사업을 살펴보자. 이 시기 도연합회는 특정 기금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다양한 사업이 기획되고 진행되었지만, 연합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기 이전이라 다소 아쉬운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2004-2005)이나 '청소년 역사·문화대장정'(2008)이 그렇다. 두 사업 모두 특정 집단과 함께 관외 문화유적을 탐방하며 한국의 역사 유산과 문화를 느끼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각각의 이유로 인해 제대로 된 피드백과 사업 계속 의지가 없이 흐지부지되었다. 과연 이 사업이 잘못된 것일까?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2004년과 2008년의 순간을 들여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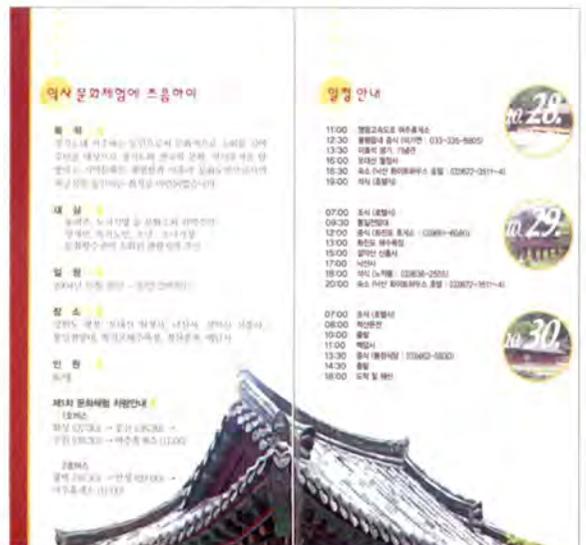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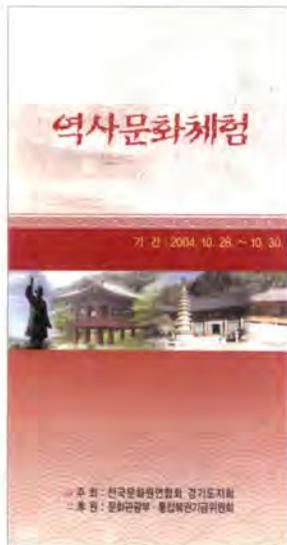


08

문화체험 프로그램(2004-2005)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경기도민 중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전국의 문화, 역사 유적을 탐방하고 지역문화를 체험함과 아울러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문화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체이며 인간의 생로병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현대를 사는 시민들이 우리 문화를 알고 심취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04년과 2005년,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2004년에는 통합복권기금위원회의 기금을, 2005년에는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의 기금을 받았다.

2004년 프로그램은 도연합회(당시 도지회) 차원의 프로그램과 지방문화원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원화되었다. 도연합회의 프로그램은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2박 3일간의 프로그램이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독거노인, 영세민, 농어촌 주민,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시·군 문화원의 추천을 받은 489명의 참여자가 함께 했다. 지방문화원의 프로그램은 가평군, 수원시, 하남시 등 27개 시·군 문화원이 함께 했으며 각각의 문화원은 특성에 맞는 대상 선정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2014년 소외계층을 위한 '역사문화체험' 팸플릿



2015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산 작업능력개발센터와 맺은 장애결연서

2005년 프로그램은 장애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05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일산직업능력훈련원생 130명이 1박 2일 동안 수원 화성, 여주, 이천, 광주 등을 돌며 경기 지역의 역사 유산을 체험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짧은 일정에 많은 공간을 탐방하다 보니 한 공간의 정취를 오롯이 느끼지 못하고 마치 패키지 관광 같이 정신없이 지나쳤다. 특히 2005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산 중턱에 있는 절을 방문하거나, 하루에 대여섯 군데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10여 회 이상 버스에서 오르내리는 등 참여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설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개인의 사정상 문화 향유에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라, 참여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찾을 수 있다. 2005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획기적인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연합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마련이다. 2004년과 2005년에는 복권위원회 등을 통해 받은 복권기금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지원이 없어진 후 사업의 자취가 사라졌다. 많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향후 새로운 공간으로의 탐방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연속되지 못한 것은 문화원의 한정적인 업무 환경과 재원 구조가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05년 진행된 '장애우 역사문화유적탐방'

09

청소년 역사·문화대장정(2008)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2008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한국 정신문화의 근간, 유교문화 탐방’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청소년 역사·문화대장정’을 개최했다.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는 해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와 문화 인식과 함께 우리 국토와 나라,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돌아봄을 통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된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그리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초·중·고교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안동, 문경, 이천, 서울(경복궁)을 방문하여 우리 역사의 흔적을 살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퇴계종택, 도산서원, 하회마을 등 유서 깊은 유교 유적을 통해 옛 조상의 예(例)를 살폈다. 또한 문경도자기전시관, 이천시립박물관, 세계도자센터를 방문해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복궁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여 광복의 의의를 되새기고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사전 설명-현장 탐방-토론-소감문 작성'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관람만 하는 탐방이 아닌 다양한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이 든다. 과연 학생들이 만족했을까? 시대가 바뀌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 성장기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을 생각하자면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우리 문화의 어떤 모습을 발견했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탐방 사업의 가장 큰 난제는 프로그램 설계자와 참여자 간의 괴리에 있다.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들은 40대 이상의 지역 향토 문화에 대해 대한 애정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이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향토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2박 3일간의 탐방만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저 2박 3일 동안의 여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



2008년
'청소년역사문화대장정' 中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 참여



기획 사업

2011년 이후

사업의 맥락을 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2011년부터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도연합회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줄이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흩어져 있는 사업, 중복된 사업 등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각 시·군 문화원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연합회의 환골탈태이다. 사업의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어떻게 사업 운영에 대한 아젠다를 마련하고, 이 목표를 정교하게 구상하고 집행했는지 살펴보자. 이를 통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2011~2012년)

기존 사업의 재평가와 전면적 개편

앞서 살펴봤듯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2011년부터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3개년 사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연합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가진 진정한 의미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할 수 있는 일'과 '지방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개별 문화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에 있다.

우리는 이미 2004년에 진행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인했다. 같은 기금을 받고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27개 시·군 문화원이 사업을 진행했다. 일종의 중복 사업인 것이다. "더 많은 수의 참여자와 함께 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 해도, 프로그램 설계 구조에 따라 그 의미를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사업을 바라보았다. 도연합회와 시·군 문화원이 같은 사업을 수행한 이유는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보다는 예산 교부와 사용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도연합회와 시·군 문화원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별 문화원 차원에서 실질적인 집행이 있었다면 중복 사업의 방지는 물론이고 내실있는 사업 기획이 가능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 간 협력 관계도 한층 구축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역시 같은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따라 세 가지 과제가 도연합회에 주어졌다. 먼저 지방문화원 간 긴밀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 모두에 문화원이 있다. 그런데 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도연합회가 소통의 중심체가 되어야 했다. 그동안 도연합회와 개별 문화원 간의 소통은 자발적이지도, 개방적이지도 않은 소통이었다. 도연합회와 시·군 문화원 간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상호 존중 없이는 발전이란 불가능했다. 마지막으로 도 차원의 문화정책과 각 시·군 문화정책의 접점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경기도 문화원의 향토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정책 및 사업화 방안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생활 밀착형으로 바뀌면서 문화원의 사업에도 이러한 방향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만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최소화하고 도연합회와 시·군 문화원 간의 협력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질문과 고민, 그 것에서 나온 세가지 목표에 의거해 모든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구체적 계획이 새롭게 재배치되기 시작했다.

2단계(2013~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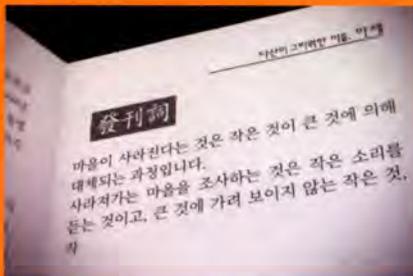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의 확장

2013년은 '경기도문화원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였다. 조직과 법제의 안정화, 축제와 문화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 모색, 향토문화사업의 질적 향상과 네트워킹, 문화예술교육 전개를 통한 문화시민육성이라는 네 가지 아젠다를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의 확장'이 시작된다.

먼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종의 브랜드화를 꾀했다. 2006년 한 해 시행되었다가 사라진 '시 낭송의 밤' 사업을 부활해 2011년부터 다시 시행하였는데, 2014년부터는 <시가예찬詩歌禮讚>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31개 시·군 문화원이 함께 만드는 복합 인문학 축제로의 성장을 꾀했다. 한 해 동안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동한 생활문화동아리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인 <페스티벌31>은 경기도 생활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원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챕터에서 살펴본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한 새로운 교육 사업 브랜드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예절을 우리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자칫 딱딱하고 어려운 예절 교육을 옛 생활문화 체험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예절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향토문화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이 1년간 각 지역에 대한 조사, 발굴, 연구한 결과물은 논문집 「경기향토사학」을 통해 발표된다. 경기도문화재연구원과의 MOU를 통한 공동 연구인 '경기도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사업,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형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의 연속선상에서 기획된 '문화원형도시브랜드 개발' 사업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문화정책과 시군 문화정책의 일관성을 꾀했다.



'경기도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사업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형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도연합회 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각 시·도·군문화원연합회 간,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재단 간 소통과 교류를 도모하는 네트워크 연계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은 후에 언급할 “엮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정당한 평가와 반성을 넘어 새로운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각 사업별로 철저한 성과 분석을 했으며, 이 백서에 대한 기획 작업도 시작되었다. 또한 문화원 구성원 간 협의회 조직의 정례화 및 아젠다 회의 개최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정책과 맞물린 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기획사업 개발 및 시범 추진이 이뤄졌다. <페스티벌31>, <미래유물전>, <경기도민속예술제>는 각각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문화예술부문의 개발과 지원을 선도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별 특성화를 추진했다. 특히 <경기도민속예술제>는 ‘전통문화예술은 문화원의 손으로 지켜나간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 문화원의 대표로 출전한 경연팀의 무대와 함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들만의 경연대회’가 아니라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지향했다.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축제 <경기도민속예술제>



그렇다. 문화원이 아무리 좋은 의미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나와는 맞지 않겠지'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원의 사업이 그동안 한 분야에만 편향적으로 진행된 것에 기인한다. 다행히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해 더 나은 사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사람들의 삶과 밀착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과 노력들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예전의 문화원은 이랬는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가 현실적 성과를 내기 위한 근거와 논리를 개발하면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계속해서 바꿔야 한다.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깊게 살펴보자.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2016년 시행한 '문화더누리기획사업 <활생공명>'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결에서 시행된 사업이지만, 설계 단계부터 다른 프로세스를 적용해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이 이뤄졌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2011년 이후 진행한 5년간의 고민이 어떻게 사업 형태에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0 문화더누리기획사업 <활생공명> (2016)

문화예술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 흐름에 발 맞춘 도연합회의 사업 기획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는 ‘창의한국’ 정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정책을 통해 도출된 아젠다 중 하나는 ‘정책 수요자를 먼저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정책은 ‘문화의 민주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외연 확장에만 신경을 썼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아, 정책 수요자가 문화예술을 ‘소비’할 뿐이지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른바 ‘문화민주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아직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화 정책을 하나 만들 때 이전보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맞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볼 수 있다. 문화복지사업은 대상자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복지라는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과업 대상 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15년 11월부터 시작해 2016년 1월에 종료한 ‘문화더누리기획사업 <활생공명> 프로젝트’(이하 ‘활생공명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이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문화바우처)의 일환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문화재단이 손을 잡고 경기도 지역의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한 사업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인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활생공명 프로젝트’는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지원과 문화원의 지역 네트워크, 지역향토문화 아카이브가 만나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원은 행정 기관이 가진 사업 대상 리스트보다 더욱 현실적인 대민 접촉이 가능하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한 지역문화의 보고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사업을 위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 손을 내민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문화예술강사들의 도움도 받았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매개하는 평생학습관,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함께 작업해 왔던 문화 전문 인력들은 보다 열린 마인드로 문화예술과 시민을 매개해왔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소비 중심이 아닌 또 다른 창작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이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을 등에 업은 ‘활생공명 프로젝트’는 일종의 ‘인문아트캠프’를 표방했다. 참여자 개개인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을 시작으로, 상호 간 존중과 배려를 통해 이웃에게 ‘결’을 주고, 이를 통해 ‘좋은 삶’을 구현하는 것이 ‘활생공명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되길 바라는 결과였다.

‘활생공명 프로젝트’의 여섯가지 사업

‘활생공명 프로젝트’는 여섯 가지 단위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위 사업들은 다시 세 단계의 프로세스로 정리할 수 있다. 사전기획 단계인 <더 뭉쳐보다 프로젝트>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문화 기관과 지역 단체가 함께 모여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이다. 도연합회와 31개 시·군 문화원, 경기도 광역 자활센터, 시흥시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등 ‘활생공명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 참여자를 위한 기획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짧은 여행의 기록>

이 과정이 먼저 선행된 후 4개의 본사업이 진행되었다. <짧은 여행의 기록>은 나를 돌아보고 우리 지역을 담아보는 사진 여행이다. 그동안 사진을 매개로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시도했던 성남 만남지역자활센터와 성남문화원, 파주문화원이 함께 만나 사업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인식하고, 그 환경의 주체가 바로 '나'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기획한 일종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여행'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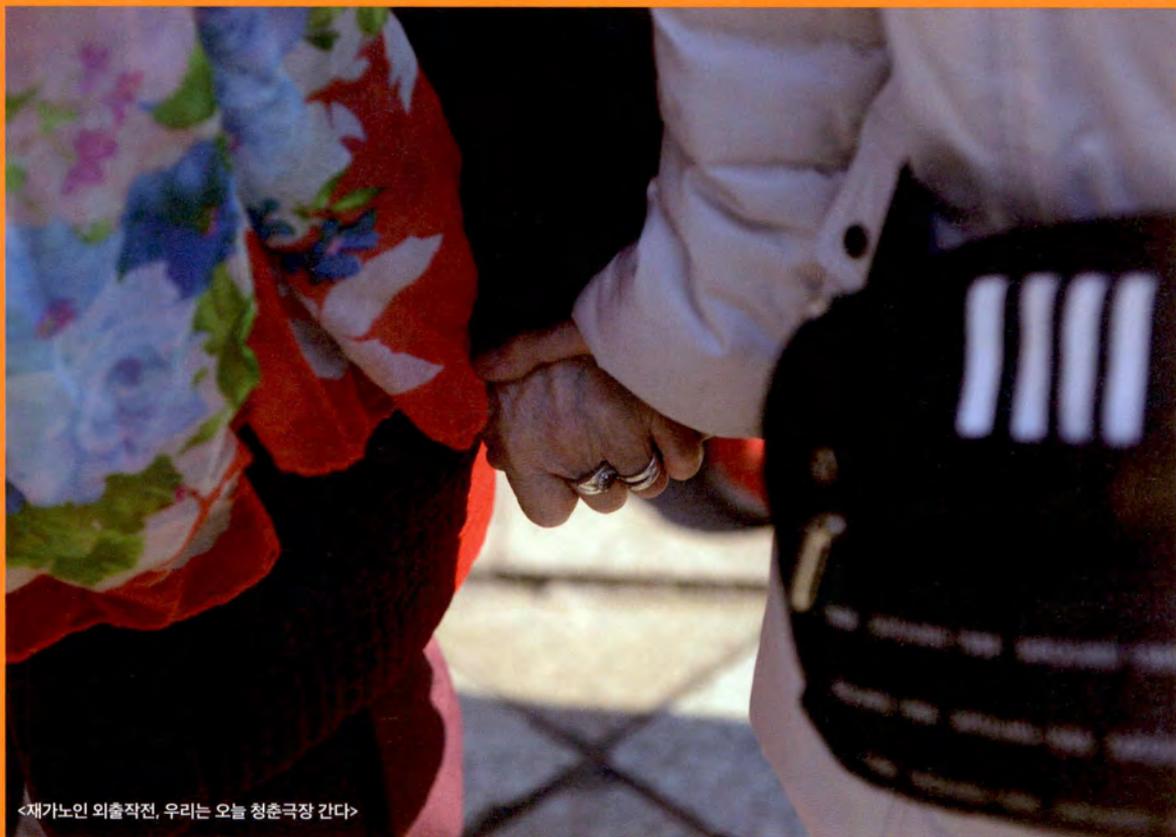
<마음길 프로젝트>는 강화도라는 낯선 공간으로 1박 2일 동안 여행을 떠난 어르신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다른 '나'를 상상하고 성찰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로 1박2일의 경험과 감상을 '시'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낭송된 시 중 두편을 노래로 만들어 페스타에서 불러졌다. 시흥문화원, 시흥목감중합사회복지관, 문화집합 36.5가 함께 했다.

<재가노인 외출작전, 우리는 오늘 청춘극장 간다>는 <마음길 프로젝트>처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며, 안양문화원과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했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재가 노인들을 위한 극장 나들이인데, 젊은 날의 향취를 되살리기 위해 특별히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영화를 상영하는 '청춘극장'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평생 극장을 처음 와 보신 분, 몇 년 만에 먼 길을 나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옛날 TV를 통해 보던 그 때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흥문화원, 시흥일꾼자활센터, 시흥작은자리자활센터가 함께한 <온 고을에서 온 마음>은 자활 참여자들이 전주로 여행을 떠나는 속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운 타락(他-樂)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 사업이다.



<마음길 프로젝트>



<새가노인 외출작전, 우리는 오늘 청춘극장 간다>



<은 고을에서 온 마음들>

이들 4개의 본사업은 각각의 목표를 실현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활생공명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발표의 장, '페스타 <반짝반짝 투게더>'를 위한 결과물을 만들기도 했다. 페스타는 사업의 참여자들이 수혜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활생공명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한 자리에 모아내고 함께 하는 자리이다. 그동안의 경과를 담은 전시와 영상 상영, 참여자들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하여 이 사업의 주인은 오롯이 참여자 자신임을,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나에게서 출발해 우리를 보듬는 소중한 시간을 만든다

'활생공명 프로젝트'는 참여자가 자신의 마음의 힘을 키우고, 마음의 건강한 생태학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기획된 프로젝트다. 이는 참여자들의 '격을 세운다.' 또한 참여자들이 '걸을 내길' 희망했다. 인문성과 예술적 감성을 통해 '좋은 삶'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웃에게 '걸을 주며' 함께 사는 사회를 꿈꿨다. 이것이 '활생공명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격을 세우고, 걸을 내고, 걸을 주는' 사업 진행이다.

'활생공명 프로젝트'의 시작은 한국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맞닿아 있다. 그것은 공급자 중심 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시민의 행복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변화였다. 하지만 이는 비단 정부 정책의 변화뿐 아니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방향의 변화와도 관련 있다. 도연합회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문화원을 지향했다. 이를 위해 지난 사업을 반성하고, 중복적인 사업은 줄이며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을 꾀했다.

이 흐름 속에서 탄생한 '활생공명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도연합회는 지난 사업의 반성을 통해 사업 참여자를 배려하는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페스타 <반짝반짝 투게더>'



'페스타 <반짝반짝 투게더>

두 번째는 각 지방문화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경험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중장기 발전 방안 도출에 즈음하여 도연합회 단독 사업을 축소하고, 각 시·군의 문화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기획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 파주, 시흥, 성남, 안양문화원을 비롯한 31개 시·군 문화원과 함께 훌륭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생하는 협력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의미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의 창달과 네트워크 구축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도연합회는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각 지방문화원과 함께 지역의 시설들을 찾아다니며 사업 대상자에 알맞은 정책을 설계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 인력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함을 통해 보다 열린 정책 설계와 실행이 이뤄졌다. 이는 곧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사업 수행 능력에 경쟁력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활생공명 프로젝트'는 사업 참여자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누고', '더하고', '느끼는' 진행에 성공했다. 이는 도연합회 본연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 진행할 무수한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군 문화원 지원 사업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문화원 사업을 지원하다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의 소통은 필수적이다.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연합회와 지방문화원 간의 관계회복이 절실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도연합회와 시·군 문화원과 소통채널을 비롯하여, 지방문화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이 바로 경기도의 '민속유산', '문화원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 및 제작이다. 지방문화원이 수행하는 역할 중 하나인 향토사 연구를 연합회가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는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II 경기도청소년리더캠프(2012)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의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주문화원의 '경기도청소년리더캠프'를 지원했다. '경기도청소년리더캠프'는 '리더십'을 키워드로 조선 세종 시기 저작물을 통해 세종대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가치를 알고, 세종대왕의 애민과 소통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2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내 중학교 1학년 147명의 학생들이 늘향골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모였다.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한 특강과 세종 시기에 편찬된 농업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농사직설』과 의학 교과서인 『향약집성방』의 내용을 파악하며 직접 고구마를 수확하거나 향초주머니를 만드는 체험 활동을 했다. 또한 세종 시기의 핵심 국방정책이라 할 수 있는 '4군 6진 개척'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홉 사리 과거길' 체험을 통해 세종의 리더십을 학생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여주문화원은 이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외에도 보다 다양한 학생들에게 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관내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이 캠프를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더욱 심화된 교육을 제공해 역사적 지식에서 답을 찾아 미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고자 하였다.



여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청소년리더캠프'

12 경기도문화원 지원사업(2016)

성남문화원 <성남 옛 이야기 보급 및 전승> 지원

의정부문화원 <경기북부권 문화원> 지원

파주문화원 <제29회 울곡문화제> 지원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각각 문화원이 존재하고 해당 문화원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집행한다. 하지만 문화원 내부의 역량이나 예산·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문화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싶다고 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문화원 지원사업'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시·군문화원이 사업을 집행할 때 도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지원 사업이다. 2016년에는 성남문화원의 『성남 옛 이야기』, 의정부문화원의 『경기북부 인물傳』 발간 및 <향토문화유물전> 개최 지원, 파주문화원의 <제29회 울곡문화제> 개최 지원을 진행했다.

성남의 옛 이야기를 모으다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거대 도시 성남. 신도시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옛 정취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성남에는 오래전 모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성남문화원은 이 이야기에 주목해, 거대 도시 성남 이전의 옛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성남 옛 이야기』 발간 사업이다.



성남문화원 「성남 옛 이야기」

경기 북부의 인물을 발견하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다

의정부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10여 개 경기 북부권 시·군 문화원은 문화원의 자생력을 기르고, 문화분권 정책의 시대에 걸맞게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경기 북부권 지방문화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2016년에는 경기 북부권의 역사문화 인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집대성한 『경기북부 인물傳』을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향토 생활유물 전시 <관통>을 기획하였다.



향토 생활유물 전시 <관통>



울곡을 기리는 축제

2016년 기준 29회째를 맞이한 '울곡문화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16 문화원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가 낳은 울곡 이이는 조선 기호학의 대부임과 함께 애민·여론·무덕·교육 등 조선이라는 국가를 경영하는데 일생을 헌신한 경세가(經世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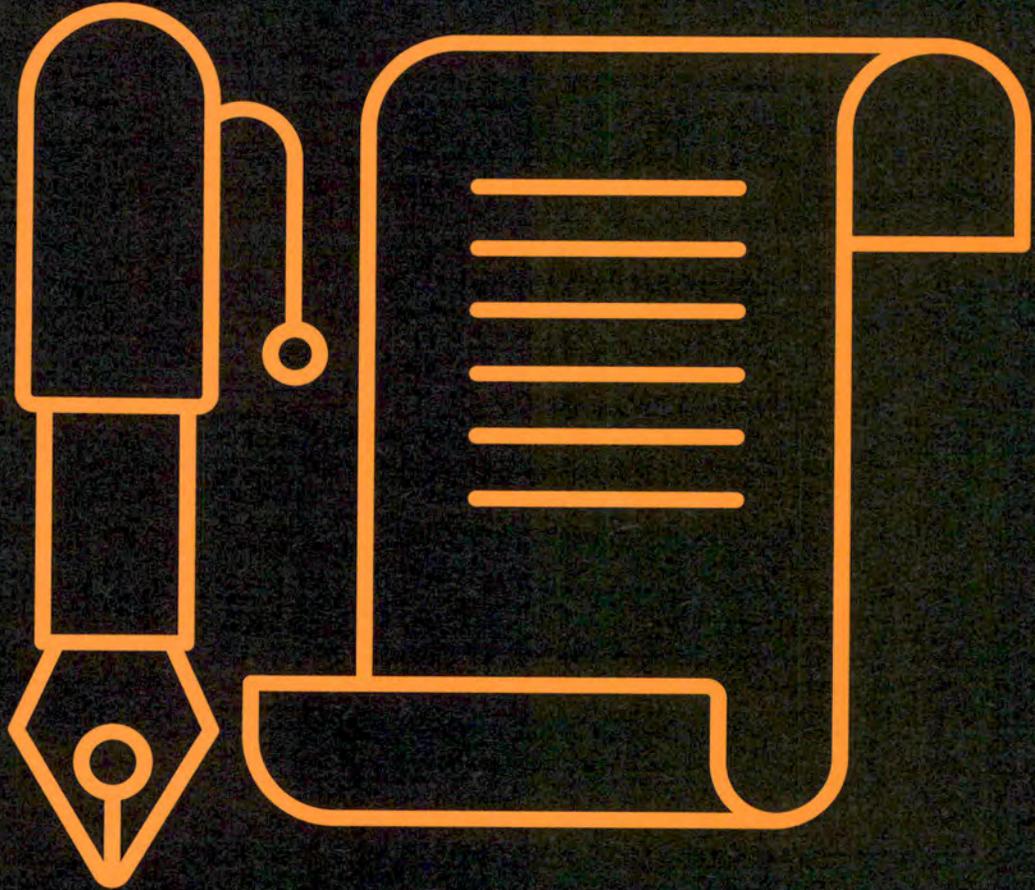
파주문화원은 울곡 이이를 선양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콘텐츠를 넣어 보다 입체적으로 축제 계획에 접근했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현대화한 살아있는 역사 축제를 만들었다.



울곡문화제



기록하다



- 경기도 문화원을 기록하다
- 경기도의 문화를 기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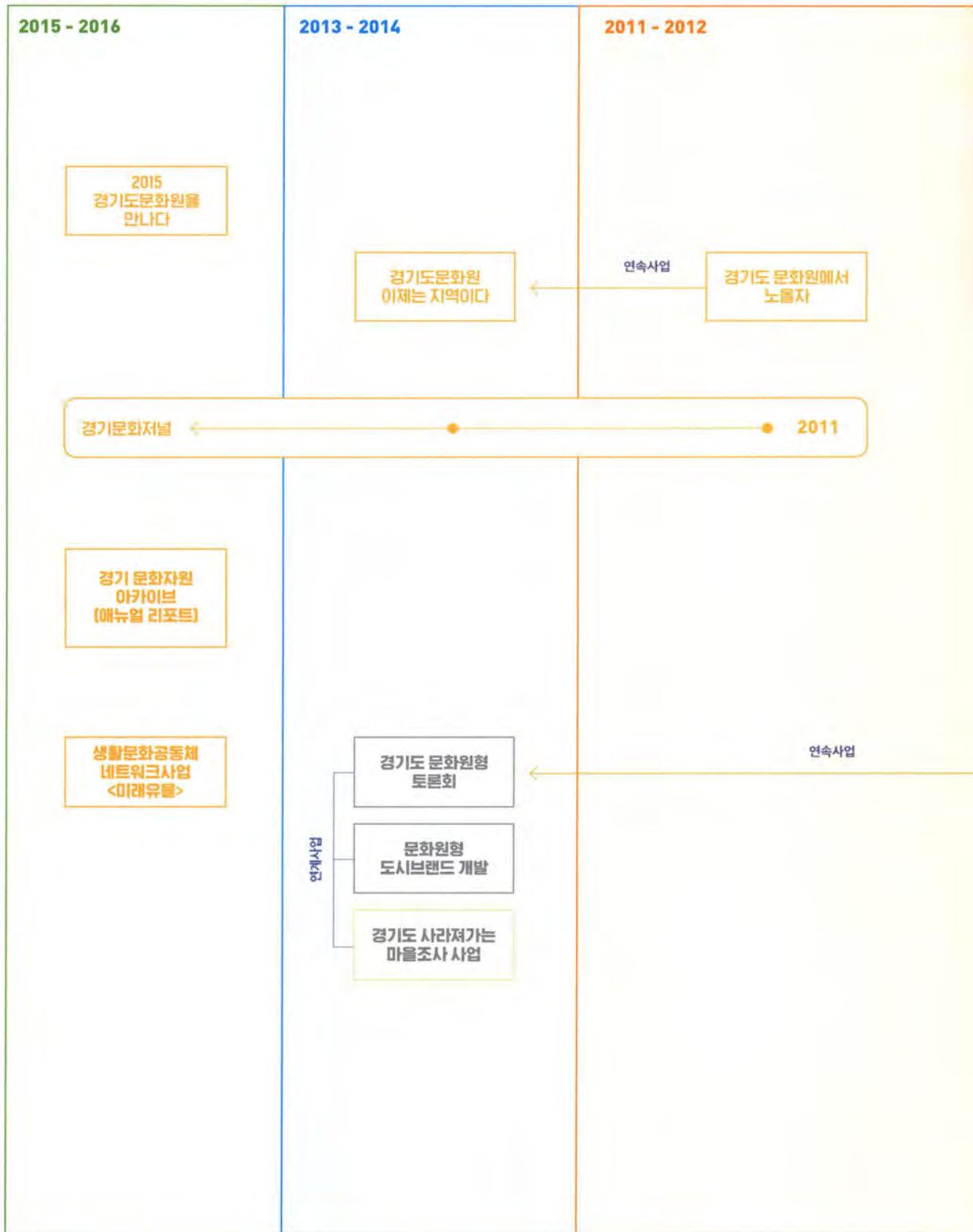
경기도 문화의 정수를 기록하고 저장하다

아카이브는 개인과 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과 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하는 행위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아카이브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문화원을 이해할 수 있는 아카이브와 경기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아카이브이다. 도연합회의 문화원 아카이브는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파악하고, 지방문화원을 이해하고자 시작하였다. 도연합회의 아카이브는 지방문화원의 정보를 획득하고 기록 하고 보존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지방문화원을 지원하고 협력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도연합회가 지방문화원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의 역사와 인문, 자연 등의 유산과 문화를 담은 아카이브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곳곳의 산수(山水)를 돌아다니며 풍경을 기록하거나 경기도의 문화원형을 기록하고 이를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만들었다.

자료를 관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주도와 콘텐츠 개발에 도움을 준다. 이는 곧 지역민에게 지역 문화에 대해 소통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로 다가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마련한 아카이브를 살펴보고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2011 이전

경기문화 즐겨찾기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

도지회 홈페이지 구축 및
문화원 행정 사무 자동화

14 경기문화 상징 토론회

13 국토종단 스케치 여행

경기도 문화원을 기록하다

문화원의 현재를 분석하고 내일을 준비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향토문화와 생활문화,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지역 문화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만큼 잘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연합회의 활동은 물론, 31개 시·군 문화원의 정보를 모두 모아 책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업은 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현재를 바라보는데 큰 도움을 준다. 조직, 법제, 사업추진과정, 시민과의 관계 맺음, 문화원의 사업이 시대적·문화적 흐름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결국 연합회가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경기도 문화원을 기록한 움직임들을 살펴보자. 2009년에 발간된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를 시작으로 《경기문화즐거찾기》, 《경기문화저널》,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자』, 『경기도 문화원 이제는 지역이다』, 『에뉴얼 리포트』, 그리고 『총람』에 이르기까지 문화원의 활동을 기록한 다양한 기록물을 만나고 이것들이 어떻게 경기도 문화원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문화원의 깃발을 올리다

“경기도문화원 설립 25년만에 31개 시·군 문화원의 활동을 집대성한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를 발간하게 되어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2009년 12월 발간된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의 발간사에서 오용원 당시 경기도지회장은 벅차오르는 심정을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문화원은 향토문화축제, 각종 문화 강좌 등을 개최하며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화원은 자신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알리는 작업이 부족했다.



2009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모으고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고민을 시작했다. 그 결과물은 2009년 세상에 나온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이다. 이 책에는 도연합회와 31개 시·군 문화원의 개요, 시설, 조직과 임직원 현황,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자세하게 적혀있다. 2010년 발간된 《경기문화즐거찾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1년 사이 변화한 문화원의 모습들을 서로 공유하고, 자신들이 지금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10 『경기문화즐거찾기』 봄, 여름, 가을, 겨울호

시대와 호흡하는 문화원 사업을 파악하다

정보의 공유가 가지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2011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각 시·군 문화원이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사명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2012년 발간된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자』는 문화원이라는 네트워크 조직이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는지,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특히 경인지역을 대표하는 경기일보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31개 시·군에 분포된 다양한 문화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자』은 크게 네 가지 키워드를 두고 문화원의 사업을 정리했다. 첫 번째는 문화원형을 기초로 한 도시 브랜드 형성 과정을 살피는 일이다. 지역의 유산, 역사 인물, 자연환경, 지역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반영된 민담 등을 총칭하는 문화원형을 이용해 각 문화원이 전개하는 사업을 살피고,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수원문화원의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 순례', 여주문화원의 '명성황후 숭모제', 파주문화원의 '울곡문화제' 등 지역 사회와 호흡하며 향토 문화 수호의 보루로 역할을 이어가는 문화원의 모습을 파악했다.

두 번째는 지방문화원이 전개하는 사업과 지역축제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그 맥락이 '사람'과 '삶'에 있다고 생각했다. 가평문화원과 문화집합36.5 그리고 그림마을의 협력사업인 '그가이꺼 재즈는 재즈가 어렵고 복잡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재즈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가평지역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원들과 함께 지금은 폐역된 구 '가평역'에서 공연과 전시를 열었다. 과천문화원의 '효담보담 기자단'은 타인에 대한 사랑의 '첫걸음'인 '효'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맞이할 수많은 문제에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터전인 마을에서 탄생되고 해체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파악했다. 건강한 마을 공동체 확립을 위한 사업 유형을 소개하고 분석해, 문화원을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마을과 도시의 모습을 그렸다. 흉물스런 폐교가 웃음소리 꽃피는 문화공간으로 바뀐 평택문화원의 '웃다리 문화촌', 두레와 품앗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옛 공동체의 상부상조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부천문화원의 '석천농기고두마리'를 소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 키워드는 교육이다. 문화원은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작업은 바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양평문화원의 '전통혼례지도자양성과정', 양주문화원의 '역사문화대학', 시흥문화원의 '청소년 독립운동 역사탐험' 등의 사업이 현재 문화예술의 흐름 속에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프로그램 실행의 비전을 마련하고자 했다.

2012년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자』를 통해 결국 문화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삶을 통해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시대 정신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문화원이 지켜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화적 양상이 어떻게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해당 사업의 2차 연도를 '경기도문화원의 시대공감'으로 명명하고 경기도 내 시·군 문화원 사업이 어떻게 지역 문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사업의 실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짚고자 했다. 이 사업의 결과물이 바로 2013년 발간된 『경기도문화원 이제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다. 역사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감의 문화,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이 실존적 감수성을 받아들이는 양상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문화원이 서로의 존중과 인정 속에서 시대와 공감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파악하고 경쟁력을 키울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경기도의 문화 정책과 문화원의 사업을 함께 돌아보다



경기도 문화원에 대한 아카이브는 개별 문화원의 사업을 소개하는 구성에서 벗어나 경기도의 문화 정책과 문화원의 흐름을 집목시키는 새로운 저널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2011년부터 발간된 《경기문화저널》이 바로 그것이다.

창간호는 '경기도 문화를 말하다'라는 테마 아래 문화계에서 외면 받는 문화원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있다. 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선두에 서서 변화를 주도하는 문화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조직·법제적 관점의 제언이 이어졌다. 문화원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은 《경기문화저널》 발간이 가진 첫 번째 의미이다.

또한 '경기도 문화인물을 만나다', '경기도 역사문화' 등의 코너를 통해 경기도 지방문화원을 존재하게 하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 알리고, 인터뷰를 통해 문화원과 살아가고 있는 문화원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 또한 《경기문화저널》의 발간이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경기문화저널》은 2013년부터 약간의 변화를 꾀한다. 종이책 출판이 아닌 웹진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경기문화저널》 6호부터 10호까지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매체의 특성 때문인지 깊이 있는 담론 형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콘텐츠의 '소비'에 중점을 두다 보니 자칫 딱딱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석형 글이 아니라, 문화원 사업의 현장을 취재하는 글이 중심이 되어 《경기문화저널》을 이뤘다.

《경기문화저널》 11호는 도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서술한 '문화원연합회 방향과 전망'을 중심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새 길을 모색하는 필자들의 '정책 제언',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문화 리포트', 다양한 테마의 '칼럼'과 '인터뷰'로 구성했다. 이는 창간 당시 지향했던 '문화원을 중심에 세운' 콘텐츠로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5 「경기문화저널」 11호

경기도 문화원 사업의 전체적 조람을 위한 노력

2009년 세상과 처음 인사한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 이래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도연합회의 활동 상황과 경기도 문화원의 사업을 담아 아카이브 구축을 시도했다. 꾸준하고 묵묵한 노력은 2015년 새 국면을 맞이한다. 《경기문화저널》의 성격을 '변화하는 문화 정책 속에서 문화원의 방향을 모색하는 담론 형성의 장'으로 완전히 정했다면, 도연합회와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기도문화원의 자원을 아카이빙 할 필요가 있었다. 즉, 앞서 "펼치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의 정당한 평가와 반성을 넘어 새로운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연합회 본연의 역할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도연합회의 1년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경기도 문화자원아카이브(이하 『에뉴얼 리포트』)와, 2009년 처음 발간되어 경기도문화원의 현재를 조망한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를 2015년의 버전으로 각색한 『2015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이하 '총람')이다.



『에뉴얼 리포트』는 2015년과 2016년에 각 1권씩 발간되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일반 현황, 경상 운영 현황을 비롯해 도연합회가 진행한 사업에 대한 내용과 평가, 개선 방향을 담은 제언이 수록됐다. 특히 2016년에는 보다 정교해진 사업 배치에 따라 '경기도 단위 문예진흥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 협력사업' 파트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업에 담긴 의미를 분석했다.

2015년에 발간한 '총람'은, 2009년 경기도 31개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처음으로 파악한 『경기도 문화원을 만나다』의 새로운 버전이다. 2009년 첫 발간 당시에는 도연합회와 각 지방문화원을 개요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에만 그쳤다. 그러나 2015년 '총람'에는 개별 현황은 물론이고 지방문화원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3개년 사업'의 2차년도(2012)에 제시된 4개의 카테고리인 '조직', '운영', '예산',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총람'을 보면 각 문화원의 전체 예산 중 경상운영비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각 문화원이 어떤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지, 해당 사업과 유사한 다른 문화원은 어떤 것인지도 비교할 수 있다.

도연합회 차원에서 이렇게 문화원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관된 지표를 마련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31개 시·군 문화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제 도연합회는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각의 아카이브들은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시각에서 기록이 이뤄져야 중복 사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문화를 기록하다

경기도 역사·문화 아카이브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의 역사, 인물, 문화를 아우르는 향토 관련 자료 발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도연합회와 각 지방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앞서 챗터 1에서 향토문화에 대한 도연합회 차원의 사업을 서술하면서 그 모습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한 아카이브를 단순히 서적 발간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만든 도연합회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경기도 문화원은 경기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다른 어떤 기관과 견주어봐도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제 도연합회는 자신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창조적 활용을 시도해야 한다.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문화를 선도할 수도, 뒤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 국토종단 스케치 여행(1996~2004)



경기도문화원연합회(당시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국토종단 스케치 여행' 사업을 1996년부터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배순덕 화가가 경기 지역의 자연과 풍속을 한 폭의 그림에 담음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를 기록하는 아카이브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작품을 바탕으로 전시와 도록집을 제작해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국토종단 스케치 여행' 사업이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2001년 12월에 일차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 대한 기록 작품 1천여 점을 담은 도록 『제1집』을 발간했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가 개막된 2000년대 초였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록이 가능해졌지만, 철저한 아날로그 방식과 감성으로 지역의 문화를 기록한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진한 여운과 감동을 선사했을 것이다.

첫번째 도록 발간 이후 창랑 배순덕의 경기도 기행은 계속 되었다. 이윽고 남은 11개 시·군의 작품으로 『제2집』을 2004년 12월에 발간했다. 특히 두 번째 도록집에서는 급격한 도시 개발과 산업화로 본래의 모습이 많이 훼손된 데다가 주민들의 관심에서 밀려나 소외되었던 풍경들을, 작가가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탄생시킨 그림들이 많다.



하남시 춘궁동 오층석탑 스케치

의정부 2동 교회 스케치

수원시 정자동 스케치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스케치

II 경기문화 상징 토론회(2010)

주지하다시피, 문화원은 지역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기록을 통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지역문화의 꽃을 피우고자 만들어진 기관이다. 지역문화 정책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환경적 유산을 활용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 사업을 진행할 때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유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분류이며, 이를 바탕으로 '재해석'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당시 경기학연구실)와 함께 2010년부터 경기도의 자연, 인문, 역사 분야의 문화유산원형 상징을 추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노력이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형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이다. 이미 우리는 챕터 1에서 '문화원형브랜드 개발' 사업을 살펴본 바 있는데, 이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문화원형브랜드 개발 이전의 단계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도연합회와 문화원이 지역문화유산 아카이브를 어떤 관점에서 탐구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문화원형이란 무엇일까? 이는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 유산 중 '경기의 기풍(ethos)'을 형성하는 문화적 원형질로서 상징성을 갖추고, 지역과 한국 문화에 기여도가 높으며 문화콘텐츠로서 산업화가 가능한 대상을 의미한다. 2006년 당시 문화관광부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선정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효, 수원화성, 정약용, 비무장지대, 백자 등이 꼽혔다.

경기(京機)라는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듯 경기도는 대대로 한반도 역사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삼국시대에는 중국과의 교역을 수행하는 당항성과 너른 평야를 차지하기 위한 삼국의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고려시대에는 수도 개경과 더불어 나란히 그 지위를 인정받은 남경(南京)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성이 만들어짐과 더불어 수원과 강화, 광주에는 국왕의 행궁이 있는 등 경기를 빼놓고 한국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형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은 이러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진 경기도 각 시·군 문화원이 자기 지역에서 추출해낸 음식, 의복, 주택, 인물, 미술, 음악, 무용, 유·무형문화재와 사상 등을 자연·인문·역사의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한 자리에서 살펴보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이다.

2010년 6월 17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문화 상징 토론회'에서는 용인, 양주, 김포, 안산, 이천, 성남, 의왕, 시흥, 고양, 파주의 10개 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상징을 소개했다. 각 문화원이 소개한 문화상징은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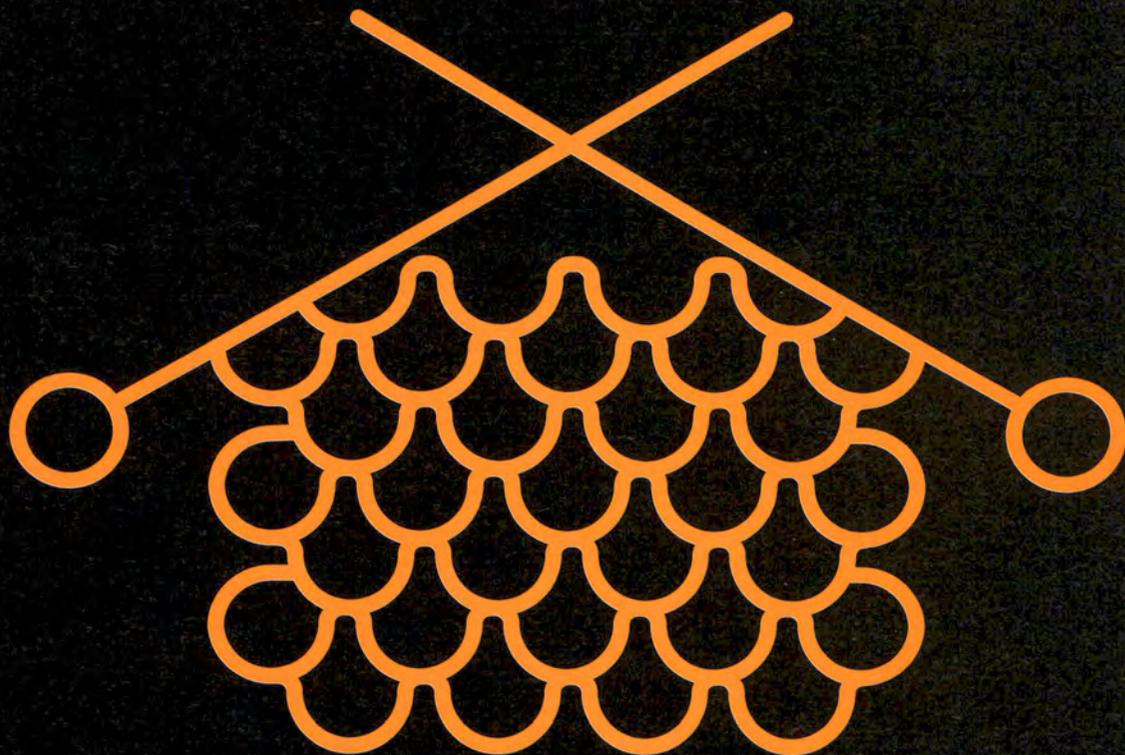
용인문화원	할미산성, 한택식물원, 처인성, 포은 정몽주 묘, 한국민속촌
양주문화원	양주 별산대, 회암사 터
김포문화원	문수산성, 장릉, 우저서원, 덕포진, 재두루미
안산문화원	대부도, 이익, 둔배미, 잣머리 성황제
이천문화원	반룡송, 서희, 도자기, 설봉산성, 쌀
성남문화원	분당중앙공원, 오리틀 두레농악과 판교 쌍용줄다리기, 모란시장, 둔촌 이집, 울동공원, 탄천
의왕문화원	모락산성, 임영대군, 청계사, 백운호수, 하우현 성당
시흥문화원	강희맹 묘, 관곡지, 소래산원, 갯골생태공원
고양문화원	공양왕과 삽살개, 행주산성에서 북한산의 사기막걸까지, 고봉산 습지, 장항습지의 사계절
파주문화원	임진강, 장단콩, 이익, 기호학파, 용미리 석불입상

각 시·군 문화원은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연구소가 기반이 되어 지역의 유산 중 경기인의 문화상징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모아 ‘경기문화 상징 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정되는 상징이 몇 개냐?’ 같은 숫자 계산은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그보다 경기도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징을 선정하기 위해 객관적 절차와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계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재해석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경기도의 각 시·군 문화원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기록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아카이브를 경기도 전체의 상징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전문가의 논평을 함께 곁들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문화유산 아카이브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이러한 사업은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보다 쉽고 친숙하게 경기 문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정 목표인 ‘세계 속의 경기도’ 구현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상징은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되어 실용적 보급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가 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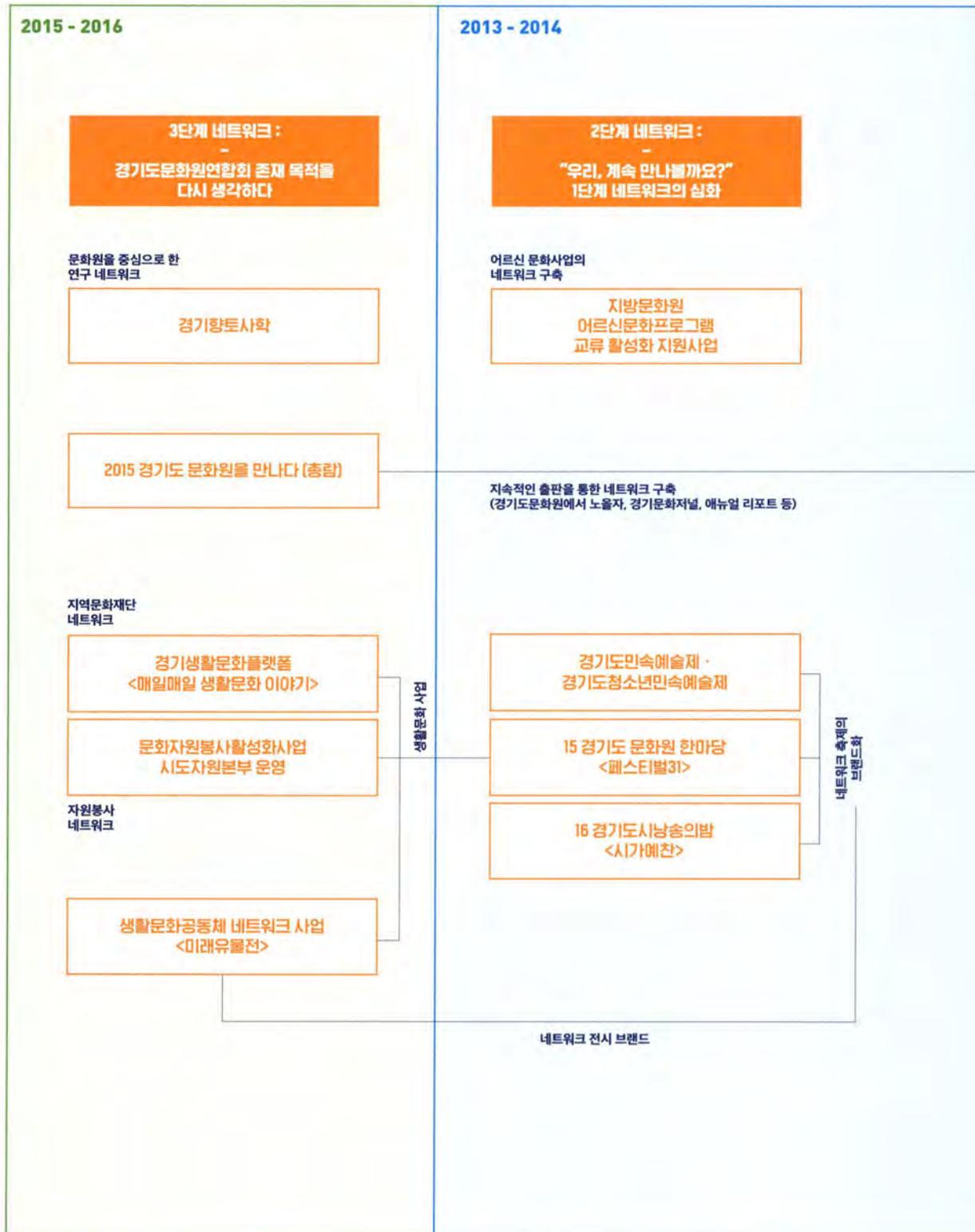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생각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스스로의 역량을 키웠다. 도연합회와 경기도 문화원의 미래를 그리는 혁신의 과정부터 시작해 각종 연수, 답사, 세미나, 연구를 통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라는 기관의 자생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길렀다.

이렇게 쌓은 역량을 펼치고, 기록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도의 31개 시·군 문화원은 초기와는 달리 점차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했다. 또한 도연합회는 끊임없이 문화원과 경기도의 모습을 기록하며 오늘의 풍경을 역사로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의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그 존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도연합회가 왜 생겼는가? 일차적인 목적은 각 지방문화원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도연합회는 각자의 고유성을 가진 지방문화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교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상생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과연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어떻게 문화원을 “워고”, 경기도의 문화를 “워였는가?” 지금부터 2011년 이후 세 단계에 걸쳐 정비한 네트워크 정책의 역사를 살펴봄을 통해,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구축하는 네트워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11 - 2012

1단계 네트워크 :
-
도연합회와 31개 시·군 문화원,
서로를 만나다

임직원 교류 및
역량강화

경기도 문화가족 합동연수 ·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출판물 통한
문화원 네트워크

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자

왜 '네트워크' 인가?

주지하다시피,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 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각 시·군 문화원이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연합회는 각 문화원의 사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문화원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지난 30년 동안,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도연합회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 도연합회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그동안 말뿐인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자기 반성에서 시작된 의문을 가졌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진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되는 것이다.



1단계 네트워크(2011~2012)



2011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 지방문화원과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그동안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 발전에 관한 의견 교환은 충분히 있었다. 부족하지 않았다. 앞서 봤던 '경기발전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함께 경기도만의 문화 정책을 세워야 하고, 지역문화 활용에 있어 문화원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복병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생겨난 지역문화재단이었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오던 문화원은 지역문화재단의 성장 속도에 비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각 시·군 문화원뿐만 아니라, 도연합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할 때 가장 먼저 시작했던 작업은 도연합회 사업의 전면적인 재배치였다. 도연합회의 사업 중에는 이미 지방문화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다. 사업의 맥락을 다시 잡고, 단위 사업이 일관된 하나의 흐름으로 상호 연관관계를 맺는 기획이 시급했다.

그 속에는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동안 도연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연구는 지방문화원의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존재 목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사업진행은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 모두 침체될 수밖에 없다. 계획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 우선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도연합회와 31개 시·군 문화원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워크숍, 연수,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에 ‘목적성’을 더했다. 앞서 “키우다”에서 살펴본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를 보면 2010년까지의 주요 프로그램은 지방문화원 사업 소개(공연), 특강 청취, 향토문화 사업에 대한 논의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경기도 전체 문화원의 아젠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문화원의 ‘성취’보다는 ‘현실’에 주목하였으며, 구성원의 범주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특성화 프로그램(4색 섹션)을 마련했다. 이런 변화는 연수가 단순히 문화원 사업의 홍보 공간이자 의례적 행사로 치부되는 것을 지양하고, 도연합회와 문화원 간 깊은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기록하다”를 통해 살펴본 『경기도문화원에서 노을자』는 지방문화원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분석했다. 도연합회가 사업의 전면에 나서서 것이 아니라, “지방문화원이 잘 되어야 도연합회도 잘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각 문화원의 사업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제17회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중 원장단 '경기도 지방문화원 아젠다 토론회'

2단계 네트워크(2013~2014)

"우리, 계속 만나볼까요?" 1단계 네트워크의 심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실행으로 옮기려 하니 진통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특히 도연합회의 애매한 위상이 문제였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당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기도지회(支會)라는 법적 지위만 있을 뿐, 예산·제도적 지원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충당하고 있었다. 게다가 도연합회의 회원은 '문화원'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31개 시·군 문화원이다. 그러나 각 지방문화원은 시민들과 직접 교류하고 있는 독립법인이다. 도연합회를 둘러싼 현실적 여건은 모두가 만족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기 발전 방향이 수립이 마무리 되어가는 2013년부터 2단계 네트워크 정책을 가동했다. 이 시기에는 1단계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네트워크 사업을 심화·발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도연합회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연합회의 위상 강화'라는 목표도 세웠다. 일종의 투 트랙(Two Track) 정책인 것이다.

이 무렵 네트워크 사업은 한층 성숙해진다. "펼치다"에서 언급했듯이, 도연합회는 '사업의 브랜드화'를 꾀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이 한 자리에 모인 축제의 장인 '페스티벌31'은 바로 이 시점에 만들어졌다. '페스티벌31'은 향토문화의 전승·보급·활성화를 위한 축제인 '경기도민속예술제'와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 대응하는, '생활문화' 사업을 결산하고자 마련된 축제이다. 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해 배경이 되어왔던 지방문화원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장을 연합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여 만들어진 '페스티벌31'은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 간의 네트워크를 한층 성숙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2011년부터 부활한 '경기도시낭송의밤' 사업은 <시가예찬>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다. '페스티벌31'이 도연합회가 마련한 경기도 문화원 교류의 장이라면, '경기도시낭송의밤'은 기획 단계부터 도연합회와 개최 시·군 문화원 간의 협력을 통해 탄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3단계 네트워크(2015~)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존재 목적을 다시 생각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1단계와 2단계 네트워크 전략이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네트워크 정책의 세 번째 단계를 세웠다. 1단계에서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 간의 교류를 마련하고, 2단계에 이르러 1단계 정책을 심화함과 동시에 도연합회의 위상을 고민했다면,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한 3단계 네트워크 추진 방향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본연의 목적'을 모색하는 일이다.

앞서 “펼치다”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 사업 전략은 지방문화원 지원, 네트워크 연계, 미래비전 제시, 기획사업 개발 및 시범 사업 추진이라는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네트워크 연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는 각 지역 향토문화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문화원 위상 강화를 위해 중요한 네트워크의 중심점이다. 이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각 지역 향토문화연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연구위원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연구소 조직 강화를 위한 담론 형성의 장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향후 《경기향토사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 가능한 향토문화 연구 기반이 다져지길 기대한다.



2016년 경기창작센터에서 진행된
'경기향토문화연구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2016년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위해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의집협회 간 MOU체결

한편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도연합회-지방문화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광역문화재단 사업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3단계 네트워크에서 등장한 정책이다. 문화재단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례는 챕터 1의 ‘생활문화’에서 보았던 ‘경기생활문화플랫폼사업 <매일매일 생활문화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다. 지금까지 봤던 모든 정책들이 어떻게 도연합회 본연의 목적을 모색하고 있을까?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를 마무리하며 스스로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화원의 자기 위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방문화원 상호 간 네트워크 형성에서 나왔던 문화원 중심의 지역학협 의체의 출범을 기대하는 목소리에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각 지역의 문화원은 해당 지역 문화의 보고이다. 문화원이라는 기관의 일차적인 사명은 향토문화의 발전적 계승에 있으니, 오늘날의 사업은 바로 도연합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같은 곁에 있는데, “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문화 사업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가?”, “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보하는 문화답론을 생산하고 있는가?”이다. 이는 3단계 네트워크가 바탕을 두고 있는 사업들-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4년 지방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지역문화정책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생활문화’를 문화원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문화’가 무엇인가? 기존의 예술 작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문화의 생산자가 되어 개인의 만족과 공동체 형성을 끌어내는 예술 행위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도 지방문화원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

마지막 질문은 “문화원이 그 대안 문화를 고민하고 있는가?”이다. 대안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는 가치와 지향의 문제이다. 목표 설정의 문제이며 비전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문화원이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에 따라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지금까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구축한 세 단계 네트워크의 역사를 살폈다. 네트워크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존립의 근거이다. 따라서 이 사업들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 자체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경영 혁신의 관점에서, 또는 사업 방향의 전환에서, 혹은 아카이브 활용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맥락 아래 개별 사업을 살펴보자. 앞서 잠깐 언급했던 <페스티벌31>과 ‘경기도시낭송의밤 <시가예찬>’이 어떤 고민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구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잘 이뤄졌는지를, 여러분의 시각에서 살펴볼 차례이다.



경기도 지방문화원, 지역의 예술가와 시민의 네트워크 자리 '경기도시낭송의밤'

15 경기도문화원연합회마당 <페스티벌31>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2014년부터 시작한 <페스티벌31>은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기획하던 지방문화원이 주인공인 무대를 만들고, 그들의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장이다. 구체적으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민 중심 문화예술동아리들이 1년간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스스로의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 활동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교류의 기회가 적었던 지방문화원들이 서로의 활동을 살펴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페스티벌31>에서는 '내가있는날31', '생각하는손31', '문화원이야기31'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내가있는날31'이 지방문화원 동아리들의 장르 융복합 콜라보레이션 공연이라면, '생각하는손31'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원이야기31'에서는 각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최전선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을 살필 수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페스티벌31>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원들이 지난 1년간 노력한 모습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사업을 거쳐 <페스티벌31>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네트워크 정책의 대표 사례가 되었다. 도연합회는 이 사업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분야와 유형에 맞는 공연, 전시를 기획하고 지역 문화 활동가 모두가 중심이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있다. <페스티벌31>은 문화원이 만드는 '지역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16

경기도시낭송의밤 <시가예찬詩歌禮讚>

“나의 생은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메었으나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기형도 - 질투는 나의 힘 中)

많은 사람들은 기형도에 대해 시니컬한 어조로 사랑과 시대를 읊은 시인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가 경기도 출신인 것에 대해서 아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천상병, 홍사용 같은 굵직한 시인들도 기형도와 마찬가지로 경기 출신이다. 이런 경기도 출신 시인들의 글을 함께 나누며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행사가 바로 '경기도시낭송의밤'이다.

2006년 한 해 개최했던 '시낭송의밤'을 발전적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의 첫 개최를 시작으로 광주 남한산성, 파주 자운서원, 남양주 다산홀 등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열렸다. 기존 시낭송 행사가 시인들이 주인공이었다면,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는 전문 예술인과 아마추어가 함께 시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시도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근배, 정수자, 문태준, 손택수 시인 등은 물론이고 경기도의회의 의원 및 문화원장들을 초청하여 애송시와 자작시를 낭송토록 하고, 경기문학을 바탕으로 한 시조뮤지컬과 퍼포먼스 등을 선보였다.



경기도시낭송의밤 <시가예찬>

연도	사업명 및 주제	장소 일시	관람객수
2006	제1회 도민과 경기도 문화원이 함께하는 시 낭송의 밤	성남아트센터앙상블시어터 12/5	500
2011	제1회 경기도시낭송의밤 '경기도, 시와 함께 꿈꾸다'	경기도문화의전당아늇한소극장 10/18	500
2012	제2회 경기도시낭송의밤 '경기도, 시를 노래하다'	경기도문화의전당아늇한소극장 8/23	200
2013	제3회 경기도시낭송의밤 '인문학으로 만나는 경기도, 산성시가'	남한산성행궁외행전 8/27	300
2014	제4회 경기도시낭송의밤 시가예찬2014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방법'	남한산성행궁외행전 9/18	200
2015	제5회 경기도시낭송의밤 시가예찬2015 '스스로 처음이 되는 힘'	파주자운서원 10/10	200
2016	제6회 경기도시낭송의밤 시가예찬2016 '위대한 일상'	남양주시청다산홀 10/22	200



시를 매개로 다양한 예술 언어가 소통하는 행렬은 다음 해에도 이어졌다. 2012년 행사는 4가지 섹션으로 나눠 시와 음악을 결합하였다. “그 이상한 연주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내 몸의 전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튕겨지는 때도 있다” (기형도 - 먼지투성이의 푸른 종이 中), “이 것은 무슨 음악이지요?” (천상병 - 음악 中) 등 각각의 시는 뮤지션의 손길을 거쳐 마치 콘서트처럼 수원의 밤 하늘을 수놓았다.

2013년부터는 장소를 광주의 남한산성으로 옮겼다.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발맞춰 경기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에서 경기문학을 향유하자는 의미였다. <인문학으로 만나는 경기도, 山城詩歌>를 주제로 시와 음악, 마임, 샌드아트 등으로 풀어냈다. 낭송 행사는 안혜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 도의원들과 경기도 각 시·군문화원장들이 발굴한 지역 시인들의 시를 즐길 수 있는 장으로 구성했다.

2014년 행사부터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바로 시 낭송의 밤 행사에 <시가예찬詩歌禮讚>이라는 타이틀이 생긴 것이다. 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2011년 이후 기획사업의 방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도연합회의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해 사업의 질

을 향상하고, 기획사업을 고유의 브랜드로 만들고자 추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시낭송의밤 <시가예찬>’은 시를 매개로 인문학적 소통을 추구하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축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2015년 행사는 파주울곡문화제 기간에 열리며 깊어가는 가을 밤 인문학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자 노력했다. 2016년에는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여섯 번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시낭송의밤’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나고 자라난 시인들의 삶을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재조명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문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인문학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매 해 다른 문화현장에서 시 낭송의 밤 행사를 열면서 개최지 문화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화원, 지역동아리 간의 네트워크 구축 역시 ‘경기도시낭송의밤’ 사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앞으로도 경기 지역의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인문학적 감성의 회복을 모토로 한 문학의 장을 펼쳐 나갈 것이다.

키우다

역량 강화

한눈에 보는 경기문화원연합회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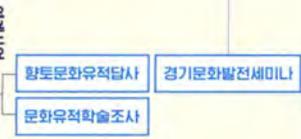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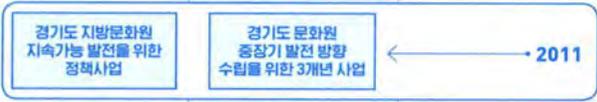
임직원 교류를 통한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문화 전문가 아카데미
경기도 문화가족 활동연수



경기도 문화원의 활동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정책 및 사업화 방안 연구

향토문화 자원을 도연합회가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



문화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시도지원본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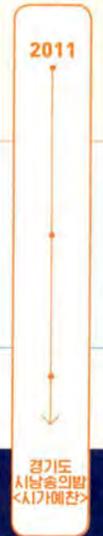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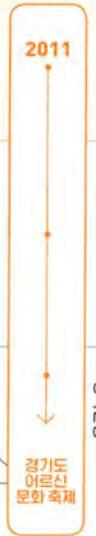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사업

경기생활문화플랫폼 <매일매일 생활문화 이야기>

생활문화 지원 사업

한문연 '나이없는날' 사업

시낭송의 밤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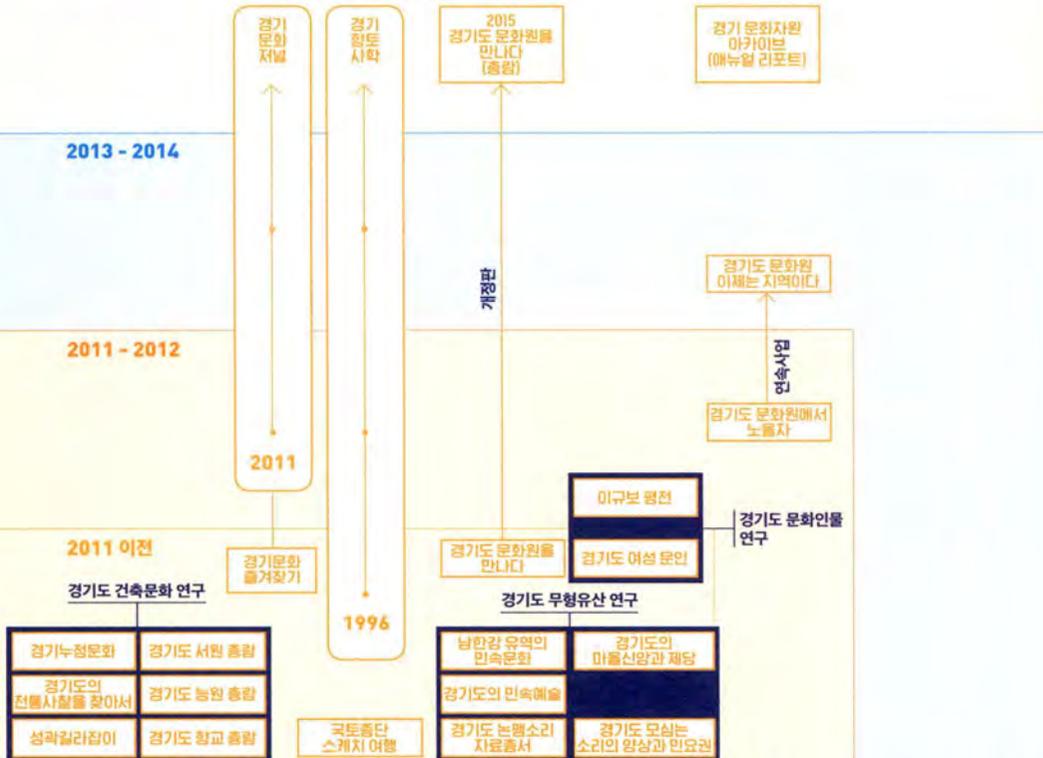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 교육지원사업

어르신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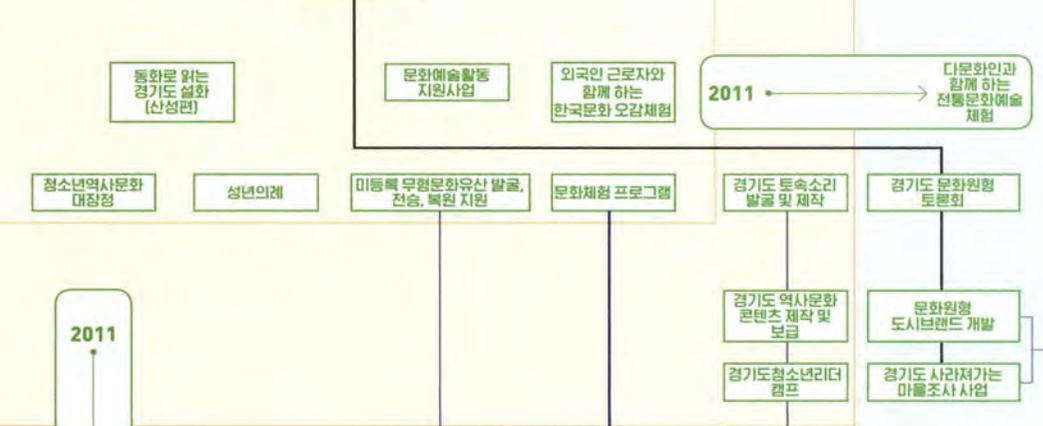
연다

네트워크

경기 향토문화 연구 총서



경기 문화상징 토론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존재의 목적을 고민하며 기획·지원사업 진행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주년 기념 백서

사업편 구성에 대한 해설문

강 운 주

백서 사업편 책임연구원,
경희사이버대학원 문화예술경영
전공주임교수

백서란 본디 정부가 특정 사안이나 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책으로, 영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표지가 하얀 색이었기 때문에 백서(White Paper)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이 30주년 백서도 연합회가 지난 30년간 해온 일을 문화원연합회의 구성원인 31개 시도 지방문화원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백서 작업을 하고자 이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문화원이 해온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대한 자료가 충실히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만큼 어떤 행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또 다른 행사에 대한 내용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백서 집필팀이 가장 우려한 점은 남아 있는 자료의 많고 적음이 실제 행사의 경중을 뒤바꾸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명한 역사학자 E.H. Carr가 말한 것처럼 결국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인 만큼, 현재의 자료 보존 상태 역시 과거와의 대화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백서 발간에 있어 사업팀이 정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읽히는 백서를 만들자'였다.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책이 어느 서가 구석에 처박혀 버리거나 서랍에 들어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만큼 슬픈 운명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의미와 재미를 겸비한, 만드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술술 수월하게 읽어 넘길 수 있는 기록이 되게 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의 사업부분은 모두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장은 되도록 역사를 팩트와 사료(史料) 위주로 꼼꼼하게 정리하고자 했다. 문화원연합회 정관 제4조(사업)의 1호로 올라가 있는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 및 계발 활동지도와 지역 문화 활성화 시대의 문화원연합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생활 문화에 대한 내용 등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구성된 첫 번째 장을 통해 독자들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지난 30년간 진행해온 향토문화와 생활문화 장에서의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장은 사료 위주의 기술이 아니라 문화원 연합회가 해 온 일들을 의미 위주로 재구성하여 연합회가 한 역할에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각각의 역할이 이루어 낸 성과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적고, 첫 번째 장에는 없었던, 집필팀의 관점이 개입된 해석을 더하였다. 이를 위해 집필팀은 최대한 객관적 위치를 고수하고자 노력하였고 행사를 진행한 연합회 측의 주관적 의견도 되도록 중립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다.

첫 번째 장의 첫 부분인 향토 문화는 1. 향토문화 연구 사업, 2. 향토문화 활용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칫 잊혀질 수 있는 향토 문화의 자취를 발굴해 내고 이를 기록하는 일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활용한 기획 사업으로 향토문화를 보급하고 활성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잡았다.

1. 향토문화 연구 사업은 다시금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뉜다. ① 연구와 지원, ② 향토사 콘텐츠 발굴과 제작, ③ 발간사업으로 나뉜 이 장을 통해 독자들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향토사 연구를 위해 진행한 조사 사업이나 토론회, 발굴해낸 향토 문화 콘텐츠, 마지막으로 이러한 향토 문화 콘텐츠 보존을 위해 발간한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2. 향토문화 활용 사업은 ① 축제, ② 향토문화 콘텐츠 활용, ③ 향토문화 사업 지원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경기도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경기도민속예술제>와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를 통해 진행된 향토 문화 활성화는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의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① 축제 부분에 기록했다.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한국문화 오감체험', '다문화인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예술 체험'과 같은, 문화다양성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앞서서 실천한 행사에 대한 내용은 ② 향토문화 콘텐츠 활용에 담겨 있고, 경기도의 미등록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전승하며 복원까지 지원한 다양한 향토 문화 지원 사업은 ③ 향토문화 사업 지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인 생활문화는 1. 어르신 문화 사업, 2. 생활문화 축제와 전시, 3. 생활문화 지원 사업으로 나누었다. 경기도의 생활문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한국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노년층의 생활문화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어르신들이 문화 프로그램을 서로 교류할 수 있게 지원했고, <요즘할매 요즘할배>라는 공개방송 형식의 프로그램도 진행했으며, 어르신들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자 양성을 위한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기획자 교류사업'도 지원했다. 이 내용이 생활문화 장의 첫 번째 부분인 1. 어르신 문화 사업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

생활문화 활동에 있어 축제는 명실공히 생활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생활문화 참여자들의 카니발이다. 2. 생활문화 축제와 전시에서 소개하는 '페스티벌31'은 경기도의 31개 문화원이 함께 진행하는 큰 행사로, 각 지방문화원 문화예술동아리들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이며 향후 지역 문화 분권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3. 생활문화 지원 사업에서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하고 있는 '경기도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사업'과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시도지원본부 운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어느 기관의 동아리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원 동아리를 전수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온 일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문화지원 정책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집필팀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백서의 두 번째 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 시간 고민했다. 오랜 고민의 시간을 거쳐 나온 결론은 문화원연합회가

본디 충실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냈는지를 점검할 점, 기본적인 문화원연합회의 역할, 곧 역량강화와 기획 및 지원, 기록과 네트워킹 이 네 가지를 제목으로 하여 두 번째 장의 갈래를 잡자는 것이었다.

1. [키우다] 역량강화에서는 ① 조직 혁신, ② 인력 양성, ③ 시선의 확장을 다루었다. 경기도의 지방문화원들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잡아야 할 발전 방향 수립 3개년 사업과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룬 ① 조직 혁신에는 지방 문화원들이 진행해온 사업에 대한 냉정한 성찰 및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다. ② 인력 양성 분야에는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와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그리고 '경기도청소년리더캠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도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는 서로 소통이 어려운 각 지방문화원의 인력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별 격차가 큰 문화원의 활동들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생산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내부적 교환 외에도 외부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성장하게 하기 위한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인력 양성 분야에서 내외부적 균형을 잡고자 기울인 노력을 보여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③ 시선의 확장 부분의 핵심은 답사 프로그램이다.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 조사를 비롯하여 향토문화유적답사와 해외문화유적답사 등 다양한 색채의 답사 프로그램들을 통해 백문이 불여일견인 문화 유적 이해의 깊이를 더했다.

2. [펼치다] 기획/지원사업은 크게 기획과 지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011년 이전까지의 기획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역사문화대장정'이 있고, 2011년 이후의 기획 사업으로는 '문화터누리기획사업<활생공명>'이 있다. 2011년을 기점으로 전후 구별이 되는 이유는 2011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며 이전의 기획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 방향을 잡고자 했기 때문이다. 2011년 이전의 사업 두 가지가 하나는 소외 주민을 대상으로, 다른 하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유와 체험 위주로 진행된 사업이었다면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사업명을 내걸었던 2010년 중앙 정부의 흐름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곧 향유 위주의 정책 방향이 시민들이 직접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여건 조성으로 바뀌면서 문화원연합회도 문화예술교육 전개를 통한 문화시민육성과 같은 아젠다를 갖게 된 상황인 것이다.

2. [펼치다] 기획/지원사업의 지원 사업 설명 부분에는 개별 지방문화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성남문화원을 비롯하여 의정부, 파주, 여주문화원 등에서의 지원은 이들이 독특한 지역색을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두 번째 장의 세 번째 부분인 3. [기록하다] 아카이브에서는 ① 경기도 문화원을 기록하다와 ② 경기도의 문화를 기록하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그간 흩어져있었던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역사와 경기도의 문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기록하려 한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31개 시·군은 경기도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었고 각 지역의 사업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감할 수 있게 되었다. 개별 지방문화원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뒤늦게나마 시작했다는 것은 큰 성과로 인정받을 만하다.

4. [읽다] 네트워크 역시 3. [기록하다] 아카이브가 기여한 도 내 31개 시·군의 소통과 교류의 연장선상에 있다. <경기도시낭송의밤>이나 <페스티벌31>과 같은 대표적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지방문화원 간의 다양한 형태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은 명실공히 광역 단위의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글머리에 썼던 것처럼 집필팀의 입장로서는 자료의 미진함 때문에 기재하지 못한 역사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백서 발간 과정을 계기로 하여 이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은 보다 더 꼼꼼하게 기록되고 정리되어 60년 백서, 100년 백서를 낼 때에는 이 책자보다 훨씬 풍성한 역사의 기록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역 문화를 견인해내는 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했던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백서 발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을 덧붙이며 이 글을 마친다.



연합회
의장 오찬 간담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역대 회장



1985~2003
제1대~3대 송승영
(부천문화원장)



2003~2006
제4대 김종기
(수원문화원장)



2006~2009
제5대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2009~2012
제6대 오용원
(평택문화원장)



2012~2013
제7대 정상중
(시흥문화원장)



2013~현재
제8대~9대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2017년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장 현황

회장



수원문화원장
염상덕

수석부회장



부천문화원장
박형재

부회장



영주문화원장
조수기



안산문화원장
김봉식

감사



시흥문화원장
정원철



성남문화원장
김대진



양평문화원장
장재찬



연천문화원장
이경순



여주문화원장
김문영



고양문화원장
방규동



안성문화원장
양장평



평택문화원장
김은호



김포문화원장
이하준



군포문화원장
박계일



이천문화원장
조명호

회원



가평문화원장
김만중



과천문화원장
이용석



광명문화원장
안성근



광주문화원장
박기준



구리문화원장
김문경



남양주문화원장
이보궁



동두천문화원장
정경철



안양문화원장
신기선



양주문화원장
홍성준



오산문화원장
공창배



용인문화원장
조길생



의왕문화원장
한봉우



파주문화원장
이용근



포천문화원장
양윤택



하남문화원장
유병기



화성문화원장
고정석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 백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 백서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최영주
기획	오다예
집필	강윤주, 이근욱, 조은영, 박세희
디자인·인쇄	다람이스토리, 폴리오디자인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후원	 세종대의 경기도  경기도의회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6F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전화	031-239-1020
팩스	031-239-3785
홈페이지	http://www.kccfgg.org

본 백서는 2017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본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글과 도판을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8005333

ISBN 979-11-962734-5-3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